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9호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진각 100년' 마스터플랜 문화사업에 방점 찍다

진각종, 문화·교화사업단 신설… 新 발전 동력 갖춰

창종 70주년을 맞은 진각종이 '진각 100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진언행자의 자세를 점검하고, 새로운 서원불사를 통해 종단 역량을 한 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최근 문화포교 확대와 종단 미래 교화 등을 위해 진각문화사업단과 국제교화사업단을 신설하고, 각 단장으로 총무부장 호당 정사와 사회부장 덕운 정사를 임명했다. 별도의 사무국과 실무팀도 꾸려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웠다.

진각문화사업단서 눈길을 끄는 것은 총인원의 '밀교공원화(가칭)'다. 현재는 사업 구상단계지만 '빛'과 '명상'을 테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관조명 설치와 '밀교걷기명상로' 마련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인원·전승원 등과 어우러지도록 구성하는 한편, '마음'을 주제로 구간을 나눠 각 길에 담긴 의미가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승원 로비층 강당을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해 대관사업을 전개하고, 문화예술 단체에 상주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불교·지역문화예술단체에 상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엄정한 심사를 한 뒤 강습·동호회 육성지도·기획공연 등의 의무도 부여한다. 인재 육성과 예술 창작에 일조하도록 해 종단 문화기반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단 내 자체 전문문화단체를 설립해 불교계 문화전반을 이끌어갈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가장 눈여겨볼 일정은 전승원서 열리는 회당문화축제다. 그동안 회당문화축제는 종조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서 개최됐다. 올해는 성역불사를 회향하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 회당 대종사와 진각종의 대중화·사회화를 위해 서울서 행사를 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회당문화축제는 6월 15일 헌공불사가 끝난 뒤 막이 오른다.

총인원 '밀교공원화' 부터
공연장 대관사업 등 나서
지역연계 문화 확대 추진

회당축제 서울서 첫 개최
대중화와 성역불사 강조
"종단 문화정체성 찾는다"

총무부장 호당 정사는 "울릉도 회당문화축제가 '보은 문화불사' 성격이라면 서울 회당문화축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제'라고 볼 수 있다. 총인원 성역화 마무리의 의미를 지역이 공감하도록 기획했다"며 "서울서 처음 열리는 회당문화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축제장소 변경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진각문화사업단은 전승원에 등(燈) 공방을 설치해 제작·보관·전시·교육·체험 등이 가능한 상설 문화공간 마련에 힘을 싣는다. 전속작가와 공모전을 통한 작품 확보, 특별전시, 수익형 사업 등 전승원의 랜드마크화를 위한 핵심콘텐츠로 활용된다. 진각문화사업단은 △문화콘텐츠팀 △등문화사업팀 △출판팀 △공연장팀 △문화교육팀 △지역교류사업팀 등 세부조직을 갖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교화사업단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전담하는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성격의 체험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심인당은 사찰이 아니어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할 수 없고, 전통사찰과는 다른 진각종만의 문화를 녹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체험프로그램은 전통문화투어 등과 연계해 시작하고, 차츰 다듬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심인당은 대부분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현대적 시설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단 점에서 기존 템플스테이와는 차별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진각종은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제2의 종단 중흥을 도모한다. 사업방향과 관련해 호당 정사는 "지금은 문화시대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사업은 진각종이 전통문화와는 어떻게 다른지 종단만의 문화정체성을 찾아가는 대작불사가 될 것"이라며 "통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서 진각밀교 노선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사찰음식 호텔서도 맛보세요

국내 최고급 호텔식당에서 이색적인 코스요리가 탄생했다. 바로 사찰음식 코스요리다. 서울 파크 하얏트 호텔은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5월 24~28일 5일간 '사찰음식의 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제철 재료와 직접 담근 발효장을 활용한 사찰 음식은 높은 호응을 얻었다. 페데리코 하인즈만 총주방장에게 사찰음식을 설명하는 선재 스님의 표정이 해맑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파크 하얏트

종교도 빈부 격차… '금수저'가 더 믿는다

〈서울사회학〉 수록 논문서

강남·서초 有종교 50% 상회
은평·마포 서북권 30% 불과
서울 2030 불자 4% '빨간불'
불자들 '행복도 높음' 희망적

현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살아가는 20~30대 청년들의 종교생활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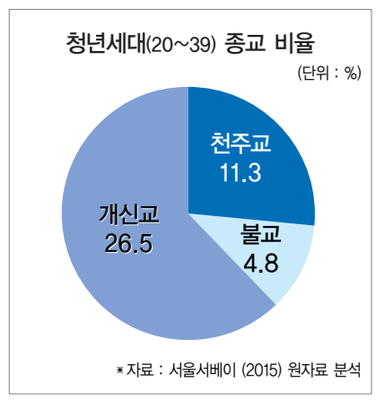
변미리·오세일 연구팀은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사회학〉에 수록된 '청년세대, 피안은 어디인가: 행복·종교·세대의 관계성 탐색' 연구에서 현재 서울 청년들의 종교 생활을 분석했다.

탈종교 심화… 청년 불자 枯死 위기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20~30대 청년들은 43%가 종교를 가졌다. 이는 중년(46.5%)·베이비붐 세대(52.5%)보다 낮은 수치다. 60대 이상 고령세대는 60.5%가 종교를 신앙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청년세대의 종교인구는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2007년 청년세대의 '종교 있음' 비율은 47.3%였으나 2015년에는 42.8%로 4.5%가 줄었다. 40~51세의 장년층 역시 '종교 있음' 비율이 최근 5년 사이에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불교에게 더 좋지 않다.



청년 세대에서의 불교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2015년 서울서베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0~30대 청년세대 중 불교 인구는 4.8%에 불과하다. 60대 고령자 중 22.7%가 불자인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40대 장년세대에서도 불교 인구는 8.7%에 그쳤다. 이는 가톨릭(9.8%)보다 낮은 수치다.

반면, 청년세대 중 26.5%는 개신교를, 11.3%는 가톨릭을 믿었다. "서울시에서 종교를 가진 청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교(개신교+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도 금수저 전유물되나

연구팀은 지역별 청년세대 종교 인구 분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상층 이상이 밀집한 서초·강남·송파구 등 동남권 지역의 청년 중 유(有)종교인 비율은 50% 이상을 상회했다. 반면 금천구·관악구·은평구·영등포구 등은 30% 가량의 청년들이 종교를 믿었다.

연구팀은 "청년층의 '유종교' 비율은 주로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 높다"며 "개신교 비율은 동남권에서 32.8%로 압도적이다. 이는 대형교회가 밀집한 강남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 불자 '행복도'는 최고

하지만, 종교를 신앙하는 행위가 청년들의 행복을 크게 증장시키지는 못했다. 질병과 금전, 우울의 측면에서 종교의 사회적 지원망을 분석한 결과 개신교(긍정 응답, 72.1%)와 가톨릭(73.5%)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무종교인(71.4%)과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불교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평균 75.3%으로 다소 높았다.

이는 종교유형별 행복 지수에서도 나타난다. 불자 청년들은 10점 만점 기준 7.36으로 행복도가 가장 높았으며, 개신교(7.29)·가톨릭(7.22)·무종교(7.17)가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종교를 가진 청년들의 행복감과 종교 간 관련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종교 신앙 행위가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영향을 받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직선제 결국 무산

5월 24일 중앙종회서 부결

불교 종단 최초의 직선제 도입으로 관심을 모았던 태고종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가 태고종 종회의 이전투구 속에 무산됐다.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종정 혜초 스님, 원로의장 덕화 스님 등이 종회 시작과 함께 종회의원 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찬성표는 종헌 개헌이 가능한 38표에 턱없이 부족한 20표에 불과했다.

5월 24일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가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개최한 '제129회 임시중앙종회'는 시작부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총무원장 제안으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예정됐지만, 종회 시작과 동시에 종단 분쟁의 한 원인이었던 '호법원장 선출에 대한 추인 안건'이 첫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호법원장 선출의 정당성을 두고 2시간 동안 종회서는 고성이 오갔다. 중재 끝에 결국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상정, 표결에 들어갔지만 부결됐다. 이날 종헌 개정이 부결되며 오는 7월 중으로 예정된 제26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출은 현행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월봉 스님을, 부위원장에 법련 스님을 임명하는데 동의했다. **노덕현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2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4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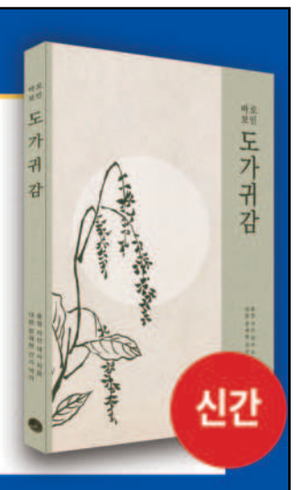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도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도교의 뜻

도가귀감은, 일물(一物, 온통인 마음)을 밝혀서 회복함으로써, 나고 죽음을 비롯하여 모든 아픔과 고를 여의어, 뜻과 같이 누려서 살게 하고자 한 도교의 뜻을,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책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부록으로 도덕경의 중대한 대목을 더하고, 도가귀감과 도덕경의 대목대목마다 결문(決文)하여, 깊은 내용을 쉽게 수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간

달다 – 전강 대선사 법어집



공안참구법의 봉화와 같은 지도서
달다를 스승 삼아 참선합시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조계종, 선암사 소송 호남지역 대책위 구성

조계종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금산사 · 백양사 · 화엄사 · 송광사 · 대흥사 · 선운사) 주지협의회가 순천 선암사 소송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은 "각 교구본사주지와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5월 22일 광주 시내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 선암사의 소유권을 태고종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의 중요성을 외면한 부당한 판결임을 확인했다"며 "2심 소송 승소를 위해 지역 불교계의 역량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선암사 공동관리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조계-태고종 합의를 전면 위배한 것으로 판단, 태고종 선암사 측의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정관계 · 법조계 · 언론계 등과의 연찬회를 비롯해 연합법회, 포살법회 시 관련 자료 배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천태불자들 정진해 세상의 등불 되자"

천태종, 상월대조사 열반재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5월 22일 구인사 광명전서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43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하늘에 해와 달이 있어 낮과 밤을 밝히듯, 우리에게는 대조사님의 원력과 가르침이 있어 삼독과 무명번뇌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 우리 천태불자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시대의 사표가 되도록 정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추도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열반 43주기를 추모하는 법석이 불조의 혜명을 더욱 현창해 세상의 무명번뇌를 걷어내고 개인의 업장과 공업의 마장을 소멸시키는 청정공덕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법요식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회성 정사, 도종환 국회의원, 류한우 단양군수, 한광수 금강대 총장,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등 2만 여명이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미래세대委 9월 출범 계획… 개념정립 과제

발족준비팀 구성, 예산 5000만원 종무회의 통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가 오는 9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세대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심산)는 5월 2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사업기조와 목표 등을 논의한 데 이어 9월 출범을 위한 발족준비팀을 구성했다. 준비팀은 포교국장 원묵 스님 등 부위원장 3인과 사무국, 외부 청년인사 2~3인으로 꾸려진다. 또한 이에 앞서 17일 예비비 예산 5000만원이 종무회의서 통과됨에 따라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개념정립과 위원회 활동범위 등을 두고 준비위원들 간 이견이 제기됐다. 크게 미래세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와 '청년 이하 젊은이'로, 활동목적은 '불교계 내부'와 '종교 색채를 없앤 사회 전반' 등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미래세대 개념과 관련해 범위를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스님은 "50대의 미래는 40대고, 40대의 미래는 30대다. 어린이 · 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국한시킨다면 동련이나 파라미타, 대불련 등의 사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며 "기존 조직의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간담회 비롯해
연구과제 설정 등 계획
반성 · 성찰 목소리도
"종교 초월해 접근해야"

이에 정웅기 부위원장은 "포교나 교육과 같은 부분은 총무원 각 부서에서 할 일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이 불교를 더욱 자신 있게 알릴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내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미래가 설정되지 않은 어린이부터 20대 청년 비불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을 듣는 게 순서다. 그들이 곧 미래의 사회주도층이기 때문"이라며 대상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위원회 발족준비팀을 구성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는 아동 콘텐츠 개발과 군포교 등 불교계 현안을 비롯해 지자체와 연계한 대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회의 말미에는 '종교를 초월한 사회적 접근'으로 압축됐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예로 들어 "사회노동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오랫동안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했다. 종교를 초월해 신뢰가 쌓였고 세월호를 인양한 뒤에도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단순히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노력이 사람들을 불교와 잇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불교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도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원(직할교구) 법원 스님은 소위 '산토끼 집토끼' 비유를 들어 "불교인재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상황에 교계를 벗어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다. 이미 불교계에 인재가 많은데 집토끼를 관리하지 못한 것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채은 부위원장은 "젊은 불자들은 불교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불교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일한 만큼 보람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월급은 제대로 받느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다. 단순히 젊은이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0분 동안 열띤 토론을 이어간 위원회는 차기 회의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6월 미래세대 및 관련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연구과제(종책 · 청년이슈 개발) 설정, 위원후보 확정 및 접촉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가시화'

조계종 문화부, 업체 설명회
7월 기공… 지상 2층 규모

괘불 보존 · 수리기관 목표
고풀 등 약품 저장고부터
복원처리실 등 공간 활용
불교문화재硏 이전도 고려


위례신도시에 건립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조감도.

최초의 성보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의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현)는 5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공개입찰에 참여할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시공 및 감리 관련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센터 건립과 관련한 기본계획, 진행경과 등이 공개됐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위례신도시 제4공구 종교용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국고와 자부담을 포함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불사로 오는 2019년 완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 불화인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처리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관이자 전국 사찰의 불교문화유산 관리의 종합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발주해 올해 초 발간한 성보문화재연구원의 용역연구보고서 〈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불화(괘불)의 전문보존처리기관으로 관리 · 운영됨을 기본운영계획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지정불교문화재 보존처리 위탁 · 성보 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 전국 사찰 소장 성보문화재 보존이력시스템 및 과학적 모니터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을 목표로 한다.

센터의 공간활용도 괘불 전문 복원 · 수리 기관에 걸맞게 이뤄진다. 지하 2층에는 보존처리과정에 필요한 약품을 저장하는 창고가 들어선다. 특히 괘불 복원 · 수리에 반드시 필요한 고풀(삭힌 풀)을 저장하는 공간이 마련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지하 1층은 센터의 핵심 공간으로, 대형불화처리실 · 불화처리지원실 · 다목적보존처리실 · 지류/회화실과 같은 대형불화 보존과정에 필요한 주요 작업 공간이 배치돼 있다. 지상 1, 2층은 사무공간과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2층의 경우 상호 업무 연계가 필요한 조계종 (재)불교문화재연구소의 이전을 고려해 충분한 사무공간을 마련할 것을 연구보고서는 제언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시공업체 등이 선정한 후 오는 7월 중 착공식을 열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불사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불화 전문 보존처리 기관이자 성보 문화재들의 보존 ·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업체 선정과 설계가 이뤄지면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광덕 스님 육성법문 '유튜브'서 만난다

불광연구원, 채널 개설… 100편 동영상 업로드

불광법회를 개설해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었던 금하 광덕 스님〈사진〉의 육성법문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광덕 큰스님의 육성법문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불광연구원은 이를 통해 광덕 스님의 가르침과 불광사상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전법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광연구원은 올 초부터 광덕 스님 육성법문을 동영상 콘텐츠로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카세트테이프와 오디오 파일로 보존해 온 광덕 스님의 법문 700여 개 가운데 호법법문과 경전강좌 등 100편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해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착수했다.

이후 △음질 보정 및 평탄화 작업, △내용 편집 △사진을 활용한 영상 제작 △자막 삽입 △재생 목록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불광연구원은 광덕 스님의 육성법문 자료에 수행과 전법활동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법문의 생동감을 더했다. 또한 100편의 동영상을 13개 재생 목록으로 분류해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덕 스님의 육성법문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불광연구원'을 검색하면 바로 채널에 접속할 수 있으며, 채널 상단의 '구독하기'를 눌러 채널 구독을 하면 신규 동영상 업로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불광연구원은 "근현대 선지식 중 유튜브에 개별 채널이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튜브 외에도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등 다양한 SNS 채널도 활용해 법문 동영상 공유 및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고려대장경硏 24년 결실, 동국대서 여문다

동국대 · 대장경硏 '고려대장경 DB' 기증 · 협약

대장경 전산화의 산실인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의 20여 년 성과물인 '고려대장경 DB'가 불교 · 인문학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동국대(총장 보광)에 기증됐다.

동국대와 고려대장경연구소는 5월 25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고려대장경 전산화본(DB) 기증 및 활용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정승석 불교학술원장,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동국대에 기증된 '고려대장경 DB'는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진행해 온 24년 연구사업의 총체이자 결실이었다.

1993년 3월, 고려대장경의 연구와 전산화를 위해 발족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고려 재조대장경(1996년) △초조대장경(2009년)과 60화엄석경(2004년) △중국돈황 불교문헌(2008년) △고려 교장문헌(2012년 3월~2020년 2월) 등 대장경류와 고문헌 등에 관한 전산화(DB)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려대장경은 불교의 교학과 선학, 계율학, 선어록 등 불교경전을 비롯하여 어제비장전, 변상도 등 회화적 요소와 당대 공인된 문학적인 자료까지 담고 있는 백과사전(叢書)과 같은 동양 최고의 문헌이자 최대량의 지식정보 유물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그동안 이에 대한 디지털 DB를 완성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불교와 인문학술 연구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왔다.

목판 · 인경 이미지 10TB 분량

재조 · 초조 · 돈황 문헌 등 DB일체

동국대 기증… 활용도 높일 전망

ABC사업단 '통합대장경' 구축도

20여 년의 연구가 결집된 만큼 기증된 DB의 양도 매우 방대하다. 데이터 용량만 10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재조(팔만)대장경DB에는 해인사 장경각의 한역 목판본 이미지 16만2516판이, 고려 초조대장경DB에는 일본 남선사 등서 수집한 목판 인경본 이미지 5만1000장이 담겼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과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이 5월 25일 열린 '고려대장경 전산화본(DB) 기증 및 활용 협약식'에서 협약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돈황 불교문헌DB은 대영박물관의 마이크로필름본 341롤, 60화엄석경 DB은 구례 화엄사의 석경 파편 1만3000점의 이미지를 각각 수록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이렇게 구축한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본을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인류의 소중한 지식정보의 자산으로 연구 활용될 수 있도록 동국대에서 유통 ·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증하게 됐다"며 "고려대장경 DB자료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불교와 인문학술 연구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기증받은 '고려대장경 DB'를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의 '통합대장경' 구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려대장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한국불교기록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불교학술원이 추진하는 '통합대장경'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구축한 고려대장경 데이터베이스의 고려대장경 원문 이미지, 한자텍스트와 동국대 동국역경원이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내용적으로 통합하여 한 화면에서 연동하여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디지털 대장경이다. 향후에는 몽골 · 티베트 불교 대장경도 함께 열람이 가능토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은 "이번 기증으로 불교기록문화유산 DB의 보존과 연구, 활용을 위한 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됐다"면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와 불교학술 진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4세기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 관음보살이 독존으로 있는 내영도 도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제공=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 첫 발견

문명대 소장, 日환수 불화 분석 결과 발표

14세기에 제작된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간 내영도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한 도상으로만 알려졌으나, 이번 발견으로 관음보살이 내영도의 도상에 배치됐음이 확인됐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강좌미술사〉 6월호에 수록한 '고려 관음보살내영도의 새로운 출현과 그 의의' 논문을 통해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의 발견 경위와 분석 결과 · 의미 등을 조명했다.

문 소장은 서울의 한 박물관장이 지난 3월말 분석 의뢰한 불화를 감정한 결과 해당 불화가 고려불화 '관음보살내영도'임을 확인했다. 소유자는 해당 불화를 일본의 옥션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음보살내영도'는 83×34.5cm의 화면에 높이 51cm의 관음보살상이 나는 구름(飛雲)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내영도형식을 갖추고 있다.

관음보살상의 보관과 목걸이, 팔찌 등은 금선묘(金線描)로 매우 화려하게 표현됐다. 흔히 보관에 안치된 화불(化佛)이 왼손의 연꽃가지 위에 안치된 것도 이전 불화에는 없는 도상적 특징이다.

관음보살의 법의(法衣)에 나타난 문양도 처음 발견된 것으로 매우 독특하다. 해당 문양을 '보상당초모란잎무늬'라고 명명한 문 소장은 "꽃도 꽃이지만

기법 · 양식 볼 때 14세기 作

觀音 단독 내영 도상은 처음

금선묘 · 모란잎 무늬도 희귀

"아미타신앙 절정을 보여줘"

잎들의 특징이 산(山)형을 이루고, 잎줄기가 좌우대칭적으로 뻗치고 있는 형태여서 특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음보살내영도' 발견은 아미타내영도의 좌협시보살이었던 관음보살이 독존으로 분리돼 내영도로 승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문 소장은 "아미타삼존도 중 삼존상을 각각 분리해 조성한 3폭 가운데 한 폭인지 원래 관음보살내영도를 독립적으로 조성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관음보살내영도라는 새로운 형식이 출현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관음보살내영도'는 선명한 금선묘 채색불화 가운데 전신이 선명한 금선묘로 묘사되는 대표적 사경변성도적 금선불화이며, 법의의 보상연화당초모란잎무늬는 처음 나타난 것으로 고려불화 문양의 새로운 예"라며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유일한 새로운 형식의 불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음보살이 내영도 상에 단독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미타신앙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봤다.

문 소장은 "아미타신앙은 신라시대부터 유가법상종 · 화엄 · 법화 · 선종 등 모든 종파사상에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면서 "관음보살은 아미타불과 일체가 돼 아미타신앙을 더욱 승화시킨다. 아미타 · 관음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 이번의 '관음보살내영도'"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본엄 스님이 영어연구발표회서 '현대 서구사회의 세속불교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영어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말하다

동국대 국제불교학과, 제1회 환지본처 컨퍼런스

오는 8월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가 졸업을 앞둔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영어 소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김성철)은 제1회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영어연구발표회 '제1회 환지본처 컨퍼런스'를 5월 22일 교내 100주년 기념관 402호에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재가자 불교단체의 모범사례 비교 연구-대만 자제공덕회, 미국 IMS, 한국 정토회 중심으로(선중스님) △현대 서구사회의 세속불교에 대한 연구(본엄 스님)가 발표됐다.

선중 스님은 대만 자제공덕회 · 미국 IMS · 한국 정토회의 성공요인으로 △부처님 가르침 현실화 △투명한 재정운영 △대승보살사상의 계승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재가 단체의 비교연구를 통해 포교 대안으로 전문화, 투명화, 분업화는 선별 과제"라고 제언했다.

본엄 스님은 "현대 서양불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 한국불교 세계화에 도움을 주고자한다"며 "서양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합리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세속불교 버전이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속불교의 출현과 발전은 동양의 종교인 불교가 서양이라는 이질적인 토양에서 자리 잡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국제포교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수용과 서구적인 방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려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참석한 교수 및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재학생,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100여 명은 격려와 함께 질문을 이어갔다.

경주=하성미 기자

"국립공원 별도 관리원칙 세워야"

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조계종 환경위 토론회서



자연공원제도 50주년을 맞아 자연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유산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는 2017 토론회 '자연공원 50주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개최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제도는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제1호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총 22개 국립공원, 29개 도립공원, 27개 군립공원이 지정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호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사진〉은 '자연공원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 자연공원 정책의 지난 50년간 노력과 성과를 되짚고 4가지 분야에서 미래 과제를 제시했다.

유 과장은 자연자원 관련 기초자료 파악을 통해 적극적 보전활동이 용이해진 점, 청소 · 시설물 관리로 생태휴양 등 국민 생태복지가 강화된 점, 규제중심 소극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강화된 점 등을 국립공원 관리 주요 성과로 들었다.

하지만 현행제도상 한계도 지적했다. 먼저 '국립공원 정체성'과 관련해 유 과장은 "규모 · 기능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국립 · 도립 · 군립공원을 일괄적으로 묶어 자연공원으로 표기하면서 국립공원이 갖는 특별한 위상과 가치, 공원관리 수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국립공원의 확고한 이념과 관리 원칙을 세우고 도립 · 군립공원과는 다른 보호강도, 이용수준, 서비스 종류 등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大韓佛教 淨土禪宗



관정 큰스님은 중국 근대 3대 고승 가운데 한 분인 허운(虛雲) 화상으로부터 조동종 48대 전법제자로 부촉 받았습니다. 정토선은 중국의 관정(寬淨) 큰스님이 문화대혁명 기간 6년 반 동안 관세음보살의 안내로 극락에 가서 배워온 수행법입니다. 2002년 한국 순회법회 때 현재 정토선종 총무원이 있는 고성의 서방사 자리를 잡아주셨고, 그 때 명예주지를 수락하셨습니다. 아울러 주지 스님을 49대 전법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촉하였습니다.

정토선종(淨土禪宗)은 정토선 수행법을 실천하는 종단입니다.

정토선은 정토(염불)와 선을 함께 닦는 수행법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증과가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정토선을 다른 수행법에 비해 두 가지 수승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염불에서 자성염불 단계, 자성염불에서 일념(一念) 단계, 일념에서 무념(無念) 단계라는 3단계의 로드맵이 뚜렷합니다. 둘째, 다른 수행법은 법력이 높은 스승이 있어 증득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지 않으면 위험한데 반해, 정토선은 3단계가 모두 한마디 염불소리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쉽고 안전합니다.

정토선은 오로지 '나모아미따불(南無阿彌陀佛)을 염불하되 두 편으로 나누어, 먼저 A편이 2번 소리 내서 염불하면 B편이 주의 깊게 듣고, 이어서 B편이 2번 염불할 때 A편이 주의 깊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염불을 계속하면, 귀속이나 몸속에서 염불소리가 들리는데 '자성염불(自性念佛)'이라 합니다. 몸속에서 염불소리가 들리면 더 이상 소리 내서 염불하지 않고 몸속에서 나는 염불 소리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고 한 생각만 남는 일념(一念) 상태에 들어갑니다. 집중된 상태에서 자성염불을 계속 들으면 어느 단계에서 염불소리조차 사라지고 무념(無念)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본산 총무원 西方寺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 1길 432-39 / 전화 010-8633-3719



서방사에서는 오는 6월 4일 내 에 서 고 자 합니다. 기 는 은은하지만 는 정 인 보리수 모 분들이 성 하 고 자 의 이 로 에 이 동 하 시 어 고 행 한 나 의 원동력이 되 시 기원합니다.

1 11

장 소 서 경

1부 정 스 1 1 분

부 수 제 11

사 음 회(자 대 회) 사회 한 / 높은음자리

수 의 다 에 누워, 이

보리수 따기 험, 중 무

주 대한불교 정토선종

원 대 한 불 고 성 사 합 회. 고 성 보 리 수 원

남 고 성 상리면 고 1 43239 / 전화 01086333719

일 주 문



경허 열반 105주년 추모다례재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5월 19일 수덕사에서 경허 스님 열반 105주년 추모 다례재를 개최했다.



제15차 해외성지순례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탄에서 제15차 해외성지순례를 개최한다.



제36차 전국불교청년대회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북청소년수련원에서 제36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스타트업 인식개선 최우수상 수상

김아나 '무아' 공동대표는 5월 25일 연세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스타트업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생명 가치 알리는 '희망걷기대회' 열려

생명나눔, 5월 20일 '제10회 희망걷기대회'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제10회 희망걷기대회를 5월 20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개최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생명존중 사상과 자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희망걷기대회는 올해 10회를 맞은 만큼 더욱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은 남양주 광동고 · 의정부 광동고 · 광동중 · 영석고 · 동대부고 등 불교 종립학교 학생들과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탤런트 김혜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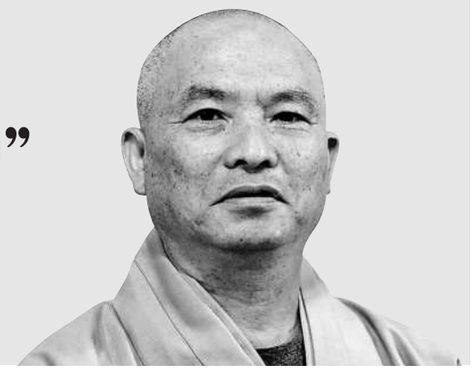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동국대 만해광장부터 남산 북측순환로 4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종립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총 750여장의 헌혈증과 자비의 쌀 300kg, 성금 약 150만원을 생명나눔 측에 전달해 부처님 제자로서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했다.

김선경(남양주광동고 3) 학생은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3년 연속 참여하고 있다"면서 "많은 친구들이 헌혈증 기부를 통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아름 기자**

"북녘땅 코앞에 통일불교문학관 건립"

Interview

〈불교문예〉 발행인 혜관 스님



북한 작가들 작품 접하며
통일불교문학관 건립 꿈꿔
통일동산 내 5월 13일 착공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북카페 · 통일법당 등 들어서

북한땅이 훤히 보이는 파주 통일동산에 〈불교문예〉 발행인 혜관 스님(사진)이 통일불교문학관을 건립한다. 혜관 스님은 1989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불교문학포교원을 운영하며 몇 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혜관 스님은 이 가운데 쌓인 문학에 대한 열정이 문학관으로 열매를 맺게 됐다고 5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했다.

"〈불교문예〉 발행인을 맡으며 여러 자료에 대한 귀중함을 몸소 느끼고, 초간본 및 고서적과 희귀본 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근대문학과 일제강점기 때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는데, 월북작가 및 납북작가들의 책도 접하다보니 통일문학관 건립을 꿈꾸게 됐습니다."

5월 13일 착공한 통일불교문학관은 경기도 파주 탄현면 대동리 52-2에 위치한다. 건축면적 약 4,099㎡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다. 이곳은 혜관 스님이 20여 년 전 책을 보거나 글을 쓰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농가주택인데 통일불교문학관 불사에 대한 의지로 이번 착공식을 진행하게 됐다.

"이곳은 북한과 인접해 대북방송이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곤 합니다. 이념에 관한 작품을 읽으며 남북의 휴전선을 보니 통일문학관과 법당을 지어야겠단 마음을 먹게됐습니다."

지하 1층과 2층은 스님들 숙소 및 수장고로 활용된다. 또 1층은 문학관과 북카페, 2층은 통일기원법당이 들어선다. 문학관에는 근대 및 현대문학 희귀본과 〈묘법연화경〉 14세기 목판본, 백용성 스님 저술 〈한글화엄경〉,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유신론〉 등 불교문학서가 전시된다. 개관 후에는 문학관에서 문학강좌 · 세미나 · 시화전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층 평화기원법당은 북한을 향해 불단을 조성하고 벽면을 통유리로 장식, 탱화 대신 북한땅이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혜관 스님은 "평화기원법당에서는 취지에 맞는 법회를 열고 이산가족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실향민들을 위한 기도회도 열 것"이라며 "또한 인근에 위치한 한길 박물관 등 5개 박물관과 연계해 둘러볼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불교문학관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혜관 스님은 1976년 해남 대흥사에서 기산 스님을 은사로, 응기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이후 법주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개운사 주지 등 역임한 바 있다. 1918년 9월 만해 한용운 스님 주도로 창간됐던 월간 〈유심〉의 편집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계산 〈불교문예〉 발행인으로서 불교 문인 배출에 앞장서 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설법 · 토론, 현대 필요한 승가교육"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토론과 대중을 교화하는 설법은 현대의 승가에게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학인대회는 현대 승가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사진〉은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를 앞두고 5월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일련의 학인대회의 의미를 설파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은 학인 스님들의 전법 역량 강화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염불 · 외국어 스피치 · 토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인 대회를 개최했다. 학인 스님들의 재치와 뛰어난 능력들이 이들 대회를 통해 선보여졌고, 불교계 안팎으로 화제가 됐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1회 설법대회 역시 준비가 한창이다. 안거 중인 기본선원을 제외한 17개 종단 기본교육기관의 학인 39팀(사미 24명, 사미니 16명)이 출전한다.

진각 스님은 이번 대회에서도 신세대 학인 스님들이 상상 이상의 설법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유 주제로 8분 내에 설법을 시연하는 이번 대회에는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법', '법구와 음악을 활용한 설법', '2인 설법', '영어 설법' 등 기존 설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설법 방법들이 선보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인 스님들의 재치있는 설법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성민 기자**

"신행단체 대표, 대학행 법사로"

장상목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신임 회장



"이대로 가면 불교의 미래는 사라지고 맙니다. 젊은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특히 대학생 포교가 중요하기에, 부산지역 각 신행단체에 명예법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장상목 동아대 교수〈사진〉는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임을 밝혔다.

장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동선원 故혜월당 강만성 거사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해왔다. 〈불교보감〉 〈성불의 길잡이〉 〈금강반야바라밀경 강론〉 등 다수의 불교서적을 편찬 할 정도로 불심이 깊다. 3월 1일 취임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장 교수는 "적극적인 대학교 불교학생회 지원을 위해 각 신행단체 및 기관 대표를 명예법사로 초빙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교리를 설명하기 보다 인생 선배로 경험을 나누고, 멘토가 되고 싶다. 출재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끝으로 "정보화시대 신비주의와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보편성과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불교가 사회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한 · 미 불자들의 LA 佛音 공양



국제포교사회 연꽃향기합창단과 LA불교연합합창단은 5월 7일 LA고려사에서 연합합창 공연을 펼친데 이어 서래사 참배 등을 진행했다. 연합합창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정설화 씨와 11세의 김서현 어린이, 국제포교사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합창공연을 참관한 LA달마사 주지 정범 스님은 "연합합창단에게 지역 불교계를 대신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성정사 어르신 경로잔치 개최



서울 현성정사(주지 현성)는 5월 6일 현성정사에서 어르신 150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경로잔치에서는 음식공양과 함께 초청가수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현성 스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현성 스님은 5월 1일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 2000명을 대상으로 대중공양을 올린데 이어 8일에는 혜명양로원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열었다. **노덕현 기자**

생명문화축제서 부모은중경 시연



생명의 탄생과 삶, 죽음을 주제로 5월 18~21일 개최된 2017 성주생명문화축제에서 성주사암연합회가 '부모은중경' 인경 체험과 서각을 시연하는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불교경전이다.

성주사암연합회장 정도 스님(청매암 주지)은 "체험행사를 통해 잠시 잊고 있던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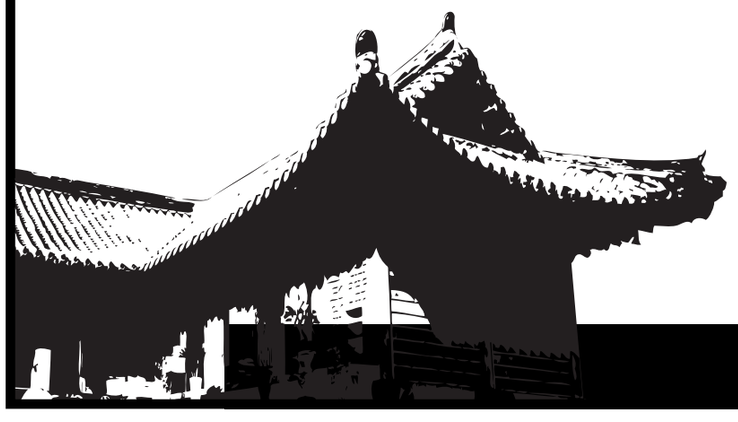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2013년 5월 경색된 남북관계 속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된 '한반도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걷기명상'이 5월 23일 200회를 맞이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사진 맨 앞)을 비롯한 승·재가자들이 200회차 걷기명상을 위해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고 있다.



참가자들이 '이윤과 성장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염원합니다' 등 각자의 염원이 담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걷기명상에는 대학생불교연합회, 붓다로살자, 조계사불교대학 주간반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와 이웃의 아픔 위해 걷는 200번째 걸음

200회차 맞이한 한반도생명평화 기원 걷기명상

2013년 5월 한반도 평화 기원 시작
불시넷·붓다로살자 등 단체 주축
매주 화요일 정오 조계사 인근 순례

200회 맞이해 승·재가 100여명 참석
"생명평화위해 계속 함께할 것" 다짐
도법 스님, 지속적 참여 관심 당부도

"내 이웃의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절망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고난을 품어 안을 진실된 용기가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아픔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윤과 성장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 생명이 우선인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세월호, 두 번째 기적을 꿈꾸는 참회와 서원의 기도 中

개인의 이익보단 사회의 평화를,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 200번째 발원의 소리가 5월 23일 조계사 경내를 가득 메웠다. 2013년 5월 경색된 남북관계 속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된 '한반도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걷기명상(이하 생명평화 걷기명상)'이 200회를 맞이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붓다로살자 등 불교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축이 돼 출발한 생명평화 걷기명상은 약 4년간 이어오며 시의에 따른 사회 현안을 주제로 삼았다. 철도 민영화로 철도파업이 발생한 당시엔 평화적 해결을, 남북교류가 단절된 당시엔 개성공단의 재개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땐 재발방지를 희망하며 조계사 주위를 걷고 또 걸었다. 매주 화요일 정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쉼 없이 사회 평화를 염원하는 묵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날은 200회를 맞은 만큼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과 교육국장 승묵 스님·포교차장 명경 스님을 비롯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붓다로살자, 조계사불교대학 주간반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을 헛되이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달라져야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아파했던 세월호, 그 마음을 기억하고 실천해요'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살겠습니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계사 일대를 한 바퀴 걸었다. 점심시간 조계사 주변을 산책하던 인근 직장인들은 자리에 잠시 멈춰 이들의 걸음과 피켓의 문구를 지켜봤다. 참가자들은 걷는 내내 묵언했지만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여느 시위 현장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참가자들이 조계사 인근을 걸은 후 소감 말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후 참가자들은 다시 조계사 앞마당에 모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조계사불교대학 주간반 학생 구자홍(61·남)씨는 "다신 이 땅에 세월호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 또 남북한이 함께 서로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평화공존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바란다"며 "이 땅의 비극적 슬픔과 서로의 원망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으로서 꾸준히 생명평화 걷기명상에 참여해왔다는 박사(48·여)씨는 "오늘까지 200번 걸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걸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생명평화를 위해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에 자비를 베풀며 살길 바란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 평화가 있길 간절히 바란다" "귀중한 생명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등 저마다 다짐과 소감을 말했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도 200회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했다. 원명 스님은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개의치 않고 많은 분들이 걷기명상에 함께하신 것은 개인의 소원이 아닌 민족과 이웃의 아픔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200회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염원한대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더욱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생명평화 걷기명상 첫 걸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하며 최근엔 4.16순례길도 참여하고 있는 도법 스님은 200회가 지난 후에도 계속될 걷기명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도법 스님은 "걷기명상은 종단이 추진 중인 신행혁신운동의 중요한 모습 중 하나다. 더욱 많은 사부대중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참가자가 오늘만큼 많길 바란다"며 "오늘 참석한 분들도 오늘의 고통을 희망의 발걸음으로 움직이겠단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지속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어린이청소년 포교행정 간소화 한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 23일 첫 회의서 자문기구화 결의

포교원서 이중행정 고충
산하기구 직접 지원 방침
신임위원 13명 위촉도



5월 23일 진행된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서 위원 스님들이 행정간소화 방침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나섰다. 그동안 예산 집행 등 사업의결권을 지닌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동련과 파라미타 등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 간소화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포교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원 제4기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가섭)는 5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산하에는 어린이 포교기구인 동련과 청소년 포교기구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있다. 산하기구는 사업시행 전 어청위와 협의하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때도 어청위를 거쳐 포교원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사무국 등의 문제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풍경소리 등도 동련과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거쳐 사업보조금을 신청한다.

그동안 포교원과 어청위는 포교사업 지원에 대해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이 낮은 것에 대해 고민해왔다. 포교부장이 당연직 어청위원장이며 전법팀이 사무국 기능을 맡아 이중 행정을 하고 있었다.

포교기구에서 어청위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청위 사무국이 없는 관계로 현재 포교원 내 전법팀에서 접수 및 회람을 한다. 이후 행정상 어청위인 전법팀이 보조금 신청 공문 작성 및 발송을 포교원에 접수하면 이를 다시 전법팀이 회람하여 기안을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어청위 기구변경을 결의하고 관련 종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다. 그동안 위원 스님들이 애정을 갖고 나서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복잡한 사안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일을 단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행정 변경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어청위는 4기 위원 13명을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장으로 포교부장 가섭 스님을 비롯해 오심 스님(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성행 스님(동련 이사장), 주경 스님(기획실장 · 파라미타 이사), 원경 스님(중앙종회위원), 성진 스님(파라미타 상임이사), 도제 스님(동련 이사), 정무 스님(동련 이사), 정법 스님(불레협 부회장), 일지 스님(인천불교회관 주지),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정현 스님(법룡사 주지), 재마 스님(중앙승가대연구원) 등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두 아이 홀로 키우며 파산면책까지 BUT 서울형MC로 나도 '대표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② 여의도 '개성보쌈' 여문희 대표



그림 · 박구원

*본인의 요청으로 삽화로 대체하였습니다.

2005년 신용회복과 2011년 파산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여문희(48) 씨. 여자 혼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서른 초반부터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양육하기만도 벅찬 수입이었다.

그러던 중 여 씨는 두 아이가 다니던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그때가 바로 여 씨가 일하던 식당을 인수해 '대표님'이 된 계기였다.

"32살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그 식당에서 일했어요. 일에 재미가 붙고 단골손님도 생기다보니 내 식당을 운영하고 싶단 욕심이 생겼죠. 하지만 저축은커녕 목돈 마련도 쉽지 않던 때라 창업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다 신길사회복지관의 추천으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알게 됐고, 그 덕분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식당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 씨는 2013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초창기엔 마음처럼 큰 수입을 내진 못했지만 밑반찬부터 주메뉴까지 여 씨가 직접 조리하며 정성껏 사업장을 운영한 끝에 가게 사정이 점차 나아졌다. 이에 따라 여 씨는 만기상환일인 2018년보다 2년 앞선 2013년, 대출금을 조기상환했다.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 씨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이때 조계종복지재단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여 씨에게 큰 도움이 됐다. 노후시설 개선을 원했던 여 씨에게 한 달에 한 번 파견됐던 경영컨설팅 전문가가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일러주며 고민이 해결된 것이다.

"저 혼자라면 어떤 아이템이 있어도 지엽적인 고민에 그칠 텐데 전문적으로 조언해주시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당시 주방시설, 인테리어가 많이 노후해 걱정이었는데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추가 대출금 2,000만원을 받아 가게 시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현재 월평균 1,600만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 매출을 올리고 싶다는 여 씨.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시작된 그녀의 작은 꿈이 훗날 "내가 받았던 도움만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원대한 목표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수장고서 빛 못본 '사리', 사찰로

6월 9일 조계사 국운융성 위한 사리친견법회 개최

國搏 소장 40과 이운

국가 소유의 사리가 불교계로 돌아온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9일 오전 11시 30분 '대한민국 국운융성을 위한 조계사 사리친견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서 공개되는 사리는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있던 것으로 모두 40과에 달한다.

조계사의 사리친견법회는 조계종 측과 정부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그동안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리에 대한 환수를 지속 추진해왔다. 대부분의 사리가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는 현실에서다.

2016년 5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3년간 국공립박물관에 있는 사리를 장기대여 방식으로 원소재지로 반환하기로 했으며 1차로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던 부여 무량사 설잠 스님 사리 1과, 경주 분황사 석탑 사리 4과,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사리 35과 등 총 40과를 1차로 반환하기로 했다.

사리친견법회에 앞서 오전 11시부터 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경복궁 정문을 거쳐 조계사까지 이운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취타대와 함께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다. 이어 대웅전 앞 친견대에 사리를 모신 뒤 범종, 법고, 고불문, 친견 등의 법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리친견법회 후 설잠 스님 부도 사리는 부여 무량사로, 분황사 석탑 사리는 경주 분황사로, 소재지가 밝혀지지 않은 사리 35과는 조계사에 봉안된다.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계종에 반환되는 사리는 총 129과에 달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총무부장)은 "그동안 폐사지서 출토된 사리와 출토지 미상의 사리 등 수많은 사리가 박물관 수장고에서 종교성이 상실된 채 보관돼 왔다"며 "사찰로 사리를 이운해 다시 예경의 대상으로 가치를 복원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이주민 한국전통문화기행 개최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 160명 대상으로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흥우)는 6월 11일 불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기행을 개최한다. 이번 한국전통문화기행은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 160명을 대상으로 하며 각 국가 공동체 별 10명씩 참가 가능하다.

한국전통문화기행은 봉은사에서의 입재식을 시작으로 사찰관람 후 남산서울타워, 남산골 한옥마을, 창덕궁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용산 가족공원에서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끝으로 해산된다.

국제포교사회는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정신에 입각해 타국에서 꿈과 희망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는 불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경력단절…하지만 희망 찾았죠!"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 창업 지원 교육 화제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가 꼼꼼한 창업지원 관리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가 5월 22일 사하구 센터에서 개최한 '디저트카페메뉴' 실습에서는 참가한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디저트카페메뉴' 실습은 2017년 개설된 강좌 중 하나로 3일 간 참가자들이 디저트 제작을 배우로 카페 창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원이 10명이지만 16명이 수업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인기였다.

참가자 김영안 씨는 "이곳에서 얻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의 정보, 쇼핑몰 운영방법 등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진이 창업 상담사는 "강의도 전문강사 보다 창업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를 초빙해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하여성창업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이 수탁운영하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센터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불기2561 단기4350년

윤달과 가정의 달을 맞아 성불하십시요



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

옴은 가난과 윤회의 고난에서 벗어나 안정의 상태를 가진다. 마니는 보석을 의미한다. 반메는 연꽃 지혜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옴마니반메훔은 지혜와 방편이다. 연꽃 속의 보석이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 이 시계를 착용한 자는 모든 팔난이 소멸될 것이다.

부처님의 의미는, 첫째는 지대한 관심과 둘째는 확신과 의욕이며 셋째는 성취의 깨달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부처님과 합일되면 자신과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옴 마니 반메 훔은 하늘과 인간 축생 아귀 모든 지옥문을 닫는다.

기(氣) 심령연구가 정음스님 www.kgf21.kr



남성용 여성용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불자님들께 성불하시라고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IPG 24K공법으로 완성된 케이스
- 세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 최상의 금도금 24각 커팅 베젤 스타일
- 최고급 사각보석 12개 문자판에 식입
- 최고급 JAPAN 무브먼트
- 3기압방수, 3ATM
- 최고급 보석 용두
- 문자판 내부에 부처님상 양각화
-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밴드

시계 점안식

날개당 판매가 138,000원

남녀세트 판매가 238,000원

(축원기도 해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문화 포교회

등록번호 : 017-05-01

추천 :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 제 6 호

만사형통 기원을 바란다면 기(氣) 에너지가 넘쳐야 만사형통이 찾아옵니다!

약력
- 대한불교정음사원 원장
- 불교조계종관음사주지
- 심령과학 영상학회 회장
- 한국 장례문화 연구원장
-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장
- 대체의학기(氣)연구소장 www.kgf21.kr
- 대한민국 37개 불교종단으로부터 심령학자 인증과 불교대체의학 연구상 수상

방송출연
- MBC 일요스페셜 '기 신비에서 과학으로'
- KBS 미스터리 추적 '영의 수수께끼 저주'
- KBS 미스터리 추적 '기 염력'
- KBS 놀라운 TV '기 염력'
- SBS 토요미스터리 '혼령이 있는곳'
- HBS 영혼과 대화 (귀신은 있다)
- HBS 숨어있는 의술명인 (난치병을 고친다)



정음 큰스님

가정과 개인 상담전화

(010-4142-0924)

호신불 달마 시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번창을 원하시는 분
- 가정에 평안을 발원하시는 분
- 육신에 병고가 찾아와 기운이 없으신 분
- 마음이 어지러워 꿈자리가 뒤숭숭 하신 분
- 수험생 자녀가 계신 분

상담문의 1588-4164

입금계좌 (농협) 351-0949-7000-63 예금주: 불교조계종관음사

無종교인이 '종교 냉담자'는 아니다

불교평론 열린논단… 무종교 시대 오는가

우혜란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이른바 '탈종교화 시대'다. 제도권 종교들은 신자 수 감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통계청 인구센서스에서 10년 전보다 약 30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에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5월 18일 개최한 열린 논단서 '무종교 시대는 오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우혜란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의 글의 일부를 정리해 싣는다. 정리=윤호섭 기자



우혜란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석사)와 독일 마부르그 필립스 대학교 종교학과(박사)를 졸업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동시대 종교현상으로서 유동적 종교(Fluid Religion)에 대한 논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종교현상' 'New Age in South Korea' '젠더화된 카리스마' '현 한국사회에서 합동천도재의 복합적 기능에 대하여' 등이 있고, 공저로 〈종교, 미디어, 감각〉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사회의 종교를 묻는다〉 〈Religion in Focus〉가 있다.

제도종교가 처한 위기

"종교가 없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자신을 표현하는 한국의 소위 '무종교인들(religious nones)'은 다양한 종교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조직에 속하지 않는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 중충적(multiple)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 소극주의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등.

이들의 공통점은 특정 종교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특정 종교 의례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조직 가입여부나 의례의 빈도수와 같은 단순 지표로 이들은 하나의 범주로 묶고, 이들을 비/반종교적이라고 쉽게 판단내리는 것은 인간의 복합적인 종교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와 한국의 조사결과는 이들의 상당수가 '종교적' 관심사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동시대인들은 종교의 권위적/위계질서적인 조직이나 절대적인 교리의 가르침을 벗어나 보다 개인적이고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삶을 영위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동시대 종교지형의 특징은 '종교인'과 '무/비종교인'으로 단순하게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쪽에 특정 제도종교에 속하고 충실하게 주어진 종교적 의무를 실천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제도종교는 물론이고 초자연적 세계관 일체를 거부하는 집단이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다양한 종교적인 색채의 개개인들로 구성된 거대한 중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가 사라지는 소위 '무종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사회적 형태와 개인의 종교성/영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성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무종교'라는 말은 작금에 흔히 회자되는 '무종교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보이며, 이는 실체를 결여한 공허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무종교'가 '종교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믿음, 신념과 같이 미래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이미 오랜 기간 관찰되었던 것과 같이 제도화된 종교는 무엇보다 급격한 신도 감소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다시 말해, '종교'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제도종교는 적어도 서구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이 점점 더 비제도화된 종교성, 즉 제도종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종교성/영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 종교'로 나아가려는 불교

현 한국의 불교계는 2016년 말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하나로 종교인구 집계결과를 발표하면서 큰 충격에 빠진 것 같다. 그것은 최대의 신자 수를 자랑하던 불교계가 불교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해 10년 전 1058만8000명에서 7.3% 줄어든 761만9000명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충격을 보탠 것은 개신교인이 10년 전보다 1.5% 증가해 967만6000명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종교집단이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불교인구는 처음으로 개신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종교집단이 되었다.

이에 반해 '종교없음' 인구는 2005년 전체 인구의 47.1%에서 2015년 56.1%인 2749만9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종교있음' 인구를 추월했다. 한국 불교계는 불교신자의 수와 '종교없음' 인구 내지 '무종교인'의 수를 부정적인 상관관계로 보는 듯하다. 즉 이탈한 불교신자들의 상당 부분이 '무종교인' 인구로 흡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경험적 조사는 없으나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불교계는 이러한 집계결과가 나오게 된 통계청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사회에서 종교인구와 불교인구의 빠른 감소, 즉 한국사회의 '탈종교'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광범위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동시대 한국 불교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한국 불교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그 외연을 넓혀왔던 것을 고려하면 언뜻 모순처럼 보인다. 대표적인 예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템플스테이로 2002년 FIFA 월드컵 때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2016년에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이 120곳으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정체기를 맞고 있지만) 이러한 템플스테이의 확산에는 정부가 국내외 관광 활성화와 문화자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템플스테이를 문화관광상품으로 높이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지속적인 국고지원을 한 것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선묵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사찰이 주관하는 크고 작은 (명상)수련 모임 등이 있다.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이러한 전통종교의 변화는 제도종교가 자신의 경계 짓기 내지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열린 종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해당 종교가 대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보다 넓은 층의 '잠재적' 신도/고객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개인 종교성 재구성될 뿐
무종교 시대 되진 않았다
불교인구 확대 위해서는
경직된 공동체 변화 필요

여기서 '열린 종교'와 관련하여 현재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인 '마음치유' 사업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계는 불교신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마음치유와 상담을 위해 전통적인 불교명상에 서구의 심리치료요법이나 상담기법을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 불교계가 서구에서 개발된 불교의 명상기법과 심리치료요법을 결합한 '마음챙김(Mindfulness)'이 서구사회에서 명상 센터는 물론이고 심리치료/상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에 크게 고무된 것도 한 몫을 한다.

"불교상담은 머지않아 불교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며, 불교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가 한국불교 미래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의 2014년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근래 한국 불교계가 '마음치유'와 '상담'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단지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중을 치유한다는 목적을 넘어, 선교 내지 포교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사회에서 현재 커다란 수요가 존재하는 '마음힐링' 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량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한국 불교계는 마음치유와 상담을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이면서 2000년부터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즉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효과적 적용/보급 그리고 지도/상담인력의 양성과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다수의 교육기관, 연구소, 학회 등이 설립된 것이다.

불교, 선택의 기로에 서다

윤승용은 불교평론의 다른 지면에서 "불교는 승려 중심의 사회·문화적 종교이자 세속과의 경계(境界)의식이 별로 없는 공동체 종교이다. 하여 신앙의 정체성이나 조직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외부의 환경변화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교리나 신앙의 유연한 해석 그리고 대사회적 경계를 낮춤으로써 한국 불교가 위에서 언급한 거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로써 해당 종교는 자신의 영향력을 고유의 종교영역을 넘어 사회 주변으로 보다 용이하게 전이 내지 확산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내부의 조직과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광범위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종교는 대사회적 경계를 낮춤으로써 자신의 문화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바로 그 같은 이유로 강하게 결속된 신도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템플스테이와 같이 일반에게 널리 확산된,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가 자신의 신도를 빠르게 잃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한국 불교계는 템플스테이나 '마음치유'와 같은 프로그램을 정체된 교세를 회복시켜 줄 하나의 현대적 포교방법으로 간주하여 이를 통해 잠재적 불교신자를 확보하고자 하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일종의 소비자이며 구매자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들은 자신의 필요성과 시간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대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언제나 필요에 따라 여러 불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다면, 이들이 굳이 위계질서로 엮인 권위적인 불교공동체의 일원이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국 불교의 모순이 극명하게 들어난다. 즉 한국 불교는 대사회적인 경계는 매우 낮아 경계의 주변 영역에서는 자유로운 이동과 상대적으로 평등적 관계가 가능하나, 내부로 들어오면 (남성)성직자 중심의 매우 권위적이고 경직된 수행공동체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일련의 선행 조사연구가 보여주듯이 종교인구 조사에서 '종교없음' 내지 '무종교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모두 종교 냉담자들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의 상당 부분은 종교적 성향/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적 자원'으로, 불교인구로 흡수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는 부도덕하거나 권위적인 성직자 혹은 경직된 종교조직 때문에 종교를 이탈하였거나, 아예 처음부터 종교조직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로서, 현 한국불교의 경직된 수행공동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들을 신도로 확보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불교는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계속 외연을 확장하여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영향력 있는 종교문화로서 그 존재가치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재가신도들이 자신의 역량과 역할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써 불교 수행공동체를 개혁하여 지속적인 신도의 유입을 유도할 것인지.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길을 동시에 가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쉽지 않으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원담 진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참 나를 찾는 90일간의 여정

불기 2561(2017)년
재가(在家) 하안거 수행결사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되시길 발원합니다.

■ 수행기간 **불기 2561(2017)년 6월 9일(금) ~ 9월 5일(화)**
■ 대 상 안거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신도
■ 방 법
- 부처님의 제자임을 자각하는 [삼귀의]
- 나와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 [수행서원문 염송]
-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1일 1선행]
- 대중의 역량에 맞추어 수행하는 [선택수행]

■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051)501-7554

■ 하안거 입재식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6월 7일(수) 오후 2시**
▷ 장 소 : 범어사 설법전
▷ 법 문 : 경선 큰스님(범어사 주지)
※ 90일 수행이력 성취시 안거증이 수여됩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극락 보고 싶다면 스스로 觀하라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④ 위데휘 부인 극락 체험기 ㊦

"부처님! 제가 과거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사악한 아들을 두게 되었나요?"

아사세 태자는 아버지를 폭력으로 제압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굶겨 죽이려합니다. 게다가 아버지 역성을 든다며, 어머니(위데휘 부인)를 지하 골방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극락의 풍경이 상세하게 기술된 〈관무량수경〉의 서두는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로 시작됩니다. 옛 인도 마가다국 왕사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성을 잃고 날뛰는 아들이 빼든 시퍼런 칼에 자칫 죽을 뻔한 위데휘 부인. 깜깜한 골방에 갇힌 그녀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자 떠받들어주던 시녀와 신하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일제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번뇌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어째서 우리 가족은 갈가리 찢어져야 하는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내게 이럴 수 있나' 깊은 골방에 속절없이 갇힌 부인은 어둠 속에 쓰러져 절규합니다.

도대체 극락은 어디 있나

그리고 부인은 "더 이상 이 혼탁하고 사나운 세상에서는 아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럽고 악한 이 세상, 지옥과 아귀와 축생이 가득하고 못된 무리들이 득실거립니다"라며, '아예 죽고 싶다' 고 부처님께 호소합니다. 부인은 지체 높은 왕후의 몸.

하지만, 가족 간에 저질러진 패륜 앞에서 위엄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속절없이 괴로워합니다. 부인의 간절한 청에 마침내 부처님이 나타나자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끊어 버리고 바닥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엎드린 채로 울부짖습니다. 도저히 이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 지금 당장 '극락을 보여 달라' 라고 종용합니다.

"저는 지금 부처님 앞에서 오체투지하며 참회하고 구원을 빕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오니, 부처님께서는 제게 청정한 업(淸淨業)으로 이루어진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極樂世界)를 보여 주십시오. 바라옵건대 그곳에 태어나기 위한 마음가짐(思惟)과 바른 수행법(正受)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견치 못했던 운명의 장난,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 라고 합니다. 현생에서 당최 크게 잘못한 일 없었던 위데휘 부인은 순간 억울한 분심과 함께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전생의 일은 알 수 없기에 먼저 오체투지하며 참회를 구합니다.

이 같은 기막힌 운명이 닥쳤을 때, 스님들께 해법을 여쭈면, 이구동성 먼저 참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난데없이 당한 것도 마냥 억울한 마당에, 대체 무얼 잘못했다고 거기다 참회까지 하라니! 여차하면 제 잘못 없다고 고소와 소송이 난무하는 요즘 세태에 이해가 안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참회라는 방법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서 마음을 모아라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참회하고 수행 방법을 구하는 부인의 모습에서 불자(佛者)로서의 기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범부라서 마음이 약하고 생각이 못미처서 천안(天眼)의 지혜를 없기에 부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방편이 있어 너에게 이를 보게 하리라"라고 하며 부처님을 극락의 풍경을 하나하나 열어 보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인을 '범부' 라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중생을 이르는 말입니다. 범부란, "교만하고 게을러서 아견(我見)만으로 전부를 헤아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아는 것이 적고 오욕에 빠져있으면서도 자신의 식견만이 옳다고 하는 어리석은 상태인데, 대부분의 중생들이 예외없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통칭하여 범부라고 합니다.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아미타 부처님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는 마땅히 마음을 오롯하게 모아(繫念) 청정한 업으로 만들어진 저 세계를 명료히 관하라(諦觀). 내가 그대를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하겠다. 그리고 미래 세상의

아버지 · 어머니 가두고 핍박한
희대의 패륜아 아사세 태자

절망에 고통받던 위데휘 부인
"극락을 보여달라" 청원하자
"참회 통해 자신보라"는 화답만

일체 범부 중에 청정한 업(淨業)을 닦으려는 자들 역시 서방극락정토에 태어나도록 할 것이다.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3복(三福)을 닦아야 한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연장자를 공경하고 자비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열가지 선(十善)을 닦는다.〈세속의 선업〉 둘째,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하고 여러 가지 계(戒)를 지키고 위의를 범하지 않고 자신을 삼가는 것이다.〈계를 지키는 선업〉 셋째, 보리심을 발하고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고 다른 이에게도 권하는 것이다.〈수행하는 선업〉"

–〈관무량수경〉中

부처님은 부인에게 극락은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마음을 모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설법하신 정토의 풍경을 시각화하면서 '관(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청정한 세 가지 복(三福)을 닦는다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경전의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 도입부 '경을 설하게 된 인연' 에서,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체험하는 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극락의 전각 모습.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 의 부분. 1323년 작품으로 고려 왕실 정업원이 발원해 조성됐다.

'관무량수경' 의 의미와 뜻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량수(無量壽)' 를 '관(觀)' 하는 내용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무량수' 란 '아미타' 를 말합니다. '아미타' 라는 용어는 아미타바(Amitābha)와 아미타유스(Amitāyus)에서 유래합니다.

아미타바는 '무량한 빛' 이란 뜻으로 '무량광(無量光)으로 번역되고, 아미타유스는 '무량한 수명' 이란 뜻으로 '무량수(無量壽)로 번역됩니다. 그러니 아미타는 삼라만상의 바탕이자 삼라만상의 작용을 한 몸에 품은 불성(佛性)을 가르킵니다.

이 같은 불성의 성품은 바로 '지혜와 자비' 입니다. 그렇기에 아미타 부처님은 좌우의 협시보살로서, '지혜' 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 과 '자비' 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 을 두고 계십니다. '아미타불-대세지보살-관세음보살' 의 '아미타 삼존' 은 삼위일체로서 불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불성을 '관(觀)' 하는 방법과 그 모습이 비유적으로 설명된 것이 〈관무량수경〉의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관(觀)' 이라는 한 자(字)가, 불교수행법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불자들이 애송하는 '관세음(觀世音)보살' 또는 '관자재(觀自在)보살' 도 '세음(世音)을 관(觀)하다' , '자재(自在)함을 관(觀)하다' 의 뜻입니다. 관(觀)은 '고요한 마음(定心)에 머물러 대상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 이라고 정의됩니다. 관(觀)은 '위빠사나(Vipaśyanā)를 번역한 것으로, 현상을 상세히 관찰하여 그 본질을 통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어떤 대상이든 그 본질은 무상(無常)과 연기(緣起)입니다.

'관' 하는 것을 쉬운말로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반야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팔리어 빤야(paññā,반야)로서, '통찰지 · 혜(慧) · 아는 마음 · 명지(明智)' 등으로 번역됩니다. 선가에서는 이를 '아는 놈' 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관을 하고 있을 때, 알아차리고 있을 때 현상의 본질이 드러나고 궁극의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 의 극락왕생한 여인의 모습.

토막 불교상식

부처님 몸은 왜 황금색일까?

총 16관으로 구성되는 극락의 관법 중에, 하이라이트는 아미타부처님의 모습을 목전에 관하는 '진신관(眞身觀)' 이다. 극락의 풍경을 단계로 보다가 드디어 아마타부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진신관' 의 광경은, 〈관경16관변상도〉 화폭 가운데에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묘사된다. 아미타 부처님의 몸체에서는 찬란한 빛이 나오고 무수한 화불(化佛)이 뿜어져 나온다.

경전에 묘사된 진신관의 내용을 보면, "아미타불의 몸과 빛을 관(觀)하여라. 몸은 백천만 억 야마천을 장식한 염부단금색(閻浮檀金色) 또는 자마금색(紫磨金色)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키는 60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니라"라고 기술되었다. 조형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처님 육신의 색깔은 반드시 황금색이다.

많은 불교 경전에서는 염부단금색 또는 자마금색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부처님의 몸은 어째서 황금색인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자마금 또는 자마황금은 염부단금과 같은 말이다.

자마금은 신비로운 자색(紫色) 빛이 도는 가장 고귀한 황금이다. 인도 염부수 숲 속을 흐르는 강바닥에서 채취되는 사금으로 총 9급의 황금 중 최상품질의 금을 말한다. 사실 법계의 형상들은 지상에 그에 대비될 만한 것들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편으로서 표현을 해야 하기에, 지상에서 가장 상서롭고도 고귀한 물질의 빛깔로, 부처님의 몸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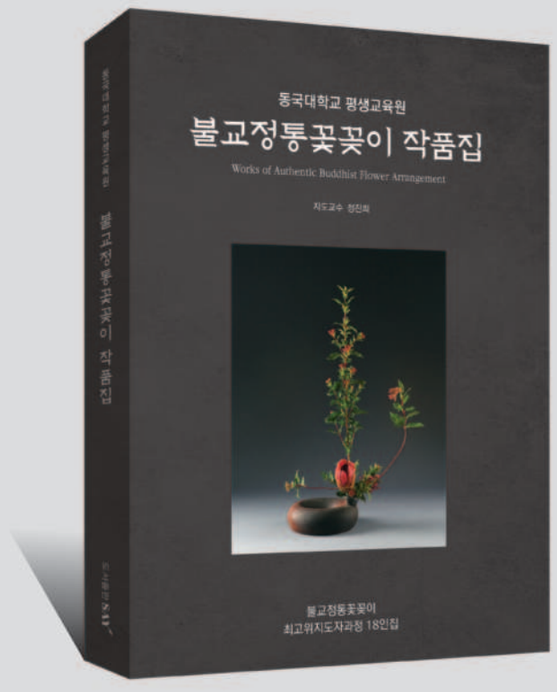
법당장엄일체
수미단 닫집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동국대학교 불교정통꽃꽂이 최고위지도자과정 18인집
불교정통꽃꽂이 작품집
지도교수 정진희



사찰꽃꽂이를 하는 분들의
필독서!

- 법당꽃꽂이 80작품
- 영단꽃꽂이 20작품
- 관욕단꽃꽂이 12작품
- 선화(禪花) 12작품
  〈선방·승방꽃꽂이〉
- 가격 50,000원

구입처 010-2720-9164
010-2002-2927

원주 법천사지탑 등 문화재 보존 현장 공개

문화재청, 6월 14~16일

문화재 보존 · 수리 현장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이동식)는 올해 1차 '生生 보존처리 Day'를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개최한다.

보존 처리 현장이 공개되는 문화재는 지난해 3월 전면 해체 후 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 중인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비롯해 보물 제597호 토기 융기문 발, 등록문화재 제607호 서재필 진료가운 등이다. 문화재 조사와 복원과정에 활용되는 CT(컴퓨터단층촬영), 적외선 조사 등 보존처리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체험 신청은 오는 6월 9일까지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누리집(www.conservati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conservation@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1일 50명씩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042)860-9379 신성민 기자

건칠불 佛頭서 고려 은니사경 발견

불교문화재硏, 실상사 건칠불상 3D-CT통해 확인

남원 실상사 건칠불상 조사과정서 은(銀)으로 사경된 고려시대 대반야경이 발견됐다. 특히 이번 발견은 비파괴 기법인 3D-CT 촬영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문화재 조사 방법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조계종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는 "실상사 극락전 건칠불좌상과 보광전 건칠보살입상의 제작기법과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D-CT 촬영을 실시했으며, 불상 머리 안에서 뽕나무로 만든 종이에 은가루로 사경한 고려시대 〈상지은니대반야바라밀다경(桑紙銀泥大般若波羅密多經)〉을 발견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포항 성모병원의 협조로 지난해 남원 실상사 건칠불상과 건칠보살상에 대해 3D-CT촬영을 실시했다. 조사 도중 건칠불상의 머리 안에서 고려시대에 조성된 〈대반야바라밀다경〉 1첩을 발견했다. 이 불상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X-선 조사를 통해 머리 복장물을 확인했지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어 의문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번 3D-CT 촬영을 통해 접힌 책에 금속성 물질로 쓴 글자들이 겹쳐 있는 것이 관찰되어, 금니 또는 은니로 쓰인 경전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결국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실상사는 접

3D-CT 촬영 국내선 첫 시도
불두서 은니대반야경 발견해
이장제와 妻, 시주자로 기록

절첩형 대반야경 국내 4점뿐
국가지정문화재 가치 충분해

힌 채 오랜 기간 불상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염려돼 유물 수습을 진행했다.

실상사 건칠불상의 불복장에서 수습된 사경은 상지에 은니로 쓴 〈상지은니대반야바라밀다경〉이며, 전체 600권 중



남원 실상사 극락전 건칠불좌상(사진 왼쪽)에 대한 3D-CT 촬영을 진행한 결과 불상의 머리에서 고려시대 은니 대반야경이 발견됐다.(사진 오른쪽)

권제396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 경전의 권말제 다음에는 이장계(李長桂)와 그의 처 이씨(李氏)가 선친의 명복과 집안의 재액을 물리치기 위해 시주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 시기가 고려시대 사경임이 밝혀졌다.

상지에 〈대반야경〉을 은니로 사경해 절첩장 형태로 장황한 경전은 현재 국내에는 4점만 남아 있어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이중 실상사 사경과 가장 유사한 것은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에서 수습한 3첩으로 현재 보물(959호)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사경을 감정한 송일기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국가지정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이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비파괴 기법을 활용한 문화재 조사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03년부터 문화재에 대한 비파괴 광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원 실상사의 건칠불상과 건칠보살상에 대한 3D-CT촬영은 국내서는 처음 시도된 사례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개금으로 변형되어진 불상을 표면의 개금층을 제거하지 않고, 비파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이용해 원형을 찾아내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실제 조사 결과, 금박층 아래에서 제작 당시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상이 동일한 양식으로 조성된 삼존불상임이 추가로 밝혀졌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제작기법과 보존방안을 연구할 때 표면의 정보만으로 적절한 해답을 이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의료계에서 사용하던 3D-CT를 문화재 조사에 활용했다"면서 "3D-CT는 수리 또는 복원 작업 이전에 문화재의 원형과 보존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범위나 복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실상사 건칠불상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 박물관 문화재 지킴이 자원봉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송은석)은 5월 20일 경주 분황사,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일원에서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인 '문화재 다솜활동'을 펼쳤다.

문화재 다솜(고유어: 애틋한 사랑) 활동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재 정화 활동을 하는 재능 나눔 봉사 활동으로, 봉사 신청을 한 경주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함께 문화재 주변을 돌보며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 다솜활동은 경주여고, 선덕여고, 경주고, 신라고, 경주공업고등학교, 경주여중, 문화중, 경주 관내 학생들과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국사학과,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경영학부, 국어국문학과, 불교학부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유적에 대한 교육과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으로 진행됐다.

송은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은 "신라의 고대 사찰, 남산의 유적, 경주의 유교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통해 즐겁고 보람찬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법화 · 관음신앙, 올바른 이해 정착되길"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
법화요의 등 주석서 편역



법화 · 관음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고전 주석서가 편역 · 출간됐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법화 · 관음 신앙의 요지를 담은 〈역주법화유의〉와 〈관세음보살 보문품 문구 · 기 · 송〉을 발간했다.

〈역주법화유의〉는 중국 삼론학의 완성자인 길장(549~623))의 만년 저작으로, 그가 사상적으로 가장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저술됐다. 길장의 〈법화유의〉가 역주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책은 1장 개관 부분인 '법화유의의 성립과 전개 배경' 소논문이 함께 게재해 주석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소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에서 수학한 남륜스님이 썼다.

차 교수는 " 길장의 법화사상은 천태지의 스님에게도 영향을 줬다"며 "법화경에 대한 길장의 시각은 물론 천태학설과의 유관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화유의〉가 한국 불교계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특히 한국의 법화계열 교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간구한다"며 "법화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될 때, 교단 또한 발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품고 밝고 희망찬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차 교수가 함께 내놓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문구 · 기 · 송〉은 천태학의 종조인 천태 지의와 그를 계승한 형계 담연, 자운 준식 등의 주석을 모아 놓은 책이다.

관음신앙은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졌다. 관음신앙은 대승불교의 보살신앙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폭넓게 유포된 대중적인 신앙이다. 〈법화경〉 제25품인 '관세음보살보문품'이 〈관음경〉이라 불리며, 독립된 경전의 위상을 갖고 관음신앙의 토대가 되어온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자운 준식이 고려 의통 보운의 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불교와도 인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역주 주석서는 관음보살이란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 분의 각기 다른 견해를 보기 좋게 묶었다는 점에서 관음신앙의 총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차 교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문구 · 기 · 송〉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대상으로서의 관음보살을 철학적, 수행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불자들이 관음신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성 용주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19일 공고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던 사찰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이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화성 용주사는 추존왕 장조(사도세자)의 묘소인 융릉(隆陵)로 쓰였던 곳으로, 제사 물자를 준비하기 위한 조포사(造泡寺) 역할을 했다.

1790년 2월 19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 15일 상량, 9월 29일에 불상이 봉안되었는데, 왕실이 공사를 발주하고 관청이 재원을 조달하는 등 건립 계획부터 공사감독까지 일관되게 국가가 주도한 관영공사였다.

용주사는 중심영역인 삼문, 천보루(天保樓), 대웅보전을 가운데 일렬로 두고, 승당과 선당, 좌우 익랑(翼廊)은 똑같은 규모의 동일한 형태로 마주 보고 대칭되게 배치했다. 이 같은 배치와 공간구성은 창건 당시 모습을 대체로 잘 유지하고 있어, 조선 후기 능침사찰의 배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웅보전은 용주사의 주불전으로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지만, 외부 단청을 제외하고는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의 건물로 18세기 불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화성 용주사 대웅전의 모습.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제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5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람사는 이야기에는

예전엔 영화를 보며 자주 울었다. 요즘은 자주는 아니지만 텔레비젼을 지켜보며 손수건이 젖을 만큼 눈물샘이 열린다. 세상 살아가는 고되고 팍팍한 줄거리에서 가슴 뭉클한, 따뜻한 화면이 나오면 눈물샘이 터진다.

오해와 미움보다는 이해와 격려로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꽃으로 피는 것이다. 따스한 마음의 나누는 정(情)이 있으면 살맛나는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러나 짝을 이루면 틈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오해와 미움으로 강(江)을 만든다. 대화는 줄어들어 단절에 이르고 이해는 결핍되어 불만과 권태를 키운다.

둘이 있어도 혼자만의 자유를 그리워하고 혼자 있어도 여럿이 되어 생각의 윤회를 멈추지 못한다. 욕구는 그 둘레를 더욱 넓혀가고 만족은 타는 가뭄으로 새싹의 키움을 졸아들게 한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구원의 손길은 아득하고 시린 마음에 감겨오는 허무의 그림자가 길다.

이고 사랑의 확인에도 지폐놀이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된지 오래이다. 그러다보니 가난은 이제 불편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죄(罪)가 되어 생활반경을 졸아들게 하고 있다.

출가수행자가 너무 세속화된 잣대로 톱질을 즐기고 있다할지 모르나 종교계의 순수한 신앙에도 현찰거래의 흥정거래가 그 둘레를 넓혀가는 참혹한 현실이다. 에리히 프롬은 '존재냐? 소유냐'를 묻고 있지만 세간과 출세간이 소유 쪽으로 기울고 있는 난센스의 희극이 계속 이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상 살아가는 게 참으로 뭐 별게 아닌데도 아등바등 현실과 타협하며 고되고 팍팍하게 삶의 지느러미를 햇볕에 드러낸 채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이 부지수로 널려있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외롭고 병든 자, 어둠속의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아웃사이더의 이들에게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재충전해 새출발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필요하다. 집처럼 편안한, 가족처럼 따뜻한 형제자매의 군불지피는 이해와 격려의 도움의 빛줄기가 필요하다. 눈높이를 교정해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고뇌하는 현대인
불교가 이해·격려의 공간 만들어야

목마름을 가시게 할 생명수는 신기루처럼 아지랑이처럼 실체도 없이 사라진다. 마음 다잡고 생활을 줄여 절약하여 모은 재산은 한 순간에 터지고 몰려오는 생활의 파편에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이다. 들어오는 수입 조건이 수도꼭지라면 나가는 지출 물량이 소방호스 격이라 허탈감만 몰려온다. 이웃집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입맛을 잃게 하고 절망의 어둠이 마른버짐처럼 퍼져나간다.

글쎄, 동창모임, 친족모임에도 몇 차례 이 구실 저 핑계를 앞세우며 빠지고 있지만 뽄대내며 으스대며 솔찬한 음식값도 모조리 계산하고 싶다. 흰 봉투에 현찰을 두둑이 담아 기분 좋게 내밀며 가슴 펴고 살고 싶다. 부모님께도 아내와 남편, 아이들에게도 따끈따끈한 덕담을 담아 현찰이든 봉투를 내밀고 싶다.

마음 담긴 칭찬도 애어보시(愛語布施)겠지만 그래도 왠지 가슴이 썰렁하다. 현찰이 따르지 못하는 칭찬에는 기가 죽는다. 인간성의 능력에는 지폐의 두께가 으뜸으로 자리메김한지 오래

마음의 온도차를 조정하며 힘이 되고 꿈과 희망의 불씨를 키워주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의 종교인 불교 쪽에서 나설 때이다. 사람의 종교인 사찰 쪽에서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열린 자세,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맞이할 일이다.

신앙을 흥정으로 거래하는 부끄러운 문화에서 아무나 누구나 언제든 찾아와 가슴 속 멍울이 풀릴 수 있게,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게, 절망적 타는 목마름에서 희망의 군불을 지필 수 있게, 사찰은 언제든 열려 있어야한다.

승려는 누구든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하게 주고받는 대화 문화를 펼쳐 가야한다. 법당의 목탁은 누구나 염불을 하며 울릴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신앙이 영험설화를 앞세우며 신비주의로 치닫는다면 이는 미래가 없는 죽은 신앙일 뿐이다.

언젠가 TV 화면에서 어느 스님의 자비실천의 훈훈한 모습이 담겨 눈물샘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 사람 사는 이야기에는 부처님의 참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經床을 휘젓고 내려오다
〈경상〉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부대사(傅大士:597~569)는 남조(南朝) 양(梁)나라 때 사람이다. 스님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도사(道士)처럼 때로는 유자(儒者)처럼 행색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설법할 때 자신이 도솔천 미륵궁으로부터 와서 법을 설한다고 말했으니 본색은 불교인물이다. 이름은 흡(翕)이였으며, 호(號)가 여러 가지였다. 선혜(善慧), 동양(東陽), 쌍림(雙林), 어행(魚行), 오상(烏傷)이었으며, 또 다른 이름에 부홍(傅弘)이 있다. 지공(誌公:寶誌)와 더불어 양대(梁代)의 이대사(二大士)라 일컬어진다.

어렸을 적에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물고기를 대나무 삼태기에 담아 깊은 물속에 넣어 놓고 "떠나고 싶은 놈은 떠나고 머물고 싶은 놈은 남아 있어라.(欲去者去 欲止者留)"라고 말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보라고 여겼다. 24세 때 기수(沂水)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인도에서 온 숭두타(嵩頭陀:達磨)를 만나 고기잡이 도구를 버리고 송산(松山)의 쌍도수(雙 樹) 밑에 암자를 짓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좌선을 하며 지냈다. 7년 동안 고행정진 끝에 스스로 수능엄정(首楞嚴定)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534년 양 무제(武帝)에게 상·중·하의 삼선(三善)의 정책에 대한 편지를 써 보냈다. 그리고 그 해 무제의 초청으로 궁궐에 들어가 중운전(重雲殿)에서 경전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먼저 와 앉아있던 대중들이 무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났지만 부대사는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대소 신료들이 무례하다고 비난하자 부대사는 "법의 기반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이 불안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번은 역시 무제의 청으로 궁중에서 〈금강경〉을 강의하게 되었다. 그는 법좌에 올라가 경전이 놓여 있는 경상을 강척(講尺)으로 휘둘러 때리고 내려왔다. 무제가 어리둥절 하자 마침 참석해 있던 지공(志公)이 무제에게 물었다.

"폐하!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대사의 강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일로 부대사의 '휘척강경(揮尺講經)'이라는 말이 생기고 이것이 또 하나의 공안이 되었다. 후대의 선사(禪師)들이 이 '휘척강경'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게송을 읊었다.

설두중현 선사는 이렇게 읊었다.

"쌍림을 향해 이 몸을 의탁하지 않고 도리어 양나라 땅에서 먼지를 일으켰구나. 당시 지공 노인이 아니었다면 또한 (달마처럼) 쓸쓸히 나라를 떠나는 사람 되었으리라."

〈선문염송〉에는 정각일(正覺逸)의 게송이 나온다.

"쌍림에서 먼 곳으로 떠난 데는 사연이 있었으니 금릉의 밝은 임금(무제)이 사모했기 때문이라네. 훌륭하구나. 높은 법상에 올라가 앉는 순간 일격에 삼천대천세계를 포용한 경전을 한 먼지 속에서 꺼냈도다."

백운수단(白雲守端)은 또 이렇게 읊었다.

"부대사가 언제 경전을 강의할 줄 알았던가? 지공의 방편이 있었기에 그나마 성립되었네. 경상을 한 번 휘저어 취할 것이 전혀 없자 양무제의 눈동자를 부릅뜨게 만들었다네.

여러 문헌을 통해 보면 부대사는 양무제를 여러 차례 만난 것 같다. '휘척강경' 외에도 수광전(壽光殿)에서 무제와 더불어 진제(眞諦)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고 게송을 지어 왕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중년에는 쌍림사(雙林寺)를 짓고 그곳에서 경·율 천여 권을 서사(書寫)했으며 무차대회를 열기도 했다. 548년 부대사는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자신은 등신불이 되고자 했다. 그러자 19명의 제자들이 간곡히 만류하면서 자신들이 대신 분신하겠다고 나서자 어쩔 수 없이 관두었다. 대장경 독송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윤장대(輪藏臺)를 만든 것도 부대사로부터 시작되었다. 569년 세수 73세로 제자들을 불러 놓고 가부좌를 한 채 입적하였다. 후세에 그를 미륵하생이라고 불렀다. 〈심왕명〉, 〈환원시〉(還源詩), 〈선혜대사어록〉, 〈금강경찬〉 등이 남아 전한다.

분별망념 여읜 마음이 바로 '장엄'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㉑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의미

佛告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昔在燃燈佛所 於法有所得不. 不也 世尊.如來在燃燈佛所 於法 實無所得. 須菩提 於意云何. 菩薩莊嚴佛土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卽非莊嚴 是名莊嚴.是故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 是

生淸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應無所住 而生其心 須菩提

譬如有人 身如須彌山王 於意云何. 是身爲大不. 須菩提言. 甚大 世尊 何以故 佛說非身 是名大身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법을 얻은바가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법도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이 나느니라. 마땅히 물질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날 것이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나며 마땅히 머물지 않으면 이 마음이 날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큰 수미산만 하다면 네 생각에 어떠하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아주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부처님의 말씀은 몸이 아니며 이름이 큰 몸이기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어떤 법을 얻은바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수보리 존자는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어떤 법도 얻으신 바가 없사옵니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법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무상정등정각입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아'는 없다(無)는 뜻이고, '뇩다라'는 위(上)라는 뜻으로 위가 없으니 아래도 없습니다. 위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아래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는 스스로 없지 못하고 아래가 없을 때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상, 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좌(左), 우(右)도 역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 하가 없으니 좌, 우도 없으므로 일체의 분별 대립이 없다는 뜻이며, '삼'은 바르다(正)라는 뜻으로 분별망념을 여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다는 뜻이며, '먁'은 두루하다, 평등하다(等)는 뜻으로, 상하와 좌우가 없고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일체가 두루 하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이 마음을 '보리' 또는 깨달음(覺)이라고 합니다.

상하, 좌우가 없어서 바르고 평등하여 차별과 분별이 없어서 티끌 하나라도 얻을 수 없는 법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입니다. 그러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과 분별을 얻음이 없는 것이 참된 얻음입니다. 불토(佛土)란 무엇인가? 불토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있음과 없음, 화려함과 초라함, 깨끗함과 더러움,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마음을 장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장엄을 한다 장엄을 하지 않는다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엄이 아니고 장엄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엄이라는 이름은 마음의 다른 이름 즉 별칭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이 나느니라."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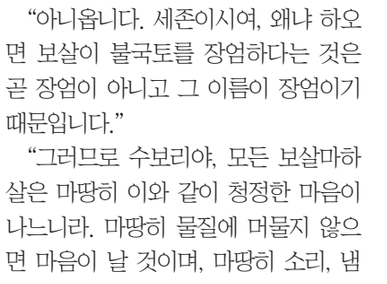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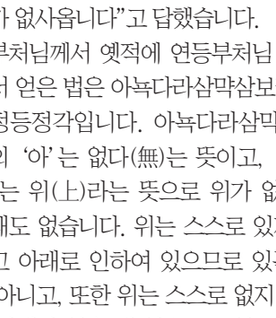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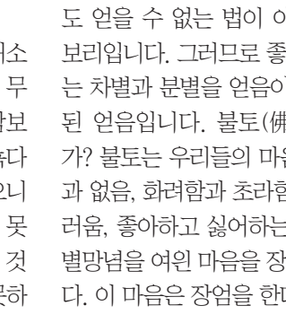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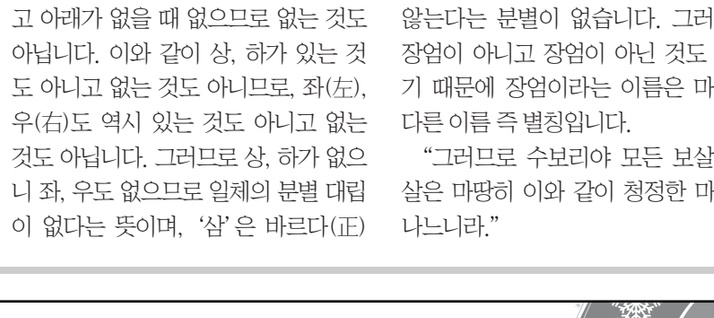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6월 부산에 부는 '호국불교' 바람

부산 및 경남 불교계, 호국영령 추모 행사 잇달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계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 위령재 및 나라사랑 호국음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진여원에서 봉행한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호훈가족 위안행사 모습.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안보 사상을 고취할 뿐 아니라 호국 영령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린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19년 동안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열고 보훈가족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15일도 진여원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 북구 화명3동 제3근린공원 추모비 앞에서 '제19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9시 위령재가 시작되며, 이후 11시에는 보훈가족 위안 행사가 열린다. 위안 행사는 금당 차 문화회원들의 육법공양, 참가 내빈 스님들과 보훈기관 인사들의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으로 이어진다. 또 53사단 장병들의 조총 발사가 군악대의 진혼곡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훈가족을 위해 진여원은 상이용사 유가족에게 장학금과 공로자 표창도 진행한다.

한편 화명신도시 추모공원에 세워진 추모비는 진여원이 지난 2002년 주도해 제막한 것으로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목숨을 잃은 부산 출신 호국영령 428위를 모셨다. 호국영령 위령재는 1997년부터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제7회 호국의 숨결대회(부제 : 청소년 호국 문화예술 전국대회)를 6월 6일 낮 12시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개최한다. 개회식에 앞서 홍법사는 오전 10시 제26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하며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호국의 숨결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서예 부분으로 나눠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대상은 전국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일반부다.

진여원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등
홍법사 제7회 호국의 숨결대회
해인사 김영환 장군 호국추모재
달전사·견불사 나라사랑 행사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한국전쟁 당시 해인사 폭격 명령을 거부하며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故 김영환 장군(1921~1954)을 기리는 호국추모재를 봉행한다. 호국추모재는 6월 10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다.

추모재에는 합천군수를 비롯해 노병균 공군교육사령관, 최영훈 공군역사기록단장, 공군 관계자들과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환 장군은 1951년 8월 17일~9월 18일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때 해인사 폭격을 중지시킨 결단으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보존토록 했다. 이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해인사는 2002년 6월 17일 해인사 경내에 '김영환장군 공적비'를 건립했다. 이어 해인사 대중들과 유가족 및 공군당국의 노력으로 2010년 8월 21일 금관문화훈장을 추서됐다.

경남 함안 달전사(주지 원명)는 6월 6일 오전 9시 경내서 6.25전쟁 격전지 전몰군인과 경찰,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11회 순국선열 · 호국영령 위한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한다. 행사는 국태민안과 지역발전을 기원하고 법요식, 화관무, 바라춤, 살풀이 등으로 진행됐다. 함안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가운데 하나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곳이다. 가장 치열한 전투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리산 견불사(주지 보덕)는 '제20회 6 · 25군경 추모음악회'를 6월 3일 오후 2시 경내 특설무대서 개최한다. 견불사는 6 · 25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알려진 지리산에 위치한다. 견불사에 따르면 당시 지리산에서 전사한 수가 7300명에 이른다. 이곳에서 전사한 호국영령을 위해 견불사는 1997년부터 추모 법회 및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1부 추모제는 개회선언과 내빈소개, 추도사, 추념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지며 2부 나라사랑 호국음악회에는 함양군 더사랑여성합창단, 계현순(전 국립음악원 무용단예술감독)의 관음무, 퓨전 국악그룹 풍류 등이 출연한다.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육을 위해 체험행사로 나라사랑 목걸이 만들기, 전투식량 맛보기, 사진전 등도 마련된다.

하성미 기자

부산 영산재, 전통문화공연서 시연

10개 공연 중 불교문화 유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7년 상반기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에 부산 영산재가 5월 20일 소개됐다.〈사진〉

전통민속놀이한마당은 부산 용두산 야외광장 및 종각 앞 상설무대에서 5월 20일~10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통문화를 일반인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장이다. 매주 사물놀이패, 다대포후리소리, 부산농악 등 전통문화 가운데 한가지를 선별해 무대를 꾸민다.

2017년 올해 5월 20일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에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부산영산재보존회의 부산영산재가 소개되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영산재보존회는 이날 국운융창을 기원하며 영산재 의식에 맞춰 천수 바라춤과 나비춤을 선보였다. 부산영산재보존회는 1993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됐다.

부산영산재보존회 단체장 성림 스님은 "영산재는 사물놀이를 이용해 문화로 법문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앞으로도 불교문화포교로 계승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대선불교조계종 3대 종정 혜승 대종사

5월 22일 취임법회… 새 총무원장 현덕 스님



사단법인 대선불교조계종은 제3대 종정 및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5월 22일 대구MH컨벤션 5층 강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추대위원장 운암 대종사는 "3대 종정으로 추대된 혜승 대종사는 제방 선원에서 철저한 수행으로 6안거를 성만하셨다. 종도 간 소통을 통해 대승불교로서의 소명을 여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종정 혜승 대종사는 "세상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한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는 이웃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대종사는 경남 산청에서 1944년 출생, 경성대학교를 졸업했다. 1978년 4월 혜은당 법홍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으며, 1985년 옥련암 안거로 시작하여 용천사 등 6안거를 성만했다. (사)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및 종정 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총무원장으로는 현덕 스님이 취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불교 한마음대회 '소통과 포용'

5월 20일 천태종 동대사 잔디마당에서



2017 국태민안과 대구시민의 안녕을 위한 대구불교 한마음대회가 5월 20일 수성구 고모동에 위치한 천태종 동대사(주지 도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성문 스님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천태종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천태종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정효 정사, 관음종 대구경북 종무원장 법웅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함께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성문 스님은 "호국애민불교의 전통을 선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한 불제자들이 분열과 갈등을 소통과 포용으로 극복하고, 진정한 상생화합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교직원불자聯 20주년 특별대법회

부산 교직원 불자들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특별대법회'를 6월 10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법회는 하루에 두 차례로 나눠 오전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이, 오후에는 방장 지유 스님이 법문한다. 특별공연으로 찬불가 및 가야금연주도 마련된다.

김경희 회장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것은 일반 불자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 중요한 덕목이다"며 "요즘 지식은 강조하지만 지혜와 인성 교육이 부족한 사례를 보게 된다. 불자 교사들의 학교 내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 생각한다. 앞으로 종립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불교의 긍정적 교육법을 적용하도록 노하우를 공유하고 젊은 교사들 영입을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조계종聯, 폭력 · 학대 없는 세상 발원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6월 7일 MOU 및 세미나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부산조계종聯)가 폭력과 학대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관련 세미나 및 MOU를 진행한다.

부산조계종聯은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MOU를 6월 7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체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조계종聯은 폭력과 학대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회복과 예방을 돕는 사회공헌, 참여봉사, 입법지원 및 정책제언 활동에 협력한다.

부산조계종聯은 이날 업무 협약을 기념하며 신의진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의 특별 초청 강연을 마련한다. 강의 주제는 '개인적 트라우마 이해를 통한 건강한 아동성장 프로젝트'이며 내용은 아동, 교사, 부모가 가정 및 사회에서 받은 부정적인 양육영향이 현재의 폭력성과 분노조절에 미치는 사례와 치유방안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조계종 스님과 소속 사찰 신도 및 학부모, 교사,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국회 사무처 소속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전문가인 신의진 前 국회의원을 비롯한 폭력학대피해 지원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2016년 5월에 설립한 단체다. 폭력 예방 및 조기개입이 가능한 전문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주 목적으로 활동한다. 신의진 회장은 현재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 부교수이며 2010년 서울시 여성상 대상, 2009년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고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저술은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느리게 기른다〉 〈느림보 학습법〉 〈아이의 인생은 초등학교에 달려있다〉 〈현명한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대화법〉 〈현명한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선택한다〉 등이 있다.

부산조계종聯 회장 심산 스님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 현실 공감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 대중포교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불교의 외연 확장 및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려 한다"며 "협약 체결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함께 동참할 것이다. 아울러 연중에 사회적 문제에 함께 고민하는 불교로 나아가기 위해 토크 콘서트도 약 3차례 계획하고 있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곡성 성륜사에서 서진 스님(오른쪽 두 번째)에게 승보공양 기금을 전달하는 빛고을나눔나무 스님과 관계자들.

“병마와 싸우는 스님에게 힘을”

빛고을나눔나무, 병환 중 스님에게 승보공양

어려운 환경에 처한 스님을 돕는 행사가 열려 지역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5월 21일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을 찾아 승보공양을 진행했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승보공양을 통해 장기간 병환 중인 서진 스님(조계종), 지산 스님(태고종)에게 매월 5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의 의료지원비를 전달키로 했다. 전달식은 상임이사 보응 스님과 운영위원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륜사와 효요양병원에서 열렸다.

곡성 성륜사 배려로 방 한 칸에서 기거하고 있는 서진 스님은 매일 본인이 직접 4번의 혈액투석을 하면서 당뇨합병증 등 병마에 시달리는 시한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문경 봉암사 불사에도 큰 공을 세운 스님은 4년 전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삶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그 후 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전전하면서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효요양병원에 입원한 지산 스님은 늘 대중포교를 위해 헌신해오다 3년 전 뇌졸중으로 병을 얻은 후 3년째 투병 중이다. 또한 그동안 스님을 보살펴준 불자도 치매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응 스님은 전달식에서 “원래 선방과 강원 등에 대중공양을 준비하려 했으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스님들의 사연을 듣고 승보공양을 준비했다”며 “힘든 병마와 싸우는 만큼 잘 견디고 강건한 마음을 가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한 기금은 소원정사 도계 스님의 1000만원 기부와 후원자들의 소액 기부금을 모아 마련됐다.

강성록 빛고을나눔나무 기획팀장은 “지속적인 모금을 통해 많은 스님들에게 의료비와 의료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평선축제 만난 템플스테이

금산사, 축제 기간 불교문화체험 기회 제공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지평선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오는 9월 20~24일 열리는 한국 전통 농경문화 축제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김제시를 방문할 관광객들을 위해 체류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1400년 미륵신앙의 성지인 천년고찰 금산사에서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 체험과 자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 이들에게 가장 내실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산사는 1박2일 일정으로 총 3회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기간 중 오후 4시부터 금산사에서 사찰 예절 교육, 108배 및 참선, 공양, 스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된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힐링의 시간을 체험하고 싶은 이들은 사전에 금산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하면 된다.

이밖에 김제시는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농촌에서 하루’와 ‘지평선 팜스테이’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담당자는 “국내 최고의 전통 농경문화 체험행사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 동안 템플스테이를 통해 이색적인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및 해외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한국의 불교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축제도 즐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랑도 명예도…” 불교계 같이 부른 ‘임’

광주불교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추모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폐지로 한동안 파행을 겪은 5.18민주화운동 추모행사가 문재인 대통령 참석과 제창 허용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의 다양한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5월 18일 오후 7시 광주 원각사에서 ‘5.18민중항쟁 제37주년 추모법회’를 개최하고, 5.18민중항쟁의 의미를 기념했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촛불로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일문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의 강연과 김희용 목사의 시낭송, 가수 박양희의 노래, 국악인 이병채의 판소리 공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증현 스님(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행법 스님(광주전남불교NGO연대 상임대표), 일문 스님, 효진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일문 스님은 강연을 통해 “5.18과 촛불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현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5.18민중항쟁의 올바른 의미를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도 같은 날 대웅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빛고을 광주는 5 · 18입니다’라는 주제로 봉행된 법회에는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을 비롯해 유나 일수 스님,

추모음악회 · 천도재 등
민주 열사 희생 되새겨
“민주주의 잘 이어지길”

선원장 무공 스님, 영광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등 본 · 말사스님과 신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방장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민주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다. 그 뜻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20일 5.18구묘역(옛 망월동 묘역)에서 추모객들을 위한 ‘5.18망월길 순례’와 ‘주먹밥 나누기’ ‘제10회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5.18구묘역에서 작은음악회를 열고,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이외에 ‘5.18영령’을 위한 천도재도 열렸다.

광주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18일 국립 5.18민주화운동 묘역에서 ‘영령추모 영산대재’를 통해 불교식 천도재와 영령을 위로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공식 추모식에 이어 진행된 영산대재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전통불교보존회’가 시연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회장 월인 스님은 “불교인들의 정성스러운 천도의식으로 5.18민주영령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20일 5.18묘역을 찾아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순례에 동참했다.

현재 묘역에는 지광 김동수 열사(5.18 당시 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시민군에 참여)와 최근 타계한 정의행 법사(5.18 당시 시민군 참여)를 비롯해 많은 불교계 유공자들도 안장되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웃 보살핌이 곧 부처님 가르침”

연꽃마을 자비원 정인 스님
5월 23일 경로위안잔치 개최

전주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연꽃마을 자비원 정인 스님(노인복지봉사회 전주지회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정인 스님이 5월 23일 전주 르윈호텔서 독거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개최한 경로위안잔치.

5월 23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열린 경로잔치는 아리랑 예술단의 ‘효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나눔 위안잔치에 이어 전주 수 한방병원의 건강상담, 기념식, 점심공양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로위안잔치에는 정인 스님, 소담불교박물관장 법성 스님, 대한암 용담 스님, 임현기 노인복지회 전북지부장, 이창승 르윈호텔 회장, 자원봉사자, 덕진구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헌신한 이경자 씨가 전북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김현기 · 김정숙 · 김용숙 · 이현경 씨가 전주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임선영 회장 등이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정인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느덧 15년 됐다”며 “사회의 많은 이웃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로위안잔치에 참석한 독거어르신들에게는 전주노인복지회원들과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황칠액기스 등의 건강식품과 영양제, 생활필수품. 무릎보호대 등 7000만원 상당의 선물이 전달됐다.

정인 스님은 1996년에는 효자동에서 의료기기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사랑방을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암환자 등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2002년부터 아중리에 연꽃마을 자비원을 열고 노인과 무연고 아동 등을 보살피고 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 어버이날 무렵 등 연 3~4차례에 걸쳐 100명의 소외된 이웃에 3000~6000만원 상당의 다기능 안마기와 건강식품,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 화순 유마사 이웃 위한 자비나눔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5월 23일 저소득 가정을 돕고자 구례군청을 방문해 400만원 상당의 자비나눔 쌀 200포를 기탁했다. 쌀 200포는 구례군을 통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연계,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화엄사 총무국장 지우 스님은 전달식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 자비로 지역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동 군수는 “군의 자랑인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쌀을 기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웃과 함께하는 화엄사를 기대하며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화순전남대병원 불교자원봉사자실(화순 유마사 보안회)도 부처님오신 날을 기념해 후원금 500만원을 화순전남대병원에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 20명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구촌 최대이슈 사람에 병을 발생시키는 귀신인 삼시구충제도 생노병사의 비밀인 천궁도법으로 도덕봉을 열어 만병을 다스리는 천하대도법 수련

최단기 6개월 – 1년 수련 매주 일요일 10시.

자격취득시 사암사찰, 포교원, 수련원, 교육원운영 인간에 운명은 저승사자의 장난이므로 과학이나 의술로 잡비 못하는 삼시구충 귀신병은 이생에 태어날 때 염라국의 진빛을 받아가는고로 정신병, 육신병, 잡신병, 종교병 각종사고로 끌고가는 삼시구충을 어떠한 방법 종교의식 조상천도, 구병시식, 무속의 굿 신물이 퇴마나 참선 등으로는 염라대왕이 부리는 삼시구충의 제도법을 모르니 귀신들에 철퇴맞는 경지를 넘는 천궁도법으로 병겁과 말법 흑업고의 모진불길에 허덕이는 중생과 종교를 초월 제도하는 도법을 얻어 영원한 직업 일류스승 되소서.

■ 교육개강일 : 2017년 6월 1일 ~ 2일 무박 2일 밤 9시부터
■ 장 소 : 인천 부평구 대정로 34.3층 천지공사천궁도통회
■ 상 담 전 화 : 032-502-6625/010-9292-3110
■ 부산동시법회 : 010-8533-1601
■ 계 좌 번 호 : 농협 029-01-1678866 곽한영

사람의 육신속에 각종병을 일으키는 삼시구충 병마귀신



사람과 동물 곤충 짐승들 몸속에서 귀신 잡신 빙의신과 삼시구충 수조억마리가 육신속에서 만병으로 고통을 주며 생명을 빠앗아가는 각종, 암 질병, 갑상선, 귀신병, 잡신병 조상빙의병 고통받는 삼시구충을 제도해탈 성불도통 건강 장수 만사형통하는 천하제일의 비법.

천지공사 불 · 선 · 도 총본산묘법 천궁 도통회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사 합장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진 이는 자기를 다스린다. 치수(治水)하는 이는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이는 살대를 바르게 하고, 대목(大木,큰 건축물을 잘 짓는 기술을 가진 목수)은 목재를 다듬고, 어진 사람은 자기를 제어한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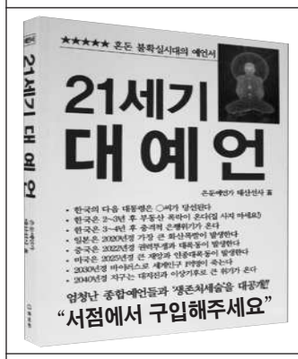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法帥寺 양산 통도사 부근

스님의 혜안으로 살피는 현재, 미래의 알고자 하는 일과 미래의 새로운 길, 시험, 진학, 합격운을 알고자 하시는 분, 원인 모를 병고, 귀신병, 빙의로 고생하시근 분 퇴마, 퇴치, 매매, 묘탈, 결혼, 이사, 하시는 사업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분, 현재 겪고 있는 불행한 일. 기도수행 하실 분. 개인지도함.
055-382-2108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역학, 구궁, 오행, 당사주, 신살

배워서 상담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세계최고 필립스면도기

신제품 : 물로 세척(방수)
3헤드 / 3시간 충전 / 6일사용
홈쇼핑가 18만원 ▶ 파격가 9만원
칼라 영정사진
고급액자 (20×25㎝) 5만원
이청하 010-8561-8253
농협 187-02-274348 이청하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010-5598-5078
무상 합장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염불, 사물, 천수바라, 나비무, 법고, 양고장 및 송주,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구, 용회사)
010-7579-8200
금륜사 주지 법현 도광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 모집합니다.
제반의식에 능통하신
스님 연락주세요.
(경북 문경)
010-8819-8988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경험 有)
010-9421-073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토굴에서 함께 용맹정진 (묵언, 1종식)할 도반을 모십니다

010-2897-614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금강경 반야심경을 써드립니다

금니(순금99%)도 가능, 별도상담
금강경(10폭) 심경(단품, 6, 8폭)
한문과 불교를 공부할분 연락 바랍니다.
● 수강료 : 10만 (5명) 주 – 2회 화, 금 오후 4시
승려시인, 선화, 한학, 서예가
포항 남구 인덕동 262
010-3749-455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이름으로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오늘운, 금년운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울 분 모집 010-5792-0199
한국명품이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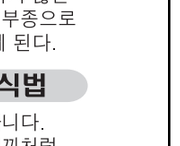
비구니 스님 , 보살님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하실 분 /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010-4640-4747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종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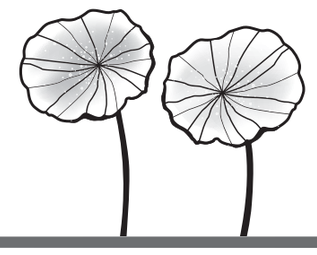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 다닐 것이다.

- 법구경 -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서울시 중랑구
- 총 3층의 2층 74.64㎡ (약23평)
- 방 1, 주방, 법당, 실내욕실 등
- 가액 : 보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
- 물건사진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인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2층 법당. 1층요사채. 공양간 - 산신각. 토지 1,300㎡
- 뒷편산사찰. 운영 잘되고 위치 좋음. 주차 가능함
- 양도가액 : 17억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경북 성주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총면적 : 2,945㎡(890평) - 검물총면적 : 234,76㎡(71평)
- 가액 : 3억 7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226 (쌍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청주
◎ 부지 : 60평 ◎ 면적 : 16500평,산세수려
◎ 법당 : 25평 ◎ 대형사찰부지,차량진입
◎ 요사 : 30평 ◎ 대지7000평가능,남양,안대좋음
◎ 양도가 : 6억5천 ◎ 계곡접매가협의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찰(급)안내
- 제천 중심가 사찰
- 토지 250㎡. 한옥요사채58㎡ .법당48㎡
- 이동인구많으며 깨끗하고 위치좋음
- 방편상담 최고자리 남향임
- 가액 : 1억6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 대지 200평 농지 약800평
- 사각정 2개, 물레방아 연못30평, 소나무 80그루
- 1층 가정집 30평, 방3개 화장실1개 다용도실2개 2층 법당 11평 방1개,주방1개
- 시내와 영동기차역 5분거리
- 양도가 2억5천 조정불가 급매

010-9274-1803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4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 ㎡(약41평) 건물 2층 1층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길3개 등
- 가액 : 8억 5천만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중심가 도심포교 최적지
- 마당 정원이 있는 한옥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시설완비), 방2개, 주방1개, 욕실,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6603-1456

지리산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지리산)
- 대지 510㎡ 법당 약10평정도
- 건물앞 바로 계곡 공기 물 산세 최고 2층에 앉아 흐르는 물 바라보면 지상낙원임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둘레길에 위치하며 등산객 많음
- 버스종점 위치 좋음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283-7733

암자(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 IC 10분거리 높은 산 칠부능선
- 암반에서 1급수 약수물 365일 사시사철 흐르고
- 가옥 40평, 25평 (2채)
- 평수 8,500평 정말 좋은데
- 가액 : 7억 5천(주인직접)
- 물물교환도 가능

010-4130-06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450평, 대지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외 1동(120평)
- 산속, 차량진입, 경관수려
- 가액 : 3억 7천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산세 좋은 곳
- 사천IC 15분 거리 위치
- 면적 : 부지55,000㎡, 건물 270㎡
- 법당,삼성각,요사채2동,황토방1채 용왕당, 연못, 채전밭(유실수 있음) 산과계곡,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방7,화장실4,심야전기,화목보일러
- 가액: 4억8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주시 천북면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5평(목조,단청,3포 7포)
- 요사채: 60평, 산신각:10평 (목조, 단청, 닷집)
- 기타: 칠성각(5평), 석탑, 석등
- 가액: 12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에 위치한 대가람의사찰로 포교와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좋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소재
- 부지: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요사채 : 40평,산신각 : 5평
- 기타 : 일주문, 석불 등
- 가액 : 8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여 포교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 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대가면 금산 3길 26-21
- 최신조립식법당 20평(삼존불 및 각단탱화 관음250불 산신당, 용왕당, 요사채, 스님방(냉난방 완비) 주방2개 전기, 지하수, 나무보일러, 고추건조기,입식화장실2개
- 임야 166평, 텃밭, 관세음석불 2천만원불사 완공
- 마을뒷산 제일높은곳, 법당앞까지 주차 10대
- 절주인 건강산 급양도(현 불사중), 몸만오시면 됨(40년된 암자)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136-70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 연 450만원, 보증금 500만원
- 신축건물 2층 트인 전망

010-5438-0138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345-1674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 신림IC 15분
- 대지 : 650평
- 건평 : 60평, 창고 : 20평
- 환상적 전망, 넓은 주차장 뒤 바로 산 지근거리에 강있음
- 토굴로는 최적입니다
- 가액 : 4억 5천

010-6399-337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1,000평
- 전 1,300평, 임야 1,000평
- 법당 35평,종각,산신각,각 3평씩 (육송목재로 지은 법당)
- 주지실 14평, 요사채 60평, 주택 25평
- 화장실, 샤워실, 차고 25평
- 가액 : 11억

011-9324-44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280평
- 삼존불,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종교부지 120평
- 대웅전,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5㎡ 옥탑, 주차장, 부처님 진신사리2과 100년 넘은 안정된 사찰로 사시사철 천연수 철철
- 가액 : 4억 5천

010-2720-1580

사찰(급)안내
- 위치: 불국사 부근.
- 대지200평,건평40평.
- 법당, 요사채,방3개,친견실, 공양간,샤워실,화장실2개, 밖에 남,여 화장실 건평18평
- 산신,용왕,나반,대중공양간, 용왕연못,7층탑등,시설일체,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가액 : 2억5천 사전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면지역
- 대지 : 120평, 전 : 390평 법당 : 목조 13평, 요사채 : 약 26평 종무소 : 6평 산신각
- 가액 : 1억8천만원

010-3785-4384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참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 하고자합니다. 대중스님네가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경북 울진 온정면 덕산리)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사찰(절암자)터 양도 상담 전문
- 양도 양수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전화주시면 성실 상담합니다

불자공인중개사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607-46-118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지역
- 총평수 1,000평, 대지 500평, 농지 500평 요사채 30평, 완공 3년
- 사정상 법당은 미완공, 토목공사 완료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1급수 청정지역
- 가액 : 2억 4천, 절충가능

010-5424-4969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삼안동 삼안공원 앞
- 3층 건물 중 1층 33평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방, 도시가스,냉장고,냉 · 난방에어콘
- 주위 환경 좋음
- 시설 집기 일체700만원
- 가액: 보1500만원 월4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 평수: 법당 30평, 삼성각
-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5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 3개, 주차 10대가능
- 신도시 형성 아파트 3만세대
- 고속도로5분거리
- 가액 : 3억7천만원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아래방송
- 3층 건물 중 1층
- 건물(30평) 법당, 방, 주방, 화장실
- 가액:보증금2백만원,월15만원 시설비 800만원(절충가능)

010-8585-138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100년된 암자
- 대지 280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 가액 : 1억 6천

010-5170-1381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내 구산동
- 아파트 상가 3층 80평
- 법당1, 공양간1, 상담실1 교실1, 방2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5669-141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호선 당고개역 1분거리
- 지하1층, 지상1층 다락 지상 49.26㎡, 지하 24.03㎡ 마당 있습니다.
- 상계 제2구역 재개발구역
- 종교부지
- 가액 : 5억 5천만원

010-3763-28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정선읍 사찰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둘레 10m3,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10분
- 가액: 17억

033-562-044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130평
- 건물 : 한옥2동(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262-100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금액 : 보 1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참고 : 정확히 10년운영했음 쉬고 싶어 양도함. 다양한 생활방편을 갖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02) 571- 91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집현면
- 법당 25평(비영리법인 등록) 요사25평, 대지 약 350평 법당자리(약 350평 터 작업완료) 산신각 자리(약 5평 터 작업 완료) 산 약 10,000평
- 마을끝자락 기도처 최상으로 불사를 하실 분 최적
- 공찰 주지 소임으로 안내드립니다.
- 가액 : 9억(절충가능)

010-4426-6867

인류 최대 건강희소식
인간의 건강을 귀신잡충들이 몸에붙어 각종질병을 발생 고통주는 잡충 잡는 경락 퇴치법 꼭배우실분 스님, 불자님, 마사지, 경락, 무속인등 지압사 포교사 병마소멸

010-2509-3688

토굴 분양 안내

따뜻한 남쪽나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남해에 삼재가 침범하지 못하는 길지에 지어진 토굴에 입주하실 복 있는 인연자를 모십니다.

토굴특징

1 자연재난(지진, 태풍, 해일)과 전쟁 사변 등으로 전기, 수도, 가스등이 단절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구비 되어 있는 아궁이와 온돌 구조이며 자연수 등이 갖춰진 건물입니다.

2 유명 풍수가들이 극찬한 지세와 지기를 머금은 명당이며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환경과 주변 뒷산에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3 또 심우도(尋牛圖) 길이 조성되어서 걷기 명상 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분양내용 (선착순 분양)

■ 1개동 건물면적 30156㎡. 대지지분 156㎡ ■ 총 7개동
■ 1개동 분양가 : 일억원 ■ 아궁이 10㎡(9.1평)
■ 주소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581-2
■ 별채 : 2층 건물 면적 197.27㎡ / 대지면적 1,042㎡
■ 양도가액 : 5억원

연락처 : 010-8913-0062

"에베레스트 등정 부처님 가피로 가능"

유럽여성 중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정 몰리 휴즈


에베레스트산의 남·북쪽 양방향 루트로 등정에 성공한 최연소 영국 산악인이자 최연소 유럽 여성인 몰리 휴즈(26)가 "부처님 가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 출처=에든버러이브닝뉴스

역대로 에베레스트 정복에 성공한 사람은 4000명 이상으로 알려지지만 1920년 이후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도 200명 이상이다. 신이 허락해야만 등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에베레스트. 이곳을 부처님의 가피로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한 이가 있다. 바로 몰리 휴즈(26)다.

영국 여성 몰리 휴즈가 에베레스트산의 남·북쪽 양방향 루트로 등정에 성공한 최연소 영국인 산악인이자 최연소 유럽 여성이라고 5월 21일 에든버러이브닝뉴스가 보도했다. 몰리 휴즈는 "불교의 목걸이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힘을 줬다"고 밝혔다.

몰리 휴즈는 5월 16일 새벽 4시 45분 동 트기 시작할 때 정상에 이르렀다. 원정대 중 등반 파트너 존 굽타와 함께 전날 오후 8시 30분 마지막 여정을 출발한 후 약 8시간 만이었다. 몰리 휴즈는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면서 "정말 힘들었다. 근데 정상을 불과 10m 남겨뒀을 때 감격을 잊지 못한다. 난 파트너 존과 포옹을 나눴다. 그 기분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몰리 휴즈는 등반에 오르기 전 불교의식에서 받은 목걸이가 내내 큰 힘이 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몰리 휴즈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에 든 동안에도 목걸이를 곁에서 떨어트리지 않았다.

몰리 휴즈는 "출발하기 전 불교행사에 참석하면 부처님 가피를 받으란 의미의 목걸이를 나눠준다. 난 지극히 신앙적이진 않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에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등반 오르기 직전 불교의식서
부처님 가피 담긴 목걸이 받아
8,848m 등정 동안 큰 힘 돼줘
출발 전 고된 훈련 숨은 노력도

원정대 수석 스폰서 티소 그룹
CEO "용기와 헌신 자랑스러워"

이어 "에베레스트 등반은 내 삶에서 가장 고된 7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분리해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몰리 휴즈의 이 말은 고통은 단지 순간이며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쪽 루트 캠프3번으로부터 8,848m로의 등반은 영국 남서부 토베이에서 태어나 에든버러에서 성장한 평범한 여성을 남북 양방면으로부터 등정에 성공한 최연소 영국인 여성으로 탈바꿈시켰다. 몰리 휴즈가 인터뷰에서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뒤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몰리 휴즈는 베이스캠프에 도착하기 전 스코트랜드에서 벤네비스산 등 험준한 산을 몇 주 간 등반한 것을 포함해 네팔에서 4주간 적응훈련에 돌입했다.

또 원정대의 수석 스폰서로 나선 티소(Tiso) 그룹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몰리 휴즈는 말했다. 티소는 스코트랜드에 기반을 둔 크리스 티소 CEO가 경영하는 아웃도어업체다. 몰리 휴즈는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등반하는데 가이드 비용 등 포함해 약 5만 파운드(약 7,256만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모금운동을 벌였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티소가 후원을 결정해준 것은 기적과 다름없었다"고 언급했다.

크리스 티소 CEO는 몰리 휴즈의 등정 성공 소식에 "정말 놀랍고도 영감을 주는 위업(偉業)"이라면서 "그녀의 후원자이자 친구로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른 몰리 휴즈의 용기와 헌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연걸, 갑상선 회복하려 불교 좌선을?

中 언론 "최근 산에 들어가 하루 8시간 이상 좌선"


쿵푸 스타 이연걸이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투병 중인 가운데 최근 건강회복을 위해 불교식 좌선에 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사진출처=차이나닷컴

건강 악화로 두문불출하고 있는 중국 배우 이연걸(李連杰 · 54)이 하루 8시간 이상 불교좌선을 하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투병 중인 이연걸 씨가 최근 산에 들어가 하루에 8시간 이상 불교식 좌선을 하고 있다고 차이나프레스 등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연걸 씨는 2013년 발병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악화된 후 약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살이 많이 찌고 부종이 심할 뿐 아니라 급격한 노화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 돌았다. 최근 할리우드 액션배우 제이슨 스타템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연걸 씨는 한때 중병이었던 부인 리즈(利智 · 56)가 불교 명상 등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한 일례에 따라 자신도 건강 회복을 위해 불교식 좌선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연걸 씨는 투병 후 불교행사 및 사원에 방문하는 모습을 종종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차이나프레스는 이연걸이 중국 국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2009년 이연걸은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해 그를 중국인의 자랑으로 여겨왔던 자국 팬들이 크게 실망을 표출한 바 있다. 당시 싱가포르 국적 취득의 배경을 두고 소문이 무성했는데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두 딸의 교육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프레스는 이연걸이 중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건강이 회복불능의 경우로 치닫는 경우 고향인 중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아닌가"로 추측했다. 박아름 기자

中·우크라이나 불교문화 교류 박차

5월 23일 불교 주제 원탁회의 개최


티베트 문화 교류 사절단 대표 쩡두이(왼쪽에서 두 번째)와 우크라이나 종교과학 협회장 아나톨리 콜로드니(가운데)가 불교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출처= 신화통신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불교문화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5월 23일(현지시간) 중국, 우크라이나 불교 관련 종사자들이 최근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23일 불교의 과학 · 철학 · 종교적 측면에서 토론하는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우크라이나 국립 과학 아카데미 부설 철학 연구소에서 개최됐으며, 30명의 철학자 · 종교학자 · 불교학자 및 신자들이 참석했다.

티베트 문화 교류 사절단 대표 쩡두이는 "이번 회담의 주 목적은 중국과 티베트에 산재된 풍부한 불교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문화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비롯해 과학자, 그리고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칭송되는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교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티베트 불교의 특별한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종교과학 협회장인 아나톨리 콜로드니는 "우크라이나에서 불교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불교적 사상이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불교를 통해 타인에 대해 자비와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의 다른 이웃종교들은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다. 이웃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불교적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는 1980년 후반 한 스님이 방문하면서 불교가 처음 소개됐다.

이후 1991년 세 개의 불교공동체가 우크라이나 지역 동부 도네스크시, 칼코브, 루간스크 지역에 등록됐다.

현재 58개의 불교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등록돼 있지만,현지에 있는 종교 과학자들은 약 100개의 공동체가 활동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한편 동유럽 국가 내 불교 신자 수는 약 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보형 객원기자


동영상에서는 스님이 버스 통로쪽에 앉아 앞좌석에 팔을 걸치고 스마트폰으로 성인물을 보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근처에 앉은 승객들에게 시끄러운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출처=www.rt.com

버스에서 포르노를… "스님 맞아?"

태국서 승려복장 남성 성인물 보는 장면 포착

승려복장을 한 남자가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성인물을 보는 모습이 SNS을 통해 공개되며 전 세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태국 북부의 르이를 여행 중이던 위트왓 웡하죽씨는 버스에서 승려복을 잘 차려입은 입은 남성이 휴대폰으로 포르노를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동영상에서는 스님이 버스 통로 쪽에 앉아 앞좌석에 팔을 걸치고 스마트폰으로 성인물을 보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근처에 앉은 승객들에게 시끄러운 소리와 영상 속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이 영상은 160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동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혐오감을 표시했다. 반면 동영상의 주인공이 정말 스님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위트왓씨는 "태국에서는 스님들이 존경받는 존재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12

따뜻한 세상 만드는 '화장실 동사섭'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⑪



화난다고 '부정' 내뱉지 말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달라지면 그 나라 국민의 의식도 달라진다. 대통령이 비서들과 커피 잔을 들고 함께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탈권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를 가족처럼 가까운 대통령으로 느낀다.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은 한순간의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리라.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여정에서 내적 균형감각과 정서적 안정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길 간절히 원한다. 또 청와대를 걸어 나올 때 따뜻한 박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의식이 한 개인으로서 욕망을 이루되 개인을 넘어 국가를 위한 욕망으로 변형되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새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동사섭의 세상을 만들기를 염원하면서 쓰고자 한다.

요가명상 중 옴(OM) 만트라 명상이 있다. 소리로 명상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옴 만트라는 세 단계로 행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크게 소리 내어 반복한다. 몸 전체를 통해서 옴 소리를 낸다. 몸 전체가 옴 소리로 떨리고 울리도록 소리를 낸다. 몸이 옴 소리로 흠뻑 적셔지고 그 소리가 몸 세포들에 침투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 성자에 따르면 한 달 이상 하루에 한 시간씩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몸 전체가 소리 내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몸 전체가 소리를 흡수하여 그 소리가 몸 전체를 흠뻑 적신다면 수행자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가령,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가 주위에 어떤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 시 함성은 새로운 정권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온몸을 통해 뿜어져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힘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출되었기에 희망찬 새 정권을 탄생한 것이다.

2단계는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 옴(OM)이라는 단어를 반복한다. 이제 몸은 사용하지 않는다. 몸 전체가 닫혀있고, 오로지 마음속에 옴 소리가 존재한다. 마음속으로도 가능한 한 크게 소리를 내야 한다. 마음이 그 소리에 흠뻑 적셔지도록 한다. 몸이 흠뻑 적셔지는데 1개월이 걸렸다면 마음에도 역시 1개월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엄밀히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는 성(性)이 사라질 것이고, 2단계에서는 사랑이 사라질 것이다. 성은 사랑의 육체적인 부분이고, 사랑은 성의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마치 촛불시위에서 일어났던 분노가 사라지고 안정된 새 정치가 펼쳐지는 것과 같다. 이제 새 정권은 유세 때 펼쳐놓은 수많은 공약을 하나하나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어야 하고 국민들은 온 마음으로 응원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소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3단계는 마음이 흠뻑 적셔짐을 느낄 때 일어난다. 그 느낌은 마치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충분해' 라고 느낄 때 알게 된다. 3단계에서는 몸도 마음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몸과 마음을 닫을 때 옴의 소리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존재할 것이다. 수행자는 단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일 뿐이다. 3단계는 수행자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모든 장애들은 떨어져 나가고 모든 장벽들은 사라질 것이다. 몸이 그 소리로 흠뻑 적셔지고, 마음이 흠뻑 적셔질 때만이 제3의 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 수행자는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소리이다. 그것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나무에 귀를 대면 나무에 그 소리가 존재한다. 바위에도 그 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우선 몸과 마음이 초월되어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공약과 더불어 국민의 소리도 함께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권위적 에고(ego)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2단계에서 옴 소리가 마음에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생각에서조차 벗어나야 한다. 대선 때 세상을 향해 수없이 외친 공약들(1단계)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2단계에 이르게 되고, 2단계를 거쳐 그렇게 행한 자신을 잊어버리고 세상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는 동사섭이다.

> 세상 소리 듣는 '옴 만트라'
> 대통령 행보도 이와 같아야
> 양극화 심해지는 세태 속에
> 동사섭으로 하나씩 풀어가자

여유 갖고 대중에 녹아들어야

동사섭에 얽힌 이야기다. 27년 전 2월 몹시 추운 겨울, 필자는 '동사섭(同事攝)' 이라는 심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리산 백장암에 갔다. 그곳에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야했는데 그 때마다 다소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장실 구조 때문이었다. 화장실 입구는 하나이나 들어가면 두 사람이 동시에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엉덩이만 가릴 수 있도록 판자가 사이에 있을 뿐 숨소리, 힘쓰는 소리, 닦는 소리를 모두 듣거나 볼 수 있어서 어지간한 배짱으로는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 내 옆에 바로 우리를 지도해주시는 스님이 들어오셨다. 놀라고 당황스러워 엉거주춤한 상태로 인사를 하는데, 스님은 태연히 앉으시면서 "우리 화장실 동사섭이나 할까요?" 하시지 않는가. 동사섭 프로그램을 하러 오기는 했어도 '화장실 동사섭' 이라니 나는 의아했다. 우리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 동사섭 프로그램 이야기 등을 나누었고, 볼일을 끝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사섭이란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써 인간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네 가지 포용적인 태도' 인 사섭법(四攝法)의 하나이다. 사섭법은 네 가지 덕목, 즉 보시(布施, 베푸는 것) · 애어(愛語, 친절한 말) · 이행(利行,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 동사(同事, 협력하는 것)이며, 이 중에서 '동사섭' 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기의 일처럼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다. 동사는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하고 화복을 함께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이다. 이 동사섭은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차 마시는 대통령의 모습이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나올 때도 같다면, 그는 소리도 마음도 아닌 이 둘을 넘어선 존재 전체의 모습이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차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던 일들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대신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워질 것이지만 개인 간에는 심각한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이 가져올 인지적 혼란과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직, 양극화 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점차 노동현장에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문화를 향유하고 정신적 가치가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갈등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기존의 가치관, 삶의 방식, 생활환경 등이 바뀌면서 개인 간, 세대 간, 국가 간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때야말로 동사섭의 세상으로 변화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삶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에 빠질 때, 자신의 행복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도와줄 수 있는 의식으로 확장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자신과 세상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염원이다. 점점 기계로 대체되는 인간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존재하되 나를 넘어 세상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명상은 바로 이런 능력을 길러준다. 부처님은 이미 이런 삶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삶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해야할 덕목으로 사섭법을 제시하신 것이다.

이제 인간사회에서 화장실 동사섭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자. 화장실에서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고, 짧은 순간의 만남이라도 참 만남의 순간이 될 것이다. 화장실에서 서로 어색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반갑게 눈인사를 한다든가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더워졌네요"라며 가벼운 스침의 만남이라도 가진다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지난번 문 대통령이 출근하려고 할 때, 영부인이 "바지가 짧네요"라고 하자 문대통령이 "이게 요즈음 유행이야"라고 답하듯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순간의 상황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나누되 나눔이 없는 세상은 사심 없는 봉사를 행하거나 명상이나 다른 영적 수행에 전념할 때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패했다거나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과 환경에 이로움을 주는 통로가 됨으로써 사심 없는 동기와 행위를 하지만 우리는 이로움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동사섭의 세상이다.

국내외 한국불교대학 지원 모집

회주 無一 우학 큰스님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안내

1.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인정하고 공부 지원함.
2. 한국불교대학 정규시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제공함.
3. 2년 과정을 공부 마치면 2년 전법사증 수여.
4. 전법사증을 받으시면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동문 신도로 인정함.
5. 국내외 도량의 통학 1시간 이내는 지원 설립 할 수 없음.
6. 1년에 한 번 정도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에서 회주 無一 우학 큰스님과 합동 명상 힐링캠프 개최.
7. 교재를 구입한 신도만 정식 동문으로, 꼭 교재가 있어야 공부가 가능함.
8. CD 또는 TAPE의 발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단 복재를 절대 금지, 2개월 마다 모아서 반납해야함.
9. 공부할 장소는 지원의 대표(지원장)가 알아서 하고, 장소 구입 및 자체 회비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 권한은 지원장에게 있으며, 한국불교대학 본부는 간섭하지 않음.
10. 20명 이상이 되면 분원으로 승격하고, 큰 공간이 만들어지면 도량으로 승격함.

• 문의 : 053-474-8228 (담당 : 대구큰절 종무팀장 수향)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 명상힐링학교 모집

육임 직접 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 각 60만원
  월령도
  주역,명리,성명학 - 각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연정사 운암 합장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무료강의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 4시 (미리 접수바랍니다)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❶ 동영상 강좌 : 250만원 ❶ 직강 : 300만원
❸ (내손안에 육임) 프로그램 : 450만원
❶+❷+❸ 合 600만원 (개별구입 가능)
※ 각종카드, 할부금융 - 무이자 18개월 할부 가능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육임이 보인다」 저자

공 고

사)한국불교 명예의 전당 이사장 직인이 없는 고유번호 사칭한 상패, 상장, 주지임명장은 모두 무효 입니다.

대한불교 대광명종, 대한불교 광명선원, 대한불교 대광조계종 종단 사찰 암자는 2년이상 분담비 미납시는 모두 등록취소합니다.

이의가 있으신분은 10일 이내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30일

사) 한국불교 명예의 전당 이사장

문의 : ☎ 총무원 061-853-5524



대행 스님

부처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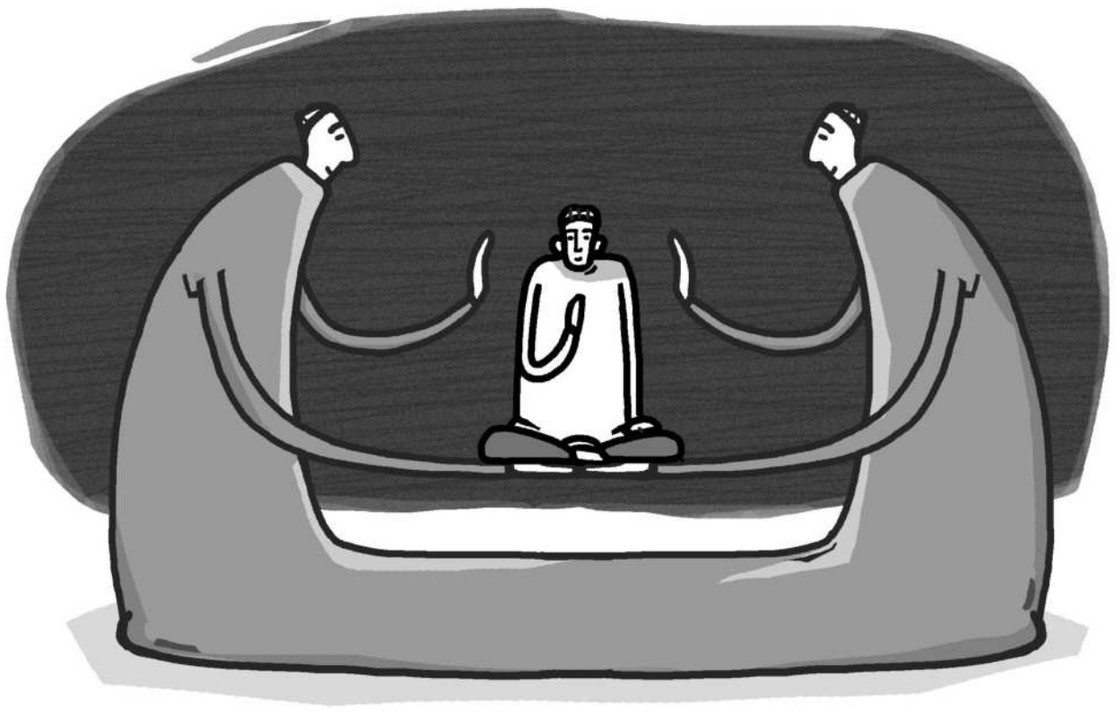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들어 있는 그 업식이 현실에서 여러분이 사는 고통과 애고와 병고를 바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커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거를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됩니다. 첫째는 공부 길이 아주 정법으로, 정의로 들어가니까 옳고, 무슨 이 다리를 거치고 저 다리를 거치고 이거를 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직통 들어간다 이 소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애고를, 전체 애고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불바퀴에 넣으면 불에 타 버리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그냥 모두가 녹아 버리듯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위로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빚도 줄 수 있고, 또 부부도 편안하게, 가정을 다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 가정을 빼놓고 우리 삶을 빼놓고 이 부처님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부터 부처님도 알았고 상대성의 원리도 알았고 사랑도 알았고,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생활이 어떻다는 것도 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체 내에서 모두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그 어떤 것도 무효입니다.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고도 있고 업보도 있고 유전성도 있고 영계성도 있고 세균성도 있고 인과성도 있고, 이 모두가 붙어 돌아갑니다.

이러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헛듣고 헛넘기지 마세요. 나도 이거를 탐지하고 실험하느라고 십여 년이 걸렸습니다. 책이나 읽고, 즉 조사들의 뒷발자취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내 생을 다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생이란 한 철 나고 누구나가 다 갈 것인데 이 한 철을 다 마치기 전에 내 아픔과 딴 사람 아픔과 모든 사생의 아픔이 다 같은가 안 같은가 이것도 검토 많이 했고요. 그러니 그 고가 어디서 오는가? 모두 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 죄를 짓지 않죠. 모르는 게 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긁어서 부스럼 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짓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두를 누구한테서 받는다' 흔히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화두를 받는 그것도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못 됩니다. 왜 그런가 얘기해 볼까요? 화두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으면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다는 그 생각이 항상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받았으면 그냥 자기로 돌리고 말면 될 텐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을 딴 데서 받아서 직선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든 알든, 진짜든 가짜든, 못났든 잘났든 바로 내 속에 내가, 이끌어 가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하고 "주여!"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이런 데서도 "주여" 하고선 자기 내면을 찾지 않고 항상 바깥을 건너다보고 찾아요. "하나님!"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 위로 보고 찾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없이 어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이 어디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이 불경을 많이 찾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이렇게 애고와 병고와 가난을 면치 못하니,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다 다시 놔라. 그러면 다시 입력이 되고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데 이 소리도 못 믿고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떠 잡수시라고 이렇게 받쳐서 들고 이래도?

그렇다면 제일 시급한 게 병인데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입니다. 물론 가야만 할 때는 가야죠. 안 가도 괜찮을 때는 안 가도 괜찮죠. 그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니까요. 그만큼 광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안 가도 괜찮고, 자력과 광력, 통신력, 전력 이것이 발휘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안 가도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도 법, 안 가도 법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필연적으로 가야만 할 것은, 뭐 부러지거나 어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병원엔 가야죠. 그러나 병원에 갈 때 가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당신의 손이 그 의사의 손이 될 수 있다' 고 완전히 믿었을 때 그건 아예 50%를 가야 할 길을 단 10%도 안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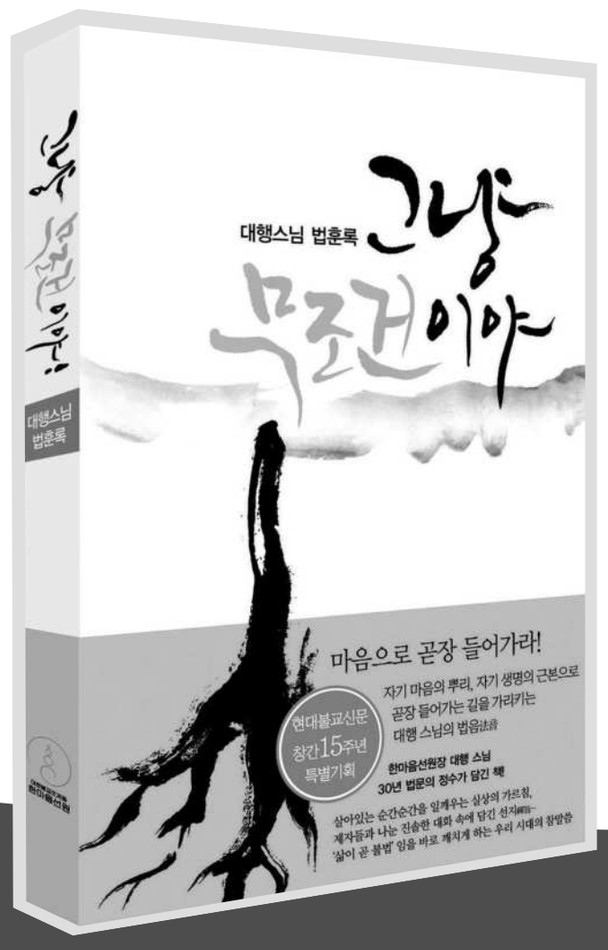
화두 얘기 하다가 어디로 그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달아나갑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그저 듣는 분들이 생활의 요지를 건져서 쓰십시오. 내가 화두인데, 각자. 내가 화두입니다, 각자. 그런데 이 화두를 또 들고 '이게 무엇일꼬?' 한다면 속의 맛은 영 한 번도 못 볼 거예요. 수박을 놓고 딩글딩글 굴리면서 '이게 뭘꼬? 이거 무엇일꼬?' 하고 굴려 봤던들…, 아무 소리 없이 턱 잘라서 맛을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주 시원하고요. 질질 끌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신행담을 써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는 데 많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 스님은 왜 부처님 말씀은 안 하시고 저러나?' 이러지마는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어요. 또 우리가 한문으로 예전의 용어를 가지고서 주욱 해 놓은 거를, 그걸 가지고서 지금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 봤던들 그거 안 됩니다. 지금 택시를 마차라고 그러면 될까요? 마차라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엔 마차만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양쪽 바퀴를 만들어서 그렇게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용어가 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만 되죠. 그래서 반야심경도 천수경도 한문으로 써 놓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공부 하는 데에 그냥 쓴 겁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닿고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그 반야심경은 읽어서 도대체 무슨 맛이 납니까? 그래서 화두도 그렇지마는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진짜 나는 못 깨칠 겁니다.

옛날에 부처님도 그대로 말씀하셨고 옛날 조사님들도 그러셨습니다. 말을 금방 하고도 "난 한 마디도 한 예가 없다. 난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 부처님께선 49년을 말씀하시고도 난 한 번도 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한 게 하나도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해서 돌아가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됐다가 법신이 됐다가 화신이 됐다가 이러면서 자꾸자꾸 바뀌 가면서 응신으로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응해 주시는데 어떤 중생에게 응해 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예가 없고,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는 얘기죠. 이 도리를 진짜로 아신다면 어떠한 게 가로걸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한시름 놓을 판인데, 여러분이 사람으로만 태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듯이 아, 스님들끼리 도반으로 살다가 한 스님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까치 둥우리로 영혼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저 놈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그냥 주장자로다가 쳐서 내리고선 자꾸 그 주장자로다 인도를 해서 사람 집으로 들여보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스님하고 아주 친밀한 법사였다 합니다. 법사님이 떡 열반을 하셨죠. 연세가 많을 때까지 노고를 마다 안 하고 하셨는데 스님이 보시니까 제비 둥우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자로 쳐서는 내려 가지고선 몸뚱이 속으로 다시 넣었더랍니다. 그래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나니까 물었더랍니다. 왜 제비 둥우리로 들어갔느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하하하…. 뭐, 삼층집에 그냥 으리으리하더랍니다. 그러니 환상에, 환상에 녹죠. 그러니까 마음의 환상에 녹는단 말입니다.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르면 내 업식에 눌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고 또는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충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모두 성취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에 이익이 있어야, 이게 이익이 있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얘기해 드렸죠.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니까 나중에 모두 총 계합을 해서 보니까 네 부모 내 부모 네 자식 내 자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첫째, 이 공부 하실 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들하고도 그렇고 남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쁘게 하더라도, 나는 우리 스님네들더러도 항상 그럽니다. "네가 잘못했든 잘했든 네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네가 없었더라면 누가 부딪치겠느냐.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라. 두 번째는 모든 게 어떠한 문제라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항상 잘못하라는 법만은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잘할 때까지 또 두고 봐라. 그러면 대번, 대번 돌아간다. 바로 여기다 맡기고 마음을 내 준다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간다. 같이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남이 이러든 저러든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세우고 냄새를 똑바로 맡고 생각을 똑바로 해서 이 모든 업식에 본이 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외착이 없으니까. 감히 병고도, 어려운 병고는 오지 않을 것이고, 병고가 났다 하더라도 병고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남을 해(害)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리를 찾으려면 아이고, 십만 팔천 리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그 도리를 진짜로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라는 거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실천궁행하라는 그 요지를 내리신 거지 "너희들 죽어서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살아서 천당 맛을 보고 살아서 지옥 맛을 보고 살아서 삶의 보람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사는 건지도 알게 되고 이런 걸 가르치신 거지 아니, 죽어서 승천하라고, 천당에 가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영혼 삶에 이르기까지 길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모두가 지 수 화 풍, 네 가지 요소로 돼 있는 겁니다. 일체 만물이 다 요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거죠. (컵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도 그렇고요. 지수화풍이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법상을 가리키시며) 이것도 그렇고요. 흙과 물과 또 바람에 말리죠? 불에 굽죠? 그러니 우주의 개공이 (컵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지 수 화 풍, 바로 네 가지가 대두돼 있는 걸요.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 드리는데도…. 그래 우리가 물이 없으면 전력을 끌어올 수 없듯이 우린 항상 지수화풍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 소립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이고, 기가 떨어졌어. 난 못 살겠어.', '난 못 살겠어. 나는 죽겠어.' 그 생각밖에는 안 나겠죠? 들어야 나죠, 들어야! 먹어 보고 들었어야 생각이 나죠. 안 그렇습니까? 들어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또 생각한다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꾸자꾸 그저 조금만 기운이 없어도 '나 죽겠다.' 아, 기운이 조금 없으면 기운을 발휘해서 좀 넣고 기운이 너무 많으면 좀 빼고 아,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지 아니, 그놈의 거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아프면 '야, 네 시자인데 네가 건강하게 해 가지고 끌고 다니지 누구 몸뚱이기에 그러느냐.' 그러고선 거기다 뚝딱 맡겨 버리는 거야. 내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주인 그놈의 시자죠. 그리고 돈, 보석이 있다면 관리인이고요.

그러니 관리인으로서 충만히 100%를 다할 생각은 안 하고 내 거라고 붙들고는 그냥 100%를 하려고 그러니 이놈의 게 고장이 나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게 100%를 관리인으로서 한다면 아마 오붓하게 모일 겁니다. 그러나 내 거라고 움켜쥐고선 모으려고 그러면 허, 요리로 빠져나가고 저리로 빠져나가고 요리로 나가고 저리로 나가고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부자면 집안도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돈도 그거를 알아요. 돈이 너무나 잘 알죠. 그 마음을 읽어 버리니까요. 들어가려다가도 '에이, 난 저 집은 안 들어가.' 그러면 돈 받을 것도 못 받아요. 안 받아져요. 그래서 어떤 집엔 "거기다가 놓고 '주인의 돈이니까 주인밖엔 받을 수 없다'고 그래라." 어떤 땐 그러죠. 하도 딱하니까.

이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또 들려 드릴까요? 이 안에서 고장난 거는 안에서 광력을 쓰고, 우리가 눈과 귀와 냄새와 결정과 모든 것을 동시에 이렇게 하듯이 왜, 바깥에서 왁작왁작하고 싸우고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결정적인 것도 알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통신력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오고 가는 것은 천리만리라도 아주 한 찰나에 왔다가 한 찰나에 갑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냥 이래 보여도, 그냥 허술해 보여도 그래도 그거를 쥐고 그 통신력에 귀를 기울이고는 어떡하든지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스님의 그 요지에 한 치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면 천 리, 즉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스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그건 통합니다. 그래서 가끔, 뭡니까? 천도재를 지낼 땐 반드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합니다. "스님, 남의 천도를 시켜 주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선 안 되니까 스님, 아셨죠?" 이 소리가 그냥 마음에 와서 딱 닿죠. 그러면 속으로 또 '알았다.' 이러죠. 통신력이라는 게 그렇게 쓰일 뿐만 아니라 또 부처님의 천백억화신이 응신이 돼서 이렇게 나투실 때, "아휴, 나는 이렇게 병고가 있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할 때에 그냥 정성이 지극하게 이 내면에다 해야 그것도 알아들으시지 바깥으로 믿거나 이래 가지고는 부처님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달마 대사도 양 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참 지극하게, 지극한 마음의 불을 켠다면 응신이 되셔서 응해 주시죠. 그게 통신력이에요. 이 통신력이 충만하다면 자력도 또 충만합니다. 모두 여러분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못 쓰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서 어느 신도 하나가 차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고 자기 친구만 그만 뭐, 허리가 어떻게 됐다나요? 속의 뼈가 부러져서 모두 으스러졌답니다. 그런데 영 깨어나질 않으니까 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깨어나게끔이라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의사야?" 하하하…, 그래 놓고선 "알았어." 그랬는데 얼마 안 있더니 "아,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어떡하는지 알지?" "예." 그래요. 남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난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주인공,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 놓고 자기는 마음을 내서…. 그런데 안에서 자기네들이 방사선으로 한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안에도 모든 게, 어떤 분야든지 자기 아님이 없는데,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거 자기 아님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게 또 진이 나오지 않는 걸 나오게 해서 붙이는 데도 자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마음을 내서 해 줬는데 일주일이 못 가서 그 뼈 부러졌던 게 다 붙었더라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험을 해요. 실험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실험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에서는 의사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한 회원이 되고 또 박사들은 박사들끼리 한 회원이고, 또는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대로 또 한 팀이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한 팀이고 모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그 모든 거를 실험하면서 나가니까 그렇게 단수가 높아질 수가 없더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늙었든 젊었든, 지금 내가 이 앞에서 뒷분이 노래를 하시는 거를 가만히 듣고 웃었습니다. 저렇게 연세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걸 떠나서 노래 부를 때는 다 떠난 겁니다. 떠나서 부르는 노래기 때문에 아주 청정하게 들립니다.

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으니 주저 마시고 어떠한 분야에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나 실험을 해 보세요. 비리비리 그냥 남한테나 기대고 그냥 남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죽든지 살든지 좀 결단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시려고요? 이 세상 끝 간 데 없이 그 고비를 넘기려면 얼마나 많은 그 시련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삶의 보람도 없이 말입니다. 또 고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는 게 고생이에요, 알고 보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럴 테죠? 살더라도 맛을 알고 사시라 이거죠. 이 세상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야심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고 계세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만남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나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다 보니까 인젠 지쳐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으로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저놈으로 인해서 망했지. 저놈이 잘못해서 뭘 어떻게 했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면 꼭 꿈대로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네 기와집 양쪽 대들보가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야. 그랬으니 이건 껌뻑 죽어서 그냥 온 거야. 이건 큰일이 났죠, 뭐. 그래서 내가, 내 말이 그랬습니다. "허! 모든 업보가 모두 부서져서 내리는구나." 하하하. "모든 업보가, 그 업보가 부서져서 내리니까 너희는 좋은 일 있겠다." 그러니까 날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죠, 인제. 날 봐도 눈초리만 나한테 있지 지금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조건이다. 너희 좋은 대로 생각해서 거기 놓는 거지 사람이 생각, 사량으로써 '이건 절대로 사람은 못한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결정짓지 마라. 할 거든지 못할 거든지, 나쁜 거는 좋게 생각해서 놓을 때 감사하게 놓고, 또 잘되는 거는 잘되는 대로 감사하게 놓고, 자기 주인한테 모든 거를 다 맡겨라." 아, 육신이야 뭐, 끌고 다니다가 훌떡 버릴 거, 허허, 제 육신 제가 훌떡 버리고 또 형성시켜서 훌떡 들어가서 살고 이러는 놈의 거, 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생각을 잘함으로써 이 세상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한 생각 잘못해서 창살 없는 구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 빚도 못 갚고 은혜도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렵니까? 여직껏 물 주고 공기 주고, 하하하, 흙에서 살고 바람 주고 불 주고 다 한 그 은혜는 또 어떻게 갚아요? 그건 돈 안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게 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넉넉하게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잘 들으셨죠?

대중 가운데서 네.

(다음 호에 계속)

마음이 부자면 집안도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돈도 그거를 알아요. 돈이 너무나 잘 알죠.

※위 법문은 1992년 6월 21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 불자 세상보기 |

집단의 함정과 연기의 정치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길었던 탄핵 정국이 끝났다
새 정부 출범 긍정적 평가
하지만 왠지 조마조마하다

한국사회에 산재한 갈등들은
집단의 자기조직화서 비롯돼

연기, 無明을 벗어날 고차도덕
'우리 對 그들' 경계를 벗어나
現 정부, 연기의 정치 구현해야

요즘은 그래도 개운하다.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기간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하루하루가 먹먹한 나날이었다. 한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기에는 내 가슴이 너무 옇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니 여하튼 긴 터널을 벗어난 기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출발도 산뜻하게 보이고, 이런 저런 인사들도 신선하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선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한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 인한 착시현상에서 나온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서부터 4대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적폐에 대해 과감한 청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웬일인가?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 조마조마한 생각이 든다.

웬 조마조마한 생각? 하버드대 심리학자 조수아 그린(Joshua Greene)이 쓴 〈옳고 그름(Moral Tribes)〉이란 저서의 내용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조수아 그린의 주장은 도덕적 삶의 유효성을 개인 단위가 아닌 부족(집단)에서 찾았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다수의 인간은 도덕적이지만 왜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는가?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은 같은 집단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그들'보다 '우리'를 앞세운다. 이념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갈등은 대부분 '우리 집단'과 '그들 집단'의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도덕은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기준이 결코 아니다. 이제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종래의 관점을 바꾸어서 두 집단의 폭을 좁히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하며, 도덕적 경계선을 뛰어 넘는 '고차도덕(Metamorality)'을 정립해야 한다."

조수아 그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섬뜩하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는 지금도 술자리 건배사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한국의 선거판에 은밀히 등장하는 단골 슬로건이기도 하다.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져 있는가.

이념 · 지역 · 계층 · 세대 등 도덕적 경계선이 다른 여러 '부족'들이 혼재되어 있다. 조수아 그린에 의하면 집단의 도덕은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집단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온 진화적인 장치이다. 그러면 도덕적 경계선을 뛰어 넘는 '고차 도덕'을 어떻게 창출하나? 이에 실패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도 실패하고, 우리와 그들의 미래는 함께 깜깜하다.

무명의 깜깜함을 벗어날 수 있는 고차 도덕이 있다. 바로 붓다 다르마, 즉 연기법이다. 연기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존재하고, 그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연기적 사유는 본질을 찾는 형이상학과 결별하고 무상함을 보는 지혜이다. 이것은 같음을 거부하고 다름을 보는 '차이의 시선'이다.

그런데 인간은 변하는 것, 무상한 것에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잡아 고정화 시키고자 한다. 즉 동일성의 욕구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들고 '그들'을 구분하는 집단적 환상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집단적 무지가 발생하고 다른 부족을 구분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 한국 정치는 그동안 '부족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얼마나 표류하였던가.

이제 연기의 지혜를 정치에 적용하여 '연기의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연기는 함께 사는 중생의 지혜다. 새로운 정부에 연기의 지혜가 가득하게 피기를 바란다. 연기의 씨를 뿌릴 곳은 백담사 계곡이 아니라 광화문 거리의 아스팔트다. 그만큼 불교와 불교인의 책임이 크다.



기자칼럼
김주일 편집국장

오랜만에 만난 진정한 치유

힐링 멘토 정목 스님이 설립한 마음공부 전문 인터넷 '유나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5월 20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서 피아노 연주자 마이클 호페를 초청해 기념공연을 가졌다.

그는 인기 드라마 '가을동화'의 삽입곡인 〈잊을 수 없는 마음(Unforgetting Heart)〉과 광고 배경음악 〈링컨의 애가(Lincoln's Lament)〉 〈가장 사랑받는(Be loved)〉 등 감미롭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명상 음악가다.

내가 그를 국내서 처음 본 것은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린 2014년 4월이었다. 역시 정목 스님과 함께한 특별한 힐링콘서트인 유나방송 개국 7주년 축하 자리에서다.

당시 마이클 호페는 자신의 음악 애청자인 정목 스님과 만나 인연을 맺었고, 그 만남이 또 이번 공연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고희를 넘긴 노 피아니스트는 자리에 앉자마자 경쾌한 왈츠를 선사했다. 〈마그다의 왈츠〉 〈달의 왈츠〉 〈아이들의 왈츠〉 등등. 이건 확실히 맛보기 애피타이저였다. 공연의 절정은 역시 TV와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잊을 수 없는 마음(Unforgetting Heart)〉과 〈링컨의 애가(Lincoln's Lament)〉에서 느껴졌다.

어색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연했지만 그가 피아노 앞에 다시 앉자 장내는 또 숙연해졌다. 마음 치유를 받을 준비를 한 것처럼 말이다.

방금 전보다 좀 더 깊은 피아노 선율들이 춤추기 시작했고, 수명이 다한 선율들은 그의 곁에 한 겹 씩 차곡차곡 쌓여 갔다.

호페가 아무리 신나게 내리쳐도 결국은 슬프게 전해졌다. 피아노의 선율은 왠지 모를 한(恨)을 머금고 있었고, 그래서 피아노는 사랑을 노래하기보다 우리네 삶을 더욱 연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슬픔은 우리를 짓누르는 처절한 슬픔이 아니라 기분 좋은 슬픔이었다. 한번 눈물을 펑펑 쏟아 낸 뒤 느끼는 카타르시스였다.

정목 스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비난과 판단치 말고, 그저 그것 자체로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모두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축복할 때 치유는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치유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라는 정목스님의 말은, 자신 곁의 파랑새를 두고 그것을 찾아 먼 길을 떠나 헤매던 우리에게 일러주는 삶의 정답과도 같았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세월과 고통, 그 안에서 품게 되는 사랑과 용서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생채기를 입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끝에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말하고, 또 누군가는 괴로운 시간이었다 말한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분명코 오늘 밤, 내가 선택한 이 공연장의 선율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치유가 되어 주었고, 내일부터 즐거운 소풍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선사했다.

앞으로 이런 엄청난 마력을 뿜어내는 유나방송이 20년, 30년 아니 영원히 존재하길 발원한다. 아울러 제2, 제 3의 유나방송 처럼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독거려줄 곳도 많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고, 또 치유를 고대하기 때문이다.

社說

미래세대委, 불교 메리트 찾아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서는 미래세대의 범위와 위원회 활동목적 등을 논의했다.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의견이 쏟아졌지만 그 중 받아들이기 불편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불자 대학생 중에 인재는 많지만 그 인재들이 불교계에서 봉사한다거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교계서 일하는데 '월급은 제대로 받느냐'고 묻는 친구도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역임한 이채은 대불련 간사의 말이다. 씁쓸함이 뒤따르는 타당한 진단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진단이 곧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교의 이미지다. 청년들은 불교계에 묻는다. 불교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일한 만큼 보람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는 불교계가 답할 차례다. 물론 "메리트를 위해 신앙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현재 한국불교가 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웃종교를 보자. 개신교만 하더라도 이제는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오지 않으면 친구 사귀기가 힘들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부처님 가르침만 알면 불교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상적인 말만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시대는 지났다.

불교를 믿음으로써 확실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쉬운 교육시스템과 문화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미래세대위원회가 불교의 메리트를 발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이유다.

청년 감소 불교, 대책 없나

흔히들 서울을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본다. 전체 인구 중 1/5이 살고 있고, 부자부터 빈민까지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에 사는 20~30대 청년 세대들의 종교 생활을 연구한 〈서울사회학〉 수록 논문 '청년세대, 피안은 어디인가: 행복 · 종교 · 세대의 관계성 탐색'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 많다. 특히 불교계에는 여러 부분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종교 인구 중 청년 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60세 이상의 고령 불자 인구가 22%를 넘는 반면, 청년 불자 인구는 한 자리대라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40대 장년층에서도 불교는 가톨릭에 밀려 3위 종교로 추락했다.

산술적 수치만 놓고 본다면 서울시 불교 인구의 확장성은 적신호가 아닌 '고사(枯死)' 수준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종교유형별 행복지수에서 불자 청년들은 10점 만점 기준 7.36으로 행복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사회 · 종교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도에서도 불자 청년은 불교를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어린이 · 청소년에서 대학생, 청장년, 노년으로 이어졌던 연령 포교 고리가 부재해진 지난 20~30년의 공백은 불교 미래 인구를 걱정할 수준으로 와버렸다. 보수화된 기성종교 · 교단이 아닌 다채로운 수련 단체들이 제공하는 명상 · 힐링 프로그램에 젊은이들은 몰린다.

이럴수록 근본을 다시 생각하자. 전법에 나서야 하고 수행정진해야 한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사부대중이 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그루터기가 돼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축

원융불교복지승가회

회 장 도현
부회장 효진, 도언
감 사 동호, 원담
사무총장 원표 사무처장 경덕

고 문 : 화 엄 원로위원 : 원 덕 자문위원 : 보 문


회장 도현

거송스님 : 사)해동 호국 조계종 총무원장(용주사)
경덕스님 : 사)대한불교 총화종 대해사 주지
대범스님 : 사)위양 조계종 교육위원장(현성사)
도명스님 : 사)삼보 조계종 사업 본부장(청학정사)
도언스님 : 사)법왕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약천사)
도현스님 : 사)한국불교 현조계종 총무원장(보현사)
동원스님 : 사)한국불교 달마조동종 총무원장(각명사)
동월스님 : 사)대한불교 보문조계종 총무원장(백화사)
동호스님 : 사)대한불교 육조 조계종 총무원장(성덕사)
명성스님 : 사)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상원사)
법륜스님 : 사)한국불교 법륜조계종 총무원장(해광사)
법성스님 : 사)전국불교 법성종 총무원장(법성사)
법원스님 : 사)대한불교 연화조계종 창종주(도솔사)
보문스님 : 사)한국불교 법왕종 총무원장(원월암)
성수스님 : 사)대한불교 현 조계종 포교원장(반야암)
성종스님 : 사)대한불교 현 조계종 총무원장(용문사)
영봉스님 : 사)대한불교 조동종 청광사주지
원담스님 : 사)세계불교 일화종 주지(서산사)
원덕스님 : 사)호국선불교 조동종 총무원장(연주사)
월성스님 : 사)대한불교 반야수교원 이사장(천불사)
일웅스님 : 사)대한불교 전법조계종 총무원장(청룡사)
자승스님 : 사)대한불교 자황종 총무원장(자황사)
정일스님 : 사)대한불교 선교종 자광사주지
철암스님 : 사)한국불교 명예의전당 이사장
화엄스님 : 사)대한불교 선교종이사장(화엄정사)
효진스님 : 사)호국불교 선미륵종 종정(선암사)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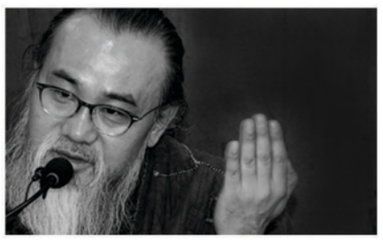
※ 원융불교복지승가회와 뜻을 함께하실 회원스님을 모십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1길 30-3 | ● 사무총장 원표 010-7771-2577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프리토킹 강좌

각설하고 覺說何故!



• 주제별 대본없이 강의하는
프리토킹 강사~진귀장자

공개강좌 일정표

1차 공개강좌	주 제 : 사 성 제 ||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2차 공개강좌	주 제 : 법화사상 ||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3차 공개강좌	주 제 : 반야사상 ||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4차 공개강좌	주 제 : 유식사상 ||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5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쟁사상 ||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6차 공개강좌	주 제 : 화엄사상 ||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

※ BTN 방송안내 : 본방 : 5/30(화) 오후12:30, 재방 : 6/2(금) 저녁 23:00, 6/3(토) 오후 15:00

※ 강좌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가능합니다. • 문 의 : 1899-9532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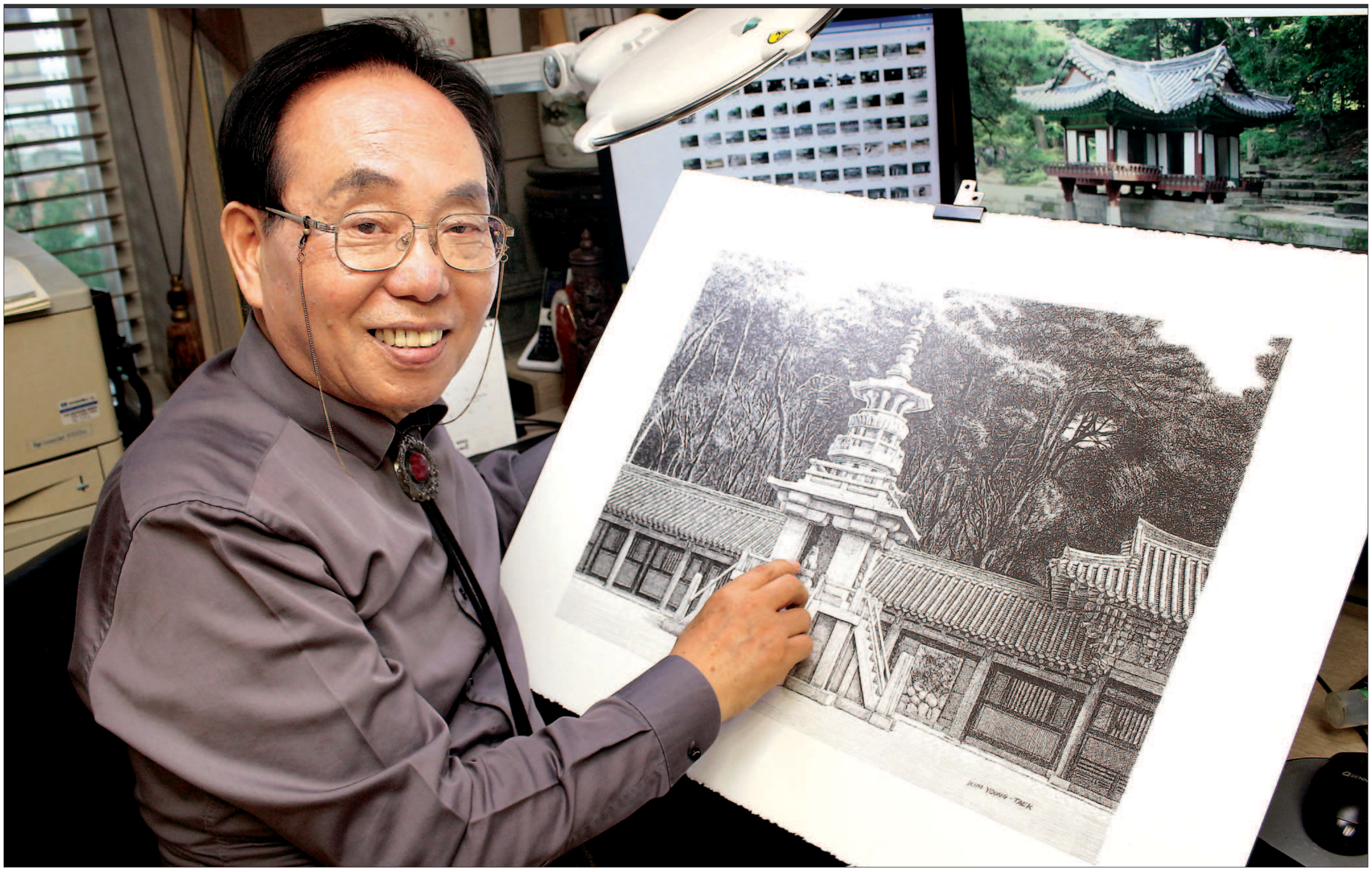
깨달음 山門

현대불교 Mandala

김호석 화백
한국작가 최초, 인도서 초대전 B5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제 1149 호 B1



김영택 화백은 불교건축물을 그리면서 인간 김영택의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수십만번 정교하게 그려야 완성되는 그의 그림처럼 오계를 지키고자하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도 철저해진 것이다. 타이트하게 올려진 타이슬링 만큼 펜화와 불자로서의 삶에대한 그의 완고한 철학이 느껴진다.

펜으로 '절' 그리고 그림 속에서 '나' 버려

산문 밖의 禪 김영택 펜화가 (72 · 한국펜화가협회 회장)

어린시절 지폐도 그린 손재주

유럽여행서 본 펜화에 매료

50때 디자이너 접고 펜화가 전향

20년 독학으로 새로운 펜화 개척

독보적인 '김영택 원근법' 개발

전국 돌며 불교건축 화폭에 담아

20여 년 동안 총 300여 점 그려

150여 점이 불교건축물

〈펜화로 읽는 한국문화유산〉 출간

"우리 건축 아름다움 알릴 것"

50만 번의 손이 가야 완성되는 그림이 있다. 마치 흑백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림은 붓 대신 0.1mm 내외의 가는 펜촉과 먹물만으로 그린 '펜화'다. 세밀한 펜촉의 한 획 한 획으로 그린 그림이다. 디지털 화상이 구현하는 '화소'와는 또 다른, 인간의 '화소'가 그린 그림이다. 그렇게 그린 그림이 300여 점. 한국 펜화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불교건축물을 비롯한 한국 전통건축물과 세계 건축물의 아름다움까지 펜화를 통해 알리고 있는 김영택 화백이 그 주인공이다.

새로운 미술을 열다

봉암사 일주문, 통도사 금강계단, 부석사 무량수전…. 천년 고찰들이 한 폭의 수묵화로 갤러리 벽을 채우고 있다. 먹물로만 그렸으니 분명 수묵화일 것이다.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수묵화와는 다른 수묵화다. 붓 대신 펜촉으로 그린 펜화다. 흑백사진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먹물펜의 굵고 가는 선과 사진의 망점처럼 점에 가까운 선과 선들이 모여 법당의 기와를 그려내고 처마의 공포와 일주문, 마당의 석탑을 그려낸다. 천년 절집과 정자, 서원 등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이 흑백의 펜 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2004년 6월 인사동 학고재 갤러리. 김영택의 펜화 초대전이 열렸다. 펜화 자체가 드문 전시였으며, 김 화백의 첫 전시였다. 전 작품 매진, 도록 556권 매진, 엽서와 포스터까지 매진. 김영택의 첫 전시는 한국 화랑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쏟아냈다. 내로라하는 작가도 전시에서 그림 한 장 팔기가 쉽지 않은 때였다.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김영택의 그림 100여 점은 모두 팔렸다. 김영택의 펜화는 그렇게 미술의 새로운 한 시대를 열었다. 김 화백이 펜화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었다.

지폐도 '그림'이었던 아이

김 화백은 어려서부터 그림 잘 그리는 아이였다. 미술을 좋아했던 김 화백이었으나 다른 미술학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 평범한 그림 보다는 세밀하게 그려야 하는 그림에 관심이 많았다. 중학생이던 김 화백은 어느 날, 펜과 잉크 그리고 물감으로 지폐 한 장을 완성했다. 뒷면이 없는 지폐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김 화백이 그린 지폐에 깜빡 속았다. 그 일로 김 화백은 부친으로부터 엄한 꾸중을 듣기까지 했다. 하지만 중학생 김영택이 그린 지폐는 돈이 아니었다. '그림'이었다. 그는 그렇게 깊이 관찰하고 세밀하게 그리는 일을 좋아했다.

"아마도 전생부터 이어진 것 아닌가 싶어요.(웃음) 지나온 생 어딘가에 지금의 김영택이 이미 있었고, 그때 이루지 못한 것을 여러 생에 걸쳐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20년 넘게 펜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죠."

김 화백은 한 획 한 획 사경하듯 화폭에 선을 그려 넣다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렇다. 김 화백의 그림 한 점이 완성되기까지는 평균 50만 개의 선을 그려야 한다. 그것도 돋보기를 놓고 보아야 할 정도로 작고 섬세한 선들을 그려야 한다.

변상도를 그려내는 사경과 다를 바 없다. 적게 걸려도 꼬박 보름 낮밤으로 그려야 한다. 답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더하면 많게는 6개월도 걸린다. 정성과 끈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을 힘들어 하지 않고 20년 넘게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할만도 하다. 숙연과 숙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폐도 그림으로 보았던 아이. 그 아이는 훗날 한국 펜화의 명인이 된다.

펜화를 만나다

홍익대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한 김 화백은 1972년부터 제일기획, 대한항공, 나라기획 등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거쳐 1977년 종합 디자인 회사인 홍인디자인그룹을 설립한다. 17년 간 국내 40여 기업의 CIP 시스템을 개발했다.

김 화백은 제품 디자인을 비롯하여 건축디자인 분야에서까지 명성을 얻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가 된다. 김 화백은 1993년 ITC(국제상표센터)에서 선정한 '디자인 엠배서더'에 선정된다.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 54명이 선정되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김영택 화백이 유일했다. 그렇게 김 화백은 디자이너로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다. 디자인 엠배서더로 선정된 김 화백은 1994년 벨기에 오스탕드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 로고 디자인 비엔날레'에 초대를 받는다. 비엔날레에 참석하기 위해 들렀던 프랑스에서 김 화백은 인생의 전기를 맞는다. 펜화를 만난 것이다. 루브르박물관과 세느강가 고서점에서 보게 된 펜화에 김 화백은 완전히 매료됐다.

"그 때 결심했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던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재를 펜화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화백의 나이 50이었다. 잘 나가던 디자이너 김영택은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접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걷기로 결심한다.

"디자이너로서 절정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것이 없었어요. 나의 세계가 없었어요. 그 때 펜화를 만난 거죠."

펜화로 전환한 김 화백은 펜화가로서도 세계에 우뚝 서고 싶었다. 유럽의 펜화를 넘어서고 싶었다. 하지만 스승이 없었다. 김 화백은 스스로 기법을 만들었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구와 재료를 구했다. 김 화백은 디자인 회사를 부업처럼 경영하며 주말이 되면 배낭을 메고 전국의 건축문화재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주말 이틀 동안 현장에서 작품 한 점을 완성하고 저녁차로 올라오곤 했다. 김 화백은 점점 펜화에 빠져들었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는 수렁으로 빠져갔다. 경영 상태가 좋을 리 없었다.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고 채권자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훗날 생각해보니 그 어려웠던 시절이 펜화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준 것 같아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깊은 산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전생에 불모(佛母)"

2002년, 김 화백이 펜화를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을 때였다. 여전히 김 화백은 전국을 돌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양산 통도사에 들렀을 때였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4
출판
원인 스님의 〈삶의 지혜〉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김영택 펜화가의 대표작들

① 금강산 보덕암
② 달마산 미황사
③ 불국사 다보탑(난간복원)
④ 통도사 대웅전

그림 한 장 한 장이 또 하나의 문화유산



연세대에서 강연하는 김영택의 모습.



김영택 화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를 졸업했다. 1972년부터 제일기획, 대한항공, 나라기획 등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거쳐 1977년 종합 디자인 회사인 홍인디자인그룹을 설립했다. 세종대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1993년 국제상표센터가 선정하는 '디자인 엠배서더'에 선정됐다. 이후 펜화가로 전향하여 20년 넘게 펜화를 그리고 있다. 총 300여 점의 작품을 그렸으며 10여 회의 초대전을 열었다. 저서로는 〈펜화로 읽는 한국 문화유산〉,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 등이 있다.



김화백의 작품은 국빈 선물로도 사용됐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사진 왼쪽)이 펑리위안 여사에게 김화백의 작품을 전달하고 있다.

'김영택 펜화가'

B1면에서 계속

통도사를 둘러본 김 화백은 통도사를 전부 그리고 싶어졌다. 뜻이 있으면 길도 있었다. 김 화백의 그림으로 통도사 캘린더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날부터 김 화백은 1년 반을 통도사에서 살게 된다.

"저녁 때 범종소리와 법고 소리가 들려오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코끝이 뜨거워졌어요. 종소리와 북소리를 기억하며 이튿날 아침 그림을 그렸어요."

2003년 통도사 캘린더는 그렇게 김 화백의 펜화로 만들어졌다. 캘린더는 그야말로 '히트'였다. 여기저기서 캘린더를 더 보내달라고 아우성이었다. 통도사는 다음 해 캘린더도 김 화백에게 맡겼다. 다음 캘린더의 그림은 영산전 팔상도였다.

"영산전 팔상도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대중 스님 한 분이 오셔서 팔상도를 가리키며 '그거 당신이 그렸던 거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전생에 통도사 화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상도를 제가 그렸다는 겁니다."

통도사 영산전의 팔상도는 1775년 유성 스님의 그렸다. 유성 스님은 조선 3대 불모 중의 한 분이다. 스님의 말대로라면 김 화백은 전생에 유성 스님이었던 것이다. 스님의 이야기가 어떤 근거에서 왔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앞서 김 화백이 말했던 전생의 근거가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무튼 김 화백은 통도사에 머물면서, 통도사를 그리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

"저의 그림은 통도사 이전 그림과 이후의 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도사를 그리면서 기법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죠. 발전한 거죠. 통도사 그림부터 저의 그림은 훨씬 세밀해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화백은 현장에서만 그림을 그렸다. 해가 지면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절집의 저녁은 일찍 시작되었고, 김 화백은 밤엔 할 일이 없었다. 김 화백은 그 시간이 아까웠다. 밤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김 화백은 다음 날부터 그려야 할 대상을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을 보면서 밤에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김영택의 펜화는 이때부터 많은 변화를 하게 된다. 작업의 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림이 더 세밀해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림은 더욱 깊어졌으며, 실내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림의 크기가 커질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잉크 대신 변하지 않는 먹물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펜화가 김영택이라는 이름을 불가(佛家)에 알린 것이다. 그렇게 불가에 이름을 적게 된 김 화백은 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 김영택으로서도 많은 변화를 하게 된다. 아니 변화라기보다는 다짐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때까지의 생활도 그랬으나 김 화백은 좀 더 빳빳한 생활을 하기로 새롭게 다짐한다. 전생의 이야기도 그렇고 절에 살면서 삶에 대한 생각을 더욱 진지하게 된 것이다. 김 화백은 지금도 오계를 철저히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한다.

5계 지키는 생활로 신행생활

50만 번 선 그려야 그림 한 점

"그림 그리다보면 '나' 없어져"

무색무취, 무아 화법으로 수행

"전생에 통도사 화승이었을 것"

"오계만 지키고 살아도 훌륭한 삶입니다. 하지만 오계만 지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무색무취, 무아의 화법은 수행

김영택 펜화의 반향은 '센세이션'이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다. 6개월에 걸쳐 완성한 황룡사구층대탑을 보면 입을 다물 수 없다. 30배 확대경 없이는 그릴 수 없는 0.03mm의 선들로 그려진 황룡사구층목탑은 그 옛날 지폐를 그림으로 그렸던 아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아이는 이제 펜으로 절을 짓고 궁을 짓고 정자를 짓는다. 김영택, 그가 생각하는 그림이란 어떤 것일까.

"내 자신이 무색무취일 때 진정 다른 사물의 본래 모습을 화폭에 담을 수 있죠. 김영택이 바라본 사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화폭에 옮기는 것이죠. 김영택이라는 '나'를 철저히 버려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 김영택의 그림에는 김영택만의 화법이 있다. '김영택 원근법'이 그것이다.

"펜화를 그리면서 사진이나 서양화의 원근법과 인간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 특성에 맞추어 김영택만의 도법을 만들었죠."

김영택 원근법을 볼 수 있는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은 '해남 미황사'다. 대웅전의 배경인 달마산을 15%쯤 확대하고, 달마산의 특징인 입석들을 강조했다. 사진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받았던 감흥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금강산 신계사, 진천 보탑사 등 많은 작품이 김영택 원근법에 의해 그려졌다.

김 화백은 서구에서도 맥이 끊긴 펜화의 전통을 한국적 펜화로 재창조했다.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위해 50만 번에서 70만 번의 선을 그린다. 1mm 안에 5번의 선을 그리는 극도의 세밀함이 요구되는 그림이다. 가는 펜으로 정성스럽게 그려낸 그의 그림은 사진처럼 정교하면서도 그림이 지닌 미학의 차원을 새롭게 끌어올렸다. 그렇게 정성과 끈기로 그려야 하는 작업을 김 화백이 쉼 없이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림 그리는 일 자체를 신행이고 수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보다 더 좋은 수행이 어디 있을까요. 대웅전의 기와와 꽃살문, 마당의 석탑, 공포의 단청, 처마 끝의 풍경. 그 셀 수 없는 선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다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없어지죠. 수행이 따로 없죠."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 알리고 싶어"

"저의 펜화를 통해 우리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김 화백은 얼마 전 〈펜화로 읽는 한국문화유산〉을 출간했다. 그가 20년 넘게 전국을 돌며 그려온 그림 중 %점을 담았다. 모두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그린 그림들이다. 김 화백의 서원처럼 흑백의 펜화는 사진이나 다른 그림에서 느낄 수 없는 느낌으로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김 화백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소실되고 퇴색된 부분을 자료를 통해 복원해서 그림을 완성한다. 이런 부분이 사진이나 다른 그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김영택의 그림 한 장 한 장은 문화유산을 기록한 또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김 화백은 3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 그 중 150여 점이 불교건축물이다. 김 화백의 그림을 보면 우선 그림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마음이 끌린다. 그 수고와 결실에 마음이 출렁인다. 다시 세운 황룡사구층대탑, 1920년대 쌍봉사, 한국건축의 백미 부석사 무량수전, 우리 불교의 소중한 유산을 정성스럽게 그려낸 그의 그림 앞에 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법당의 기와 한 장이 소중한 불사인 것을 생각한다면 김 화백이 그린 그 셀 수 없는 기와들을 무어라 해야 할까. 김 화백은 통도사 스님으로부터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이 불모였음을 믿기로 했다고 한다. 전생에 못 다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도 화가 김영택은 산사로 향한다. **박도일 수필가**



진흙 먹으며 반주삼매 성취… 짐승까지 제도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⑪ 정토종 제3조 승원 대사

신도에겐 쉬운 칭명염불 권해
자비실천에 주변 저절로 감화
'지금 여기' 만큼 '생사해탈' 중요

아미타불(자성불)이 염불하고 아미타불이 듣는다.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고 부른다." -리처드 바크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 더 이상의 생명활동은 없다는 '단멸론'과 윤회를 통해 생이 이어진다는 '윤회론' 중 한 가지 견해를 갖기 마련이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윤회를 인정한다면 '생사(生死)'를 애벌레가 의식의 진화를 통해 나비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볼 것이다. 반면, 윤회를 벗어난 깨달은 붓다(自性)의 입장에서는 생도 없고(不生) 죽음도 없다(不滅).

이런 후자의 입장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불생불멸의 존재가 바로 무아(無我)인 동시에 대아(大我)인 '참나'이다. 자성불의 입장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無始無終) 우주가 다름 아닌 우리의 참모습이다. 무한한 빛(無量光佛)이자 무한한 수명(無量壽佛)이 우리 '본래 얼굴'(本來面目)이다. 법장 스님이 성불하여 되신 아미타부처님이 우리의 자성불과 둘이 아니다. 아미타불이 염불하고 아미타불이 염불을 듣는 도리이다.

살아서는 현실정토를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오온의 몸을 벗고서는 육도윤회를 벗어난 서방정토에 화생하여 불퇴전지보살로서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한 후 구경에는 성불하는 가르침이 바로 정토법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혜원-선도 대사에 이어 정토종의 제3조로 추대된 승원(承遠) 대사의 염불수행과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버린 음식 씻어먹으며 반주삼매 증득

승원 대사의 생존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당나라 현종(712-756) 당시라고 한다. 지금부터 약 1,250여년 전 중국 형산(衡山)이란 지방에 계셨던 분이다. 당시 형산 서남쪽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밑이 널찍하게 비어 있었다. 대사께서는 거기에 조그만 움막집으로 암자를 지어 살면서 지극 정성으로 염불정진을 하셨다.

이때 대사께서 닦은 삼매는 가장 대표적인 염불삼매인 반주삼매(般舟三昧) 즉, '지금 바로 부처님이 눈앞에 현전하는 삼매(佛立三昧)'다. 후한(後漢)의 지루가참(支婁迦讖)이 197년에 번역한 정토종의 가장 선구적인 소의경전인 〈반주삼매경〉에 따르면, 염불행자가 7일 또는 90일(석달) 기간을 정해 몸(身)·입(口)·뜻(意)의 세 가지 업으로 마음을 가다듬어 바르고 온전하게 한 다음 부처님을 마음에 떠올리고 삼매에 들어가면, 모든 부처님들이 수행자 앞에 현전(現前)하여 눈앞에서 부처님의 교화를 받는다는 법문이다.

살아서 부처님 친견하고 임종시 접인을 받는다

반주삼매를 닦는 구체적인 행법에 대해 정토종 제2조 선도 대사는 〈관념아미타불상해삼매공덕법문(觀念阿彌陀佛相海三昧功德法門)〉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도량에서 밤낮으로 마음 단속을 이어가며 전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고 마음과 소리가 이어가되, 오직 앉고 오직 서서 7일간 잠을 자지 않으며, 또 때에 맞춰 예불 독송하며 염주도 잡을 필요없이, 단지 합장 염불만 알고 염념이 견불(見佛)하는 생각을 지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미타부처님 진금색신의 광명이 철저히 비추고 견줄 바 없이 단정함을 그리워하면 심안으로 현전함을 볼 것이다.'"

이러한 반주삼매에 대해 인광 대사는 "반주삼매를 수행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기 어렵고, 임종시 부처님의 접인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반주삼매는 살아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임종시 부처님의 접인을 받는 최고의 염불수행법인 것이다.

염불삼매 증득 후 신도들에게 칭명염불 권해

승원 대사는 담란-도작-선도 대사가 그러했듯이, 당신 스스로는 밤낮 없이 반주삼매를 닦는 한편, 생업에 종사하는 신도들에게는 간단하고도 쉬운 칭명염불을 권하였다. 저녁으로는 인근 마을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시고는 간곡히 염불을 권하며, 이 사바고해를 여의고서 안락국(극락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무량한 행복을 누리라고 가르침을 주었다.

대사의 움막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무소유'의 실천 그대로였다. 이상하게도 대사는 밥을 짓는 법이 없으며 또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일도 없었다. 다만, 마을에 내려갈 때 사람들이 버린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먹었으며 또 그러한 음식마저 없을 때는 진흙을 먹고 정진했다는 것이다. 진흙에 미네랄이 풍부해 간혹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시로 먹었다고 하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옷도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서 깨끗이 빤 후 기워서 누더기로 입었다.


〈승가불조진영〉에 실린 승원대사 진영

무소유 실천하며 염불로 짐승까지 구제

시주에게 시은(施恩)을 짓지 않으시려고 그런 생활을 해나가시면서도 항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방편을 실천했다. 마을 입구나 길가에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커다란 글씨로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쓰거나 새겨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읽고서 선근(善根) 공덕을 짓게 했다. 들이나 산중에 가며 축생을 보면 염불하며 왕생극락을 빌었고, 위험에 빠진 짐승이나 물고기를 보면 꼭 건져 주며 염불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발원했다.

언제 어디서나 염불행과 설법으로 무아(無我)를 실천하며 축생까지 구제하는 자비행을 보였으니,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한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대사는 평생 진심(嗔心) 한 번 낸 적이 없으며,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해본 적이 없이 오직 선심(善心)으로 평생을 살아 작은 계율조차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인근 마을 사람들도 대사의 인자한 마음에 저절로 감화가 돼 모두가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염불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이 수년을 교화하자 더욱 많은 신도들이 울력(雲力, 자원봉사활동)으로 미타사(彌陀寺)를 지어드려 수많은 불자들이 내왕하면서 정토수행을 하게 된 것이다. 대사의 덕망(德望)이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지자 교화를 받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졌다.

혹, 신도들이 좋은 옷과 음식을 해 드리면 대중에게 나눠 주거나 가난한 마을 사람에게 갖다 주고는 부지런히 염불하여 다시는 이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지 말고 서방정토에 태어나라고 간곡히 권해주고 갔다.

아미타불도 칭찬한 극락세계 보살의 화현

승원 대사의 불가사의한 수행담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사는 이 세상에 생존해 있으면서 동시에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부사의(不思議)한 분이었다. 훗날 정토종 제4조로 추존된 법조(法照) 스님이 한번은 정(定: 삼매)에 들어 극락세계를 보게 되었다. 이때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부처님 곁에 옷이 아주 남루한 차림을 하고 서있는 분이 있었다. 그래서 법조 스님은 속마음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다른 분들은 모두 호화로운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 스님은 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자 아미타부처님이 법조 스님에게 물었다.

"네가 이 스님을 알고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스님은 너의 나라 형산에 있는 승원(承遠)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참으로 장한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이니, 네가 꼭 찾아가서 뵙도록 하거라."

아미타부처님의 당부를 듣고, 법조 스님은 출정(出定: 삼매에서 깨어남)한 즉시 형산을 찾아가서 승원 대사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 바위 밑 움막집에서 혼자 있는 대사를 친견하고 보니 과연 삼매 중에 극락세계에서 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법조 대사는 환희심으로 제자의 예를 갖추고 모든 수행법을 자세히 묻고 배움으로써 대를 잇는 정토문의 조사가 됐다.

삼매 속에서 극락의 승원대사 친견한 법조 스님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아마도 승원 대사는 가난한 스님의 몸을 빌어 중원에 왔지만, 실은 극락정토 보살의 화신으로 사바세계에 화현해 아미타부처님의 법을 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법조 대사처럼 삼매 속에서 아미타부처님과 극락세계를 친견한 사례는 반주삼매를 닦아 성취한 정토 조사스님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일들이다.

정토종 초조인 혜원(慧遠)법사가 삼매 속에서 3번 부처님을 친견한 사실, 3조 승원 대사와 4조 법조 대사가 16묘관(妙觀)을 닦을 때 항상 삼매 중에 극락에서 아미타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들은 사실 등은 전형적인 반주삼매의 도과(道果)인 것이다.

아미타부처님도 칭찬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법력을 보인 승원 대사는 91세까지 중국에 정토법문을 널리 전하고, 다시 극락세계로 돌아갔다. 대사가 왕생하셨다는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마치 부모가 세상을 떠난듯 애석하게 여기며 남녀노소가 모두 나와 대사의 장례를 모셔드렸다고 한다.

작은 행복보다 생사해탈의 열반 추구해야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어서 우리 일생은 꿈결같이 흘러가고야 만다. 그런데, 요즘 명상이나 힐링 붐이 불면서 '지금 여기'의 행복을 강조하는 수행방편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지금 여기'의 삶을 외면하고 죽음 이후의 왕생만을 강조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일국의 왕자로서 모든 부와 권력, 명예와 쾌락을 향유했음에도 그 행복을 버리고 출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지금 여기'의 소소한 행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온의 몸(五蘊身)을 버릴 때 식신(識神)은 또 어디로 윤회할 것인가를 깊이 반문해봐야 한다. 부디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바로 보고 '생사해탈'이란 불교의 대의를 되새겨,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인 정토법문을 참구해 보시길 바란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5.24~2017.5.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선 수행 40년 원인 스님 〈금강경〉 핵심 해설서

삶의 지혜

원인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8천원



〈금강경〉은 조계종 소의경전이자, 〈반야심경〉과 더불어 우리나라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이다. 이 책 〈삶의 지혜—선 수행 40년의 원인스님 금강경 요점 강설〉은 부제서도 알 수 있듯, 철저하게 선(禪)의 관점서 금강경을 해설한 책이다. 지금까지 간행된 금강경 해설서들은 교학적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 책처럼 선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석한 책은 매우 드물다. 또한 장마다 원인 스님이 직접 쓴 서시가 삽입되어, 각 장의 핵심을 함축적이고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이 책의 저자 원인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前 종정인 법전스님 제자로,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후 40여 년 동안 청암사 수도암서 좌선한 이 시대의 진정한 선승이다. 선(禪) 수행에 반평생을 바친 원인 스님은 수도암 선원장 소임을 맡으면서 1년 동안 선원 대중들에게 선문 제일의 경전인 금강경을 강설했다. 이번에 간행된 이 책은 1년간의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금강경을 해설한 이유

금강경의 본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이다. 금강경은 육조혜능 선사가 금강경 첫 4구게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서 깨달은 이후, 선의 사상적 경전이 되었다. 이후 많은 선승들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을 달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통강원의 교과서인 금강경오가해(五家解)이다. 원인 스님의 금강경 강설은 함허 선사의 금강경오가해와 감산대사의 금강경을 참조하고, 구마라습의 금강경을 기본으로 현장법사의 금강경을 대조하면서 금강경 32장의 개요를 강설한 것이다.

공(空)이라는 진리를 체달한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로 구성된 금강경은 반야심경(般若心經)과 더불어 대중에게 널리 독송되지만, 경전의 사상적 깊이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시중에 나온 금강경 해설서들은 '교학적'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이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오하고 어려운 것으로 오해하거나 금강경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그저 소리로만 듣고 넘길 뿐이었다.

원인스님은 이 책의 첫 장인 '금강경 이란 무엇인가'의 '산승이 금강경을 강설하는 이유'서 금강경을 강설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저자가 금강경을 강설한 이유

금강경 문자와 지식 전달 차원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바라봄
모든 사람에게 불교의 종지를 바르게 깨우쳐 주기 위해 정리
금강경을 현실에 적용해 모든 고뇌 초월하고 행복한 삶 유도

첫째, 선적(禪的)인 차원서 금강경의 요점만을 강설해 모든 사람에게 불교의 종지를 바르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다.

둘째, 간결하지만 산승만이 가진 독특한 강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금강경을 현실에 적용해 모든 고뇌를 초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원인 스님이 금강경을 선적인 차원서 강설한 것은, 금강경을 문자와 지식 전달 차원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 스님에 따르면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이 나왔다는 것이다. 수보리는 "부처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아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며 진리가 되느냐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된 가치관으로 일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간다. 참된 지혜가 없는 중생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득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 인생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갖는 부처님께서 완전하고 명쾌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 스님은 대중들이 부처님 가르침(금강경)을 잘 배워 더 이상 망상에 속지 않고 경계에 속지 않는 진정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1년 동안 금강경을 강설했던 것이다. 스님은 "만일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본다면, 내가 곧 일체라 부처와 중생이 차별 없는 절대경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원인 스님은 각종 이기주의와 이원적 논리로 인하여 마음병이 깊어진 현대인들을 위한 치료제로 의왕(醫王)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중에서도 금강경의 가르침을 꺼내들었다. 위대한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인 금강경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완전한 지혜를 찾고자 했다.

선의 관점으로 해설한 금강경 사구게

원인 스님은 다음과 같이 금강경 사구게를 번역 · 해석한다.

원문 :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번역 : 무릇 존재하는 모든 상이란 모두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상을 볼 때 거기 아상을 두지 않으면 곧 여래를 보느니라.

여기서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에 대한 원인 스님의 해석에 주목해 보자. 다른 번역서에서는 대부분 이 구절을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보면"이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원인 스님은 이런 번역이 문맥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번역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이 상 아닌 줄 보라"고 하면 앞의 상과 뒤에 나오는 상에서 문맥상 모순이 되고 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원인 스님은 금강경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과 같이하기 위해 견(見) 자를 먼저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장 본 사구게를 예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스님에 따르면 현장 본의 '여시이상비상(如是以相非相)'을 보더라도 구마라습의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은 견(見) 자를 먼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인 스님은 금강경 사구게의 이 구절을 "모든 경계를 대할 때 아인사상을 두지 않는다면 곧 여래를 본다는 말"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는 금강경 제14장 이상적멸분에 나오는 "일체 상을 떠나면 그것을 여래라고 한다."는 구절과 연결된다.

모든 상을 보되, 거기 아상이 없으면 곧 부처를 본다는 원인 스님의 해석은 매우 독창적이다. 원인 스님이 금강경서 발견한 최고의 '삶의 지혜'는 아상(我相)을 깨는 것이다. 아상을 떠난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참모습, 나의 참뜻을 깨우치고, 진실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주의해야 하는 마음

아상을 깨는 것은 수행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은 대개 발심하고 열심히 수행 하면 저절로 업력의 장애서 벗어나고 아상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로 아상이 늘어나고 타락하는 경우도 많다. 수행자들이 아상을 갖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원인 스님은 "아상이라는 바탕 위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 끝내 밥이 될 수 없듯이 결코 정상적인 수행이 될 수 없고 바른 결과를 이룰 수도 없다"고 말한다. 누구나 열심히 수행을 하면 도의 견처를 얻지만 문제는 여기서 아상을 놓지 못하면 수행이 깊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깊은 숲에서 발원한 82개 아포리즘

선가귀감

신지견 지음 | 새움 펴냄 | 1만 3천원



세상에는 마음을 적시는 아포리즘(aphorism)이 허다하다. 말하는 이의 체험이 깊을수록 아포리즘은 간결해지고, 보는 이들은 강력하게 감화된다. 그런데 체험의 깊이를 말할 때, 2500년 불교의 선적(禪的) 경지를 빼놓을 수 없다. 몰아(沒我)와 망언(忘言)의 경지서 나온, 일상의 언어를 훌쩍 뛰어넘은 언설(言說)들, 절제된 그러나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말, 말, 말…. 어쩌면 불합리한 일이지만 불립문자(不立文字)의 틈을 비집고 나온 선적(禪的) 언어들은 세월을 넘어 쌓이고 쌓이면서, 생소한 경지를 열어젖힌다.

선시와 선문답, 첨단 물리학을 동원한 재해석
서산의 속내를 꿰뚫는 소설가의 유려한 해설
경계 없는 상상과 투철한 문헌 고증 '돋보여'

깊은 숲, 고적한 산사(山寺)로부터 발원한 그 선적 언어들 가운데 주옥이라 할 82개 문장을, 멀리 조선 중기의 선사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이 뽑았다. 82개의 원문에 시(송)와 산문(주해 · 평)으로 해설을 달았고, 그게 선사들이 애독, 애송하는 〈선가귀감(禪家龜鑑)〉이다. 평안도 묘향산에 오래 기거해 서산(西山)으로도 불리는 휴정은 유 · 불 · 선에 능하고, 선(禪)과 교(敎)에 두루 능통한 이였다. 그는 또 어떤 말이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지 잘 아는, 텍스트에 대한 예민한 감식가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축적된 팔만 경전의 바다에서 그가 건져 올린 원문들, 그리고 그가 시와 산문으로 붙인 해설이 현대인의 마음까지 관통하는 궁극의 아포리즘이 되는 이유이다.

〈선가귀감〉 번역은 처음이 아니다. 고전인 만큼 스님들과 불교 연구자들의 번역이 제법 여럿이다. 그러나 이번 〈선가귀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번역과 차별화된다. 선(禪)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소설가 원전의 묘미를 살리는 한편으로, 서산의 속마음을 꿰뚫는 유려한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역해자인 신지견은 대하소설 〈천년의 전쟁〉 작가다. 현재 1, 2권이 나온 〈천년의 전쟁〉은 서산의 사유와 깨달음 그리고 행적을 대담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이다. 작가는 집필을 위해 〈전등록〉과 〈선문염송〉 등 선불교의 경전을 헤맸으며, 조선 선승들의 발걸음을 좇아 전국의 산하를 유랑하듯 답사했다. 불교계는 이 소설이 나오자 "선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그 어떤 불교 이론서보다 심도 있게 그려냈다"고 평했다. 서산과 〈선가귀감〉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통찰을 가진 작가의 번역과 해설인 것이다.

첨단 물리학과 심리학에 대한 역해자의 식견도 괄목할 만하다. 새롭게 번역, 해설된 〈선가귀감〉을 통해 역해자는 아인슈타인, 융 등 걸출한 현대 학자들의 견해를 녹여냈다. 동서와 고금을 넘나드는 해설을 통해 깊은 산속의 경전인 〈선가귀감〉은 현대인의 마음속을 종횡무진할 동력을 얻는다.

〈선가귀감〉을 관통하는 사유는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서산은 또 "말없이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 선이요,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 교"라고 명쾌하게 정리한다. 〈선가귀감〉 후반부에는 임제종 · 조동종 · 운문종 · 위앙종 · 법안종 등 선종 각 종파의 법맥과 가풍이 일목요연히 정리돼 있다. 〈선가귀감〉은 이처럼 불교의 핵심을 찌르는 특유의 간략과 압축으로 오랫동안 선 수행의 교과서 역할을 해왔다. 역해자의 경계 없는 상상과 투철한 문헌 고증은 〈선가귀감〉의 그 같은 본령을 더욱 확실히 부각시킨다. 생소할 수도 있는 불교적 언어를, 현대인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로 전달해준다. 역해자 신지견은 "번역과 해설 모두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쉽게 읽히는 내용으로 바꾸어보려 했다"며 "그 방향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원효 탄생 1400주년,
원효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

-원효사상의 새로운 성찰, 인도 및 중국 불교와의 만남

한국 불교의 바깥에서 바라본 원효!

주로 한국불교의 맥락에서 연구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도 및 중국불교의 주요한 사상들과 원효사상을 비교 연구하여, 원효 이해의 지평과 원효사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권오민, 이병욱, 김도공, 김성철, 배경아
신국판/무선/336쪽/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선禪과 현대미술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작가 〈윤양호의 33회 개인전〉

작품집
ZEN AND MONOCHROME
(선과 단색화) 출간 기념 전시



서양에서의 현대미술은 선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禪적 지향이 뚜렷하다. 한국의 윤양호는 그 접점에 서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아우르면서 그만의 독창성이 어우러진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B3판/양장/244쪽/50,000원/운주사

윤양호: 독일 국립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선조형예술학과 교수이다.

기간 : 2017.05.10-15
장소 : 인사아트센터 | 본전시장(1F)
Tel (02) 736-1020

한국화가 김호석의 '황희' 인도로 가다

김호석 화백,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

초대전 '빛 속에 숨다' 6월 25일까지
한국 작가로는 최초, 전 세계 2번째
38년간 작품 '황희' 등 83점 전시
미물 소재 신작 30점 최초 공개도

성철 · 법정 스님과 노무현 前 대통령 초상을 수묵담채로 그려 유명한 한국화가 김호석 화백(60)이 한국인 작가로는 처음으로 인도 뉴델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 전시관에서 해외 생존 작가가 개인전을 여는 건 독일 작가 레베카 호른 이후 김 화백이 두 번째다.

김호석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지난 38년간 작품생활을 오롯이 드러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화백에 따르면 데뷔한 1979년부터 현재까지 그린 작품을 한 자리에서 전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없던 일이다.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83점을 선보이며, 이중 최근 4년간 벌, 애벌레, 물고기 등 미물을 소재로 그린 신작 30점은 국내외에서 최초 공개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신작에는 미꾸라지와 그 지나간 흔적을 그린 '법의 한가운데', 여왕벌 한 마리와 뒤집혀있는 수벌들을 그린 '한밤의 소' 등이 포함된다. 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인간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치는 자연의 본질과 생명의 지극함을 고스란히 담아내 인도 현지 관계자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 화백은 작업노트를 통해 "미물은 인간 기억 너머에 이미 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기억이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싶었다"면서 "미물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 가장 미천하다 생각한 것들은 미천한 것이 아니다. 미물들 모두가 여백이다"고 표현했다.

또한 김 화백은 "최근 우리 사회는 보이는데 안 보이고, 뻔히 드러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고도의 서술을 보았다"며 "바퀴벌레, 벌, 개미 등 미물을 그리면서 이성적인 것들과 이성을 넘어서려는 표현, 설명을 줄이고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희망이었지만 어려운 멍에이기도 했다"고 소회했다.

이밖에 김 화백의 대표작 중 4개의 눈으로 잘 알려진 '황희'(1986)와 손자를 등에 업고 놀아주는 할아버지 모습을 표현한 '풀들은 늙지 않는다'(2002) 등도 전시된다.

아드와이타 가다나야크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그의 작품에서는 내적 에너지와 영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인도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한국 철학뿐 아니라 한국과 인도 문화의 공통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또한 메그나 비야스 아로라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찾아 음미하게 하는 한편, 숨겨진 진실에 대한 탐구와 깨달음을 자극한다"며 "개개의 작품들은 꿈의 기억과 연결돼 세상에 반향을 이끄는 일상의 흔적을 찾아간다"고 소개했다.

이번 전시 '빛 속에 숨다'는 6월 25일까지 이어진다.

김호석 화백은 동양화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전통 초상화의 권위자로서 '배채법'을 화면에 실현하는 극히 드문 수묵화가로 평가받는다.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의 큰스님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영정 작업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 갤러리, 아라리오 갤러리 등에 김 화백의 작품이 소장돼 있다. 본지에 '김호석의 화폭 속의 선지식'을 연재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기억은 기억한다, 종이에 수묵 채색, 142×142㎝, 2017.



4개의 눈으로 잘 알려진 김호석 화백의 대표작 '황희'〈사진〉를 비롯해 38년간 작품세계를 총망라한 작품 83점이 인도 뉴델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6월 25일까지 전시된다.

부처님의 소리 한곳에 모아 깨달음의 길로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깨달음을 찾는 소리~'

국립대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2017 상반기 특별전시 '깨달음을 찾는 소리, 소리로 찾은 진리'를 7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문화에 담긴 유무형의 소리를 모으고 그 소리에 담긴 참뜻, 깨달음의 진리와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울림響, 소리로 일깨우다'는 처마 끝 풍경소리, 새벽과 저녁의 범종소리, 법고 · 목어 · 운판 등 불전사물 소리 등을 모은 공간이며 2부 '말씀言, 글소리로 깨우치다'는 진언 등 부처님 말씀을 소개하는 자리다.

이밖에 3부 '나타남應,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다', 4부 '수행悟, 깨달음을 찾아가다' 등이 펼쳐진다.

전시품 중에서는 '소리'와 연관 있는 다수의 국보도 함께 소개돼 눈길을 끈다.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 국보 제211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7, 보물 제1303호 〈백지금니금강 및 보물발원〉, 보물 제1801호 및 제1802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복장유물 및 복장전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이 전시된다.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 **사진제공=국립대구박물관**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은 정면에 불보살이 배치되고 측면에 8인의 천인이 있는데 천인들이 피리, 생황, 비파 등 연주하며 서방정토를 소리로 장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7에는 위험에 처한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염원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편 이번 전시 기간 중에는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의 특별 강연 '일상에서의 깨달음, 퇴옹 성철 스님을 만나다'도 진행된다. 6월 10일 오후 2~4시 국립대구박물과 강당. (053)760-8542

박아름 기자

임지현 작가 개인전 '자신의 작용'

6월 13일까지 스페이스선+에서

임지현 작가의 개인전 '자신의 작용(What It Does)'이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스페이스선+에서 6월 13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물질, 현상 등을 임 작가의 개인적 사유를 통해 인식, 관객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 개인이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계 및 사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이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임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참여적 방식으로 재해석해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우리 일상에서 물질의 가치는 편의에 의해 쉽게 결정된다. 그러나 비가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안에 포함된 물질성, 운동성, 질량 등 다층적 범위에서 사물을 포착하고 그것의 환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지현 작가는 홍익대에서 도예 유리를 전공하고 동대 일반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했다. 그룹전 2016년 세라믹창작센터 입주작가 보고전, 2016년 대만 도예 비엔날레 전시회, 2015년 제8회 경기 국제 도자비엔날레 전시회 등 참여한 바 있다.

수상경력은 2015년 제9회 경기 국제 도자비엔날레 입선, 2014년 10회 미노 국제 도자 공모전 입선, 2013년 익산 한국공예대전 대상, 2013년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특선 등이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연기길, 임지현, way of smoke, 45x71x8cm, 2017

동국대 평생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 작품집

정진희 지도교수 및 18명 수강생 작품 실려

동국대 평생교육원 불교정통꽃꽂이 최고위지도자과정(지도교수 정진희) 수강생 18명의 작품들을 한데 모은 작품집이 발간됐다. 지난 3년간 정진희 교수와 수강생들이 꽃잡지 '세이플로리'에 연재한 작품 130여점을 실은 책이다.

정 교수는 15년간 평생교육원에서 불교꽃꽂이를 가르쳤다. 그동안 정 교수는 타종교계 꽃꽂이에 비해 불교꽃꽂이는 그 방법과 의미 등을 배울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한 점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불교에서 꽃은 육법공양 중 하나로 매우 중요시 되어왔습니다. 사찰 법당은 환경이 복잡한 만큼 꽃의 배치도 매우 중요하며, 너무 비싸거나 향이 진한 꽃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꽃 공양에서 꽃을 어떻게 꽂을지, 또 얼마만큼 꽃을 사용할지, 어떤 선과 형태로 만들어야하는지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번 작품집 발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불교꽃꽂이의 의미와 특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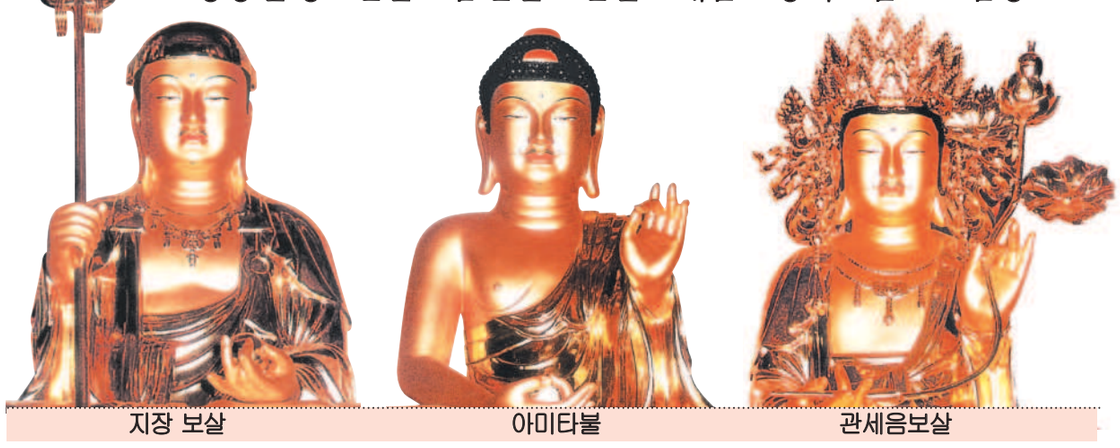
취지에 따라 작품집 첫 장에는 불교꽃꽂이를 임하는 마음가짐과 방법 등이 소개됐다. '불교 꽃꽂이는 장식의 의미보다 봉헌의 의미다' '생명이 없는 소재보단 생명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환경에 해가 되는 오아시스 사용을 자제한다'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정 교수는 "불교꽃꽂이와 일반꽃꽂이는 다른 점이 많다"면서 "법당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색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너무 서구적인 꽃은 뾰족집인 성당이나 교회엔 잘 어울리지만 한국적인 절집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즉 동양꽃꽂이 기법을 잘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진희 교수는 前 대한불교꽃꽂이연합회 이사장, 前 웰다잉운동본부장 등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및 명상리더십센터장을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부설거사의 전설이 깃든 월명암 부설전. 처마 뒤로 보이는 산이 내변산 능가산이다. 재가불자가 아라한이 됐다는 연유를 알기 위해 이 길을 택했고 부설전에서 그 의미를 깨달았다.



직소폭포의 물줄기가 호쾌하게 느껴진다.



유홍준이 극찬한 내소사 설선당.



능가산의 산그림자를 드리운 내변산 직소보 모습.

소생 약속한 절, 來生에도 찾아가리

저 절로 가는 길
⑪ 월명암에서 내소사 가는 길

전나무 기둥이 떠받치는 숲 속
검은 고딕 나무가 자라서
연등 천장의 내면이다
고딕 숲에서 내 목울대는 하늘거리는 풀처럼
검은색 너머 기웃기웃,
수사복 사내들의 뼈가
나무의 뼈라면
내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의 죽음/자살이다
누군가의 메마른 입술에서
나뭇잎이 꾸역꾸역 자랄 때
내 안에서도 밖에서도
열고 닫히는 새눗 아가미들의 연쇄반응들,
숲을 떠다니는 부레族 나뭇잎을 만나도
놀랍지 않다
고딕 숲의 부력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관습들에서 열거되는 투니카와 쿠쿨라의
수도복 입은 발자국이 모여들겠다
오래된 불빛이 鬱鬱 침엽수를 밝히려 한다면
내 묵언은 천천히 닫아야 할 입이 너무 많다

송재학 시인의 '고딕 숲'의 전문이다. 절에 드는 전나무 숲길에서 하필이면 중세 유럽의 기독교 건축 양식을 떠올렸을까. 고딕 숲을 읽어선지 능가산(楞伽山)을 넘어 내려오느라 가뜩이나 걸음이 더뎌진 나는 600미터에 이른다는 전나무 숲을 만만하게 통과하기 어려울 성싶었다. 검은 수사복의 사내처럼 입을 닫아버린 채 나는 터덜터덜 일주문을 향해 걸었다.

내소사(來蘇寺)는 절도 절이거니와, 절 입구를 이루는 전나무 숲이 아름답기로 유명이다. 그 때문인지 내소사를 다녀온 사람들이 전나무 숲을 관행적으로 찬탄할 뿐인데 송재학 시인은 죽음을, 그것도 자살을 언급한다. 이미 나무의 뼈를 보았으므로 그로선 당연히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겠지만, 가벼운 걸음으로 절에 가려던 사람에게는 섬뜩한 느낌이 아닐 수 없다.

전나무 숲이 워낙 무거웠기 때문인지 일주문 가는 길에서 고개를 돌려 올려다본 능가산 관음봉이 가벼이 허공에 떠 있는 듯 보였다. 변산이라 부르는 이 산은 석가모니가 능가경을 전파했다고 하여 능가산이다.

산 어디쯤에선가 이따금 곰소만이 은비늘을 털곤 했던 변산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이다. 산줄기로 둘러싸인 반도의 중앙부는 내변산이다. 그 바깥의 해식단애를 따라서 채석강 · 적벽강 · 모항 · 변산 해수욕장이 병풍을 펼치는데 이것은 외변산이다. 한마디로 천의 얼굴을 가진 변산이므로 부처의 제행무상을 가르치는 능가산인 것이다.

나는 일부러 월명암(月明庵)을 거쳐 능가산 제1봉인 관음봉에 올랐고, 올랐던 길을 되돌아 나와 내소사로 내려왔다. 그러자니 직소폭포와 재백이 고개를 거쳐야 했다. 아무리 내소사가 종기로 곧장 가기보다 재가불자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월명암에 들러 그 연유를 담아 가고 싶었다.

제행무상 가르치는 내변산 능가산
월명암엔 아라한과 증득 전설이
소생의미는 내생까지 이어져

- 걷는길 : 남여치– 월명암– 직소폭포 – 자백이 고개– 관음봉 – 내소사
- 거리와 시간 : 약 13km, 5시간

월명암에 가자마자 나는 부설전을 찾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부설전(殿)이 아니라 부설전(傳)으로 부설 거사에 관한 고문필사본을 대웅전에 모셔 둔 것이었다. 인도의 유마 거사, 중국의 방온 거사와 함께 세계 3대 거사라는 부설 거사. 거사란 산스크리트의 그리하파티(gṛhapati)의 역어로, 불도를 수행하는 속세의 남자를 이른다. 그중 웬만한 불자라면 모르는 이 없는 인도의 유마 거사는 자주 칭병(稱病)하고 누웠는데, 문병 오는 불자들에게 '중생이 아프니 어찌 내가 아프지 않겠느냐' 고 말했던 성자이다.

월명암 고문서를 보니 부설 거사는 본래 스님이었다. 스님이었던 그가 환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여자와의 스캔들 때문이었지만, 거기에는 원효 스님과 요석 공주 사이처럼 세속적인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사연이 있다. 기록에는 재가자인 그가 도반인 영조 스님보다 앞서 아라한과를 얻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부설 거사의 딸 이름인 월명이 암자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는 월명암은 내변산에 흐릿하게 배어 있는 운무 때문인지, 본래 그런 풍수 때문인지 유독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이 넘친다.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꼽는 산상수행처인 까닭을 알 것도 같았다.

직소폭포에서 관음봉과 내소사에 이르는 길에 잔돌이 많고, 돋아난 바위는 곧 쪼개질 듯 날카롭고, 계곡은 가뭄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겨우 흐르고 있었지만, 이내 우리는 내소사를 발아래 두고 능가산을 내려서고 있었다. 그때 함께 산행했던 도반이 '내려다보이는 절'이 좋아 산에 간다고 내게 건넸다. 나는 빙긋이 웃었다. 절을 찾아 산을 몇 구비 넘은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내소사는 백제 무왕 때 혜구 스님이 소래사(蘇來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소래사는 고려시대 정지상의 '제변산소래사'를 비롯한 시문들과 조선조 중종 25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한다. 김정호의 '대동지지'는 소래사와 내소사를 혼용하다가 숙종 26년 조성된 '영산회괘불' 부터 내소사란 이름으로만 기록한다.

소래사에서 내소사로 바뀐 데는 단순히 글자 순서를 바꾼 것 이상의 심오함이 있다. 내소사란, 이곳에 오는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하기 바란다는 뜻이니, 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공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내소사는 'ㅁ'자의 가람배치를 보여 주는데 그 중심에 대웅보전이 있다.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극찬한 설선당의 구부러진 기둥과 서까래를 보러도 관광객들이 몰린다.

내소사는 그 이름부터가 소생을 약속한 절이다. 누구라도 내소사에 다녀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혹시 우리는 이성복 시인이 오래전에 진단한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지는 않을까.

윤회의 차원에서 본다면 소생은 지금의 상황만이 아니라 내생까지도 이어진다. 수행자가 아닌 나는 이생에서 깨우칠 자격도 없고 윤회를 벗어날 길도 없다.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소망이 나에겐 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후회했던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싶다.

내가 만일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내생에서도 나는 내소사를 찾아 걸어갈 것이다. 그때 나는 관광객의 가벼운 걸음으로 내소사를 향해 걸을 것인가? 아니, 송재학 시인처럼 내소사로 가는 입구인 전나무 숲길에서부터 죽음의 무거움을 노래하겠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고통은 참나의 자비로운 표현

어려움은 더 나아지게 하는 계기 입니다.

성찰을 하게 되고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방종과 나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변화를 찾게 합니다.

고통은 참나의 자비로운 표현입니다. 참나가 속삭입니다.

"일어나라. 잘 해보자. 잘 할 수 있다. 바르게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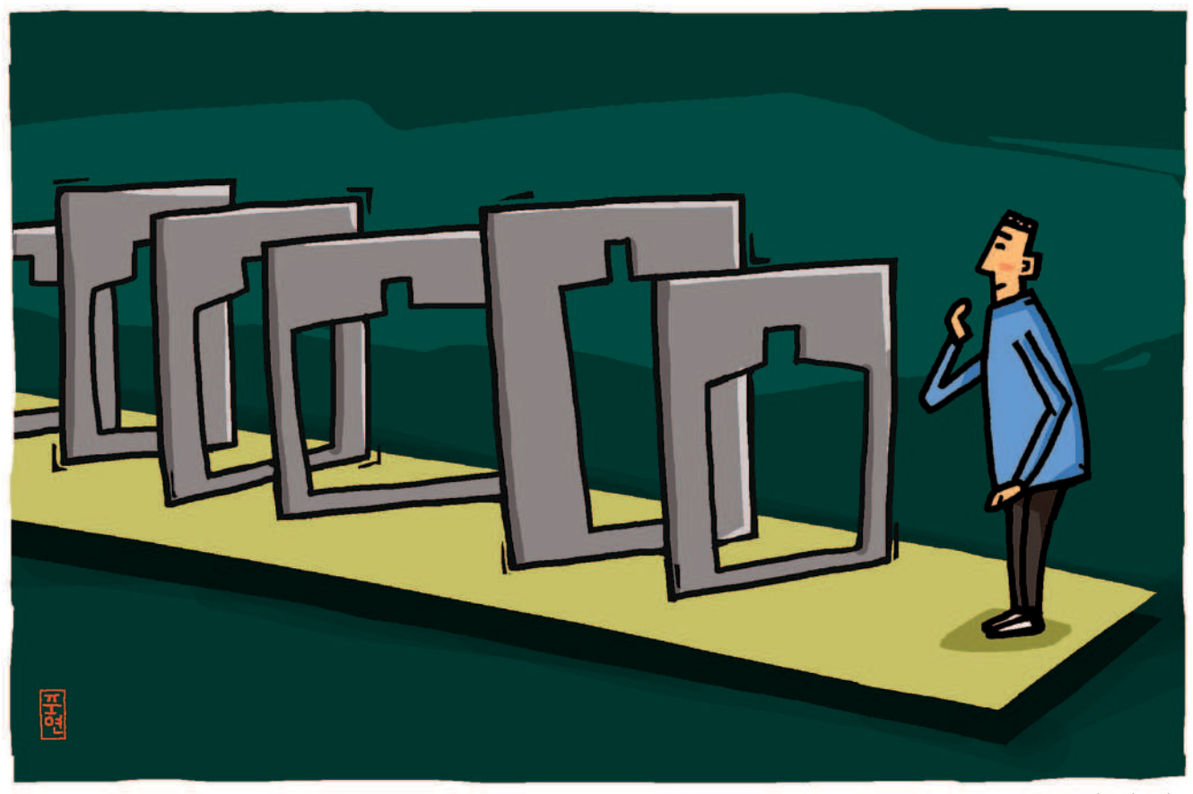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공동체를 이끄는 힘, 사랑과 공경

저항하지 않는 안주(安住)는 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새로운 소망이 펼쳐지는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국민들은 바르고 지혜로운 리더에 대한 뜨거운 열망 속에 새로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의 사전적 정의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우두머리인 최고의 통치권자' 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지녔지만,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경제 · 외교 · 국방 등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뛰어난, 하지만 사심 없는 전문가들을 찾아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불교에서 찾는다면 전륜성왕(轉輪聖王)을 말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 하심(下心)의 자세로 자문을 구하고, 그에 만족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를 반복하는 실천력을 수반한 지도자상은 선재동자가 아닐까 합니다. 구법(求法)여행을 떠난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을 시작으로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모두 53명의 선지식을 만납니다. 선재동자가 만난 여러 인물 중에는 공동체를 상생으로 이끈 최고의 리더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선재동자가 묘광성에 겪은 일입니다.

선재동자와 대광왕

선재동자는 선지식을 찾아다니다가 묘광성(妙光城)에 도착했습니다. 대광왕(大光王)은 보배 누각, 보배 연못, 보배 나무 등 갖가지 빛깔을 가진 보배로 장엄된, 넓고 장엄한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즐거워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선재동자는 오직 바른 법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선지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체를 바닥에 엎드려 왕의 발에 절한 후 합장하고 서서 여쭈었습니다.

"거룩한 이여, 저는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의 도를 닦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왕은 대답했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따라서 생각하며 자세히 관찰하고 깨달아 익혀서 그 법으로 왕이 되었다. 이 법으로 가르치고 정사를 행하며,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며,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방편을 주어 참된 성품을 생각하게 하고, 큰 사랑에 머물며 장애와 속박을 여의고 자재함을 얻게 하느니라."

왕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일 가난하고 굶주리며 여윈 사람들이 와서 옷과 음식을 구하면 지난 날 착하지 못한 열 가지 나쁜 업 때문에 오늘날 가난하고 곤궁하고 헐벗고 굶주리게 된 것이니,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만일 필요하면 네거리에 차려놓은 복락을 나누어 가져가도 좋다."

도시나 시골이나 길거리마다 보살들이 있어서 어려운 중생에게 물건들을 보시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거두어들인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바르게 믿는 마음, 탐애의 뜨거움을 덜어내고, 번뇌를 소멸케 하여 진실한 이치를 알게 함이며, 나쁜 짓과 원수를 버리고 잘못된 소견을 뿌리 뽑아서 모든 업을 청정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광왕이 삼매에 들었습니다.

求法하는 지도자상 '선재동자'
리더는 下心 · 실천 뒷받침돼야
'자리이타' 사섭법도 기본 덕목

대광왕이 삼매에 들자 성의 안팎이 진동하며 보배 땅, 보배 담, 보배 궁전, 누각, 축대, 창, 문 등이 서로 부딪히고 왕을 향하여 경례하는 모양을 지으며 아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산과 들과 초목들도 빙글빙글 돌며 임금을 향해 예경하고, 못과 샘물, 강과 바다가 넘쳐 왕의 앞으로 흘렀습니다. 용왕과 천왕들이 허공에서 풍악을 연주하고 천녀들은 노래하며 대광왕을 찬탄하였습니다.

이때 대광왕이 삼매에서 일어나 선재동자에게 말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보살의 큰 인자함이 으뜸인 세간을 따르는 삼매문(三昧門)을 알 뿐이니, 부동(不動)우바이를 찾아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의 도를 닦는지 물어 보아라."

선재동자는 대광왕의 발에 절한 후 공손히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물어났습니다.

– 〈화엄경(華嚴經)〉 중에서

자리이타의 사섭법

진리를 찾는 구법여행의 주인공 선재동자는 53선지식을 만납니다. 53선지식은 보살이 수행해 가는 십신(十信) · 십주(十住) · 십행(十行) · 십회향(十廻向) · 십지(十地) · 등각(等覺) · 묘각(妙覺)의 대승 52위를 말합니다. 선재동자는 모두 55명과 만나지만, 문수보살을 두 번 만나고, 44번째의 변우동자는 다른 선지식을 소개하는 역할만 하고, 51번째와 52번째의 선지식인 덕생동자(德生童子)와 유덕동녀(有德童女)는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한 선지식으로 봅니다. 결국 선재동자가 법을 구한 선지식은 모두 52인이기 때문에 대승 52위에 각각 맞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풍요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끈 리더인 광명왕은 선재동자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근을 심는 보살행인 '네 가지 거두어 주는 일-사섭법(四攝法)' 을 전합니다. 이는 중생이 불법(佛法)을 배우고 실천하는 네 가지 보살행을 말합니다.

①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물질적 · 정신적으로 베푸는 보시섭(布施攝) ②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하는 애어섭(愛語攝) ③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행섭(利行攝) ④서로 협력하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는 동사섭(同事攝)입니다.

공동체의 이상향 '화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후 권력을 남용 · 오용하게 되면 국민을 실망시키고, 사회와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진리를 구하던 선재동자와 같은 하심과 이를 위한 실천력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또한 묘광성을 다스리던 대광왕처럼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함은 물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할 일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바르게 믿는 마음 탐애의 뜨거움을 덜어내고, 번뇌를 소멸케 하여 진실한 이치를 알게 함이며, 나쁜 짓과 원수를 버리고 잘못된 소견을 뿌리 뽑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화엄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전하는 의상대상의 '법성게(法性偈)' 에는 '한 찰나에 우주 일체가 펼쳐지고, 하나는 곧 전체이며, 전체는 곧 개체로서 티끌 속에 온 세계를 머금는다(一中一切多中一 一微塵中含十方)' 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화엄의 세계라면 우리 사회의 생명력이 강해지려면 상호 연결성이 강해져야합니다. 공동체의 하나 됨은 자신(개인)을 고집하지 않고도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비경쟁적인 구조에서 피어납니다.

우리 시대 리더는 자리이타의 사섭법을 잘 펼치는 지혜의 군자(君子)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